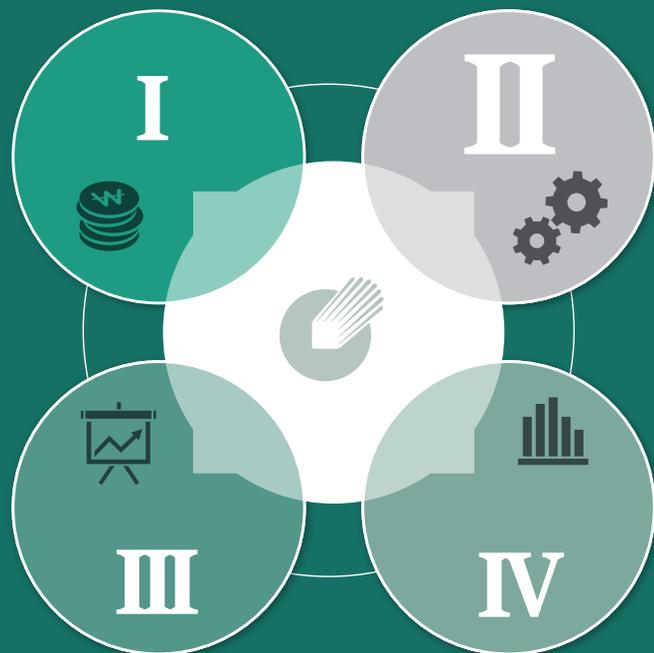




# 2024 경제전망 II

## 2024 Economic Outlook II

[생산부문]





# 2024 경제전망 Ⅱ

- 생산 부문 -

## 2024 경제전망 II

### - 생산 부문 -

총괄 | 진익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예승우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  
홍선기 경제분석관  
황종률 경제분석관

작성 |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  
김윤희 경제분석관  
조은영 경제분석관  
김용균 경제분석관

지원 | 이인희 행정실무원  
박우석 자료분석연구원

「2024 경제전망 시리즈」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GDP 성장률 및 주요 부문별 경제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 02) 6788-3781 | nabo3781@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2024 경제전망 Ⅱ

- 생산 부문 -

2024. 3.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4. 3.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간사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며 경기둔화 흐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분열이 실체화되고, 주요국들이 역외에 대해 그린무역장벽을 강화하는 등 대외 환경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시성 있는 정책의제 발굴과 국회의 예결산·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월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 발간 이후 변화된 국내외 경제여건을 분석하여 총 4권으로 구성된 「2024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제Ⅱ권에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등을 생산 측면에서 분석·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총부가가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2.2% 성장할 전망입니다. 산업 부문별로는 제조업에서 세계 교역량 증가, 반도체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며 3.7% 증가할 전망입니다. 서비스업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가 제약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작년보다 낮은 1.8% 성장률을 보일 전망입니다. 건설업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건설경기로 건축 착공 면적이 감소하는 등 성장이 제한적이고,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성 완화와 석유화학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이 회복되어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은 대외적으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민간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내수가 부진할 전망입니다. 도소매업, 숙박업 등 소상공인 경영업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보고서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효과적인 경제정책 마련을 위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 [NABO 2024년 생산 부문별 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2.6	0.9	1.8	1.4	2.4	2.1	2.2
총부가가치	3.1	1.2	2.1	1.7	2.5	1.9	2.2
제조업	1.5	-2.0	4.0	1.0	5.0	2.6	3.7
서비스업	4.2	2.7	1.5	2.1	1.4	2.1	1.8
건설업	0.7	5.2	0.6	2.7	-1.2	-2.9	-2.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9	-5.6	-4.3	-5.0	4.7	4.6	4.7
기타	-1.3	-1.4	-2.9	-2.2	1.9	3.1	2.6
순생산물세	-2.2	-2.9	-1.1	-2.0	-0.2	3.2	1.6

주: 1. 기타는 농림어업 및 광업  
 2.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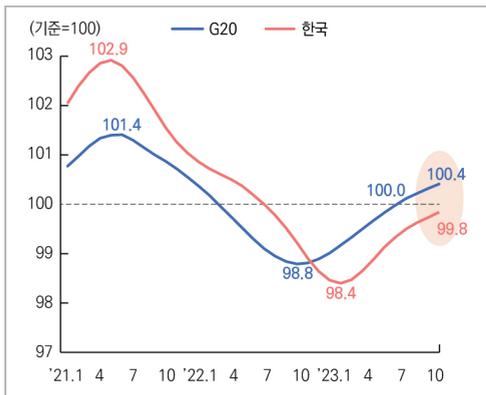
## I. 동향

### 1. 산업 여건

#### □ 2024년 세계 경제는 어려운 상황 속에 완만한 회복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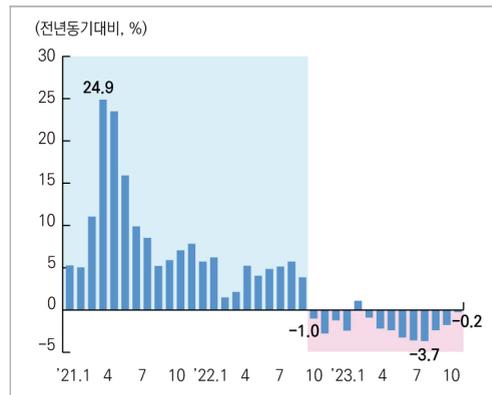
- 인플레이션의 막바지(last mile) 안정화를 위한 긴축 통화정책이 지속
  -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전환 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금리상승 및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지원 여력 감소
- 주요 국제기구는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전년보다 다소 낮게 전망
  - ('23 → '24): IMF(3.1% → 3.1%), 세계은행(2.6% → 2.4%), OECD(3.1% → 2.9%)
- 경기상황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OECD 경기선행지수(CLI)를 살펴보면, 세계 교역량 축소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더딘 회복세를 나타냄
  - G20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100p선 복원이 지체
- 세계 교역 증가량에 대해 WTO는 2023년에는 0.8%, 2024년에는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단, IMF는 3.3%, 세계은행은 2.3%, OECD는 2.7%로 전망)
  - 세계 교역량은 2022년 10월까지 평균 7~8%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3년 이후 중국의 회복세 약화, 공급망 재편, 자원 무기화 등으로 부진 지속

| OECD 경기선행지수 |



주: 100p 이상 경기상승세, 이하 경기하락세 예상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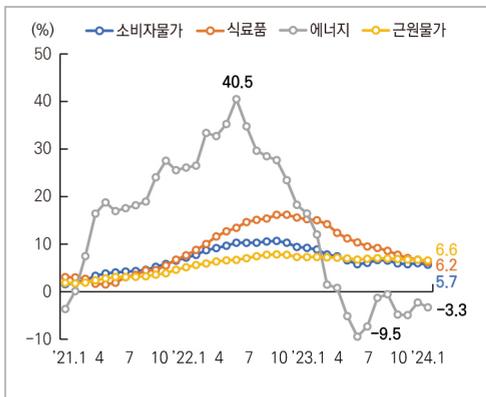
| 세계 교역량 |



자료: CPB WORLD TRADE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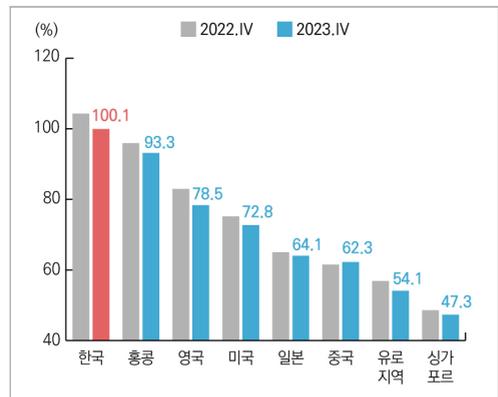
- 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는 2024년에도 지속될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24년 1월 기준 5.7%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식료품 물가는 6.6%로 높은 수준
- 고금리, 고물가 수준이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황을 어렵게 하고, 특히 저소득 국가 및 신흥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
  -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와 비금융기업의 부채비율 비교 시, 한국의 가계 부채비율이 100.1%로 조사대상 3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2년 넘게 유지
  - 국내총생산 대비 비금융기업의 부채비율은 2023년 4분기 기준 125.2%로, 홍콩(258.0%), 중국(166.5%), 싱가포르(130.6%)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음

| OECD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



자료: OECD

|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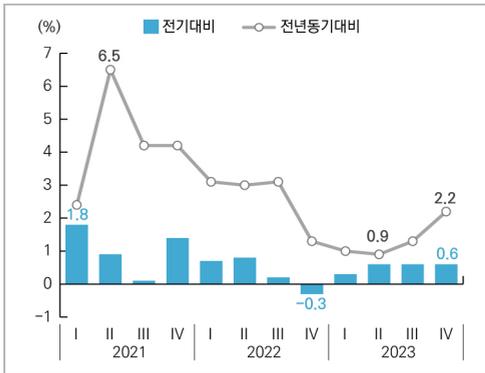
자료: 국제금융협회(IIF)

## □ 2024년 국내 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IT 중심 제조업 수출이 성장을 견인

- 상반기 국내 경제는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따른 설비투자 상승과 수출 증가가 성장률을 견인
  -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가계의 소비 여력 감소와 증가하는 한계차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진한 건설투자는 국내 경제에 하방 요인
  - 경기지표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8월 이후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고 있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



### | 실질 GDP 성장률 추이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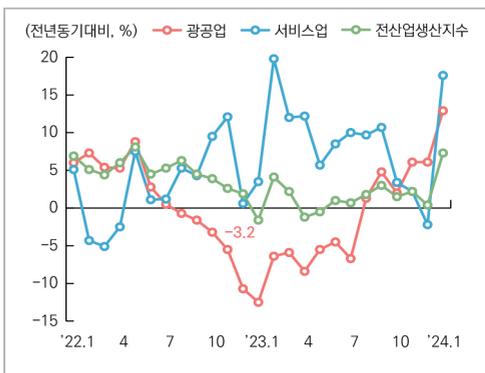
### | 경기종합지수 |



자료: 통계청

- 국내 경제에 영향이 큰 수출은 2024년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회복세가 예상
  - 2023년 11월 이후 반도체 수출이 개선되면서 국내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 되었으며 12월 45억 달러를 나타내며 회복세로 전환
- 생산 부문에서 전산업생산은 2022년 8월 이후 12개월 동안 광공업 생산의 감소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의 견인으로 하락 폭 완화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월별로 3% 전후의 물가 상승률로 안정화
  -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률은 2024년 2월 기준 3.7%로서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1%보다 높음

### |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



자료: 통계청

### | 소비자물가 및 소비자심리지수 |



주: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이상이면 낙관적, 100이하면 비관적  
자료: 통계청

## 2. 통상 여건

### 가. 그린무역장벽 심화

#### □ 유럽과 미국은 최근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도입을 구체화

- EU는 2020년에 「순환 경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규제를 도입
  - 2023년 9월 법적 검토 종료 후 최종 의견서를 EU 집행위원회에서 수정·보완하여 2024년 내 EU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 예정
-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도 2021년 10월 PFAS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2021-2024 PFAS 전략 로드맵」을 발표
  - 2024년 1월 8일, EPA는 329개의 PFAS에 대해 EPA의 검토와 위험 판정 결과를 받은 후 기업이 다시 제조 및 사용을 할 수 있는 규칙을 확정

#### □ 글로벌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한 ESG 경영공시 의무화 시작

- 2023년 6월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ESG 공시기준을 발표
  - 우리나라도 2026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상장사들의 ESG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
  -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평가가 객관화되고 의무화, 표준화, 연계성이 강조되며 글로벌 기업에게 적용

### 나. 공급망 불안정성

#### □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의 구체화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지속

- 주요국들의 자국우선주의가 보다 구체화 되면서 정책이나 규제의 형태로 글로벌 공급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반도체와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조치, EU의 「핵심원자재법 (CRMA)」, 「탄소중립 산업법 (NZIA)」,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영향을 받음



#### □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물류 장애에 대한 대응 필요

-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한 수에즈 운하 물류 교란 및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 운하 물류 교란으로 해상운임이 상승
- 우리나라 수출은 해상 운송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운송지연과 비용증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쟁국 대비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다. 원자재 수급 동향

##### □ 원자재 가격은 2024년 중 세계 경기 둔화와 수급안정 등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2024년 상반기에 국제유가는 OPEC+ 감산 연장, 러시아의 휘발유 수출 중단(3~8월), 중동 불안 등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요보다 공급이 증가하면서 하반기에는 하향 안정화될 전망
  - 참고로, IMF(2024.1.)는 2024년과 2025년 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각각 79.1달러, 75.3달러로 전망
- LNG와 석탄 가격은 조기비축에 따른 충분한 재고량, 동절기 온화한 기온으로 인한 난방수요 감소, 재생에너지 전환 등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과 구리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부양, 니켈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 및 공급 축소로 인해 완만한 가격 상승세를 보일 전망
- 곡물 가격도 인도의 수출금지로 상승세를 보이는 쌀을 제외하고 주요 수출국의 기상여건 개선, 수출 견조세 유지, 양호한 재고 수준과 수요부진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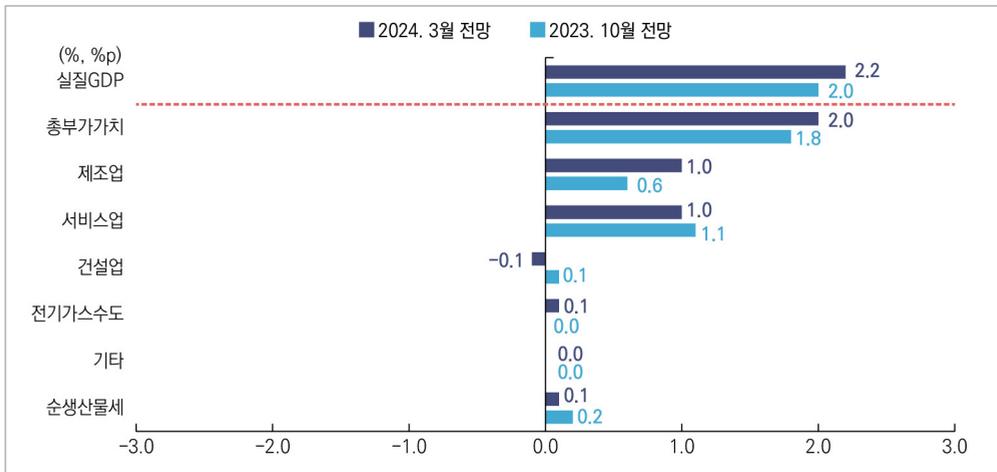
## II. 전망

### 1.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 □ 2024년 총부가가치 성장률은 2023년 10월 전망 대비 0.2%p 상향 조정

- 제조업은 세계 교역량 회복에 따른 통관수출 전망치 상향, 제조업 가동률, 생산 및 출하 증가, 재고 감소 등 긍정적 산업활동을 반영해 상향 조정
- 서비스업은 대출잔액 증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소득의 감소 등을 반영해 하향 조정
- 건설업은 건축허가면적 대비 건축 착공 면적의 감소 추세, 금융 리스크 등 하방 압력과 최근의 건설경기 부진을 반영해 하향 조정
-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반도체·석유화학 등 제조업의 생산활동 회복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

| 2024년 전망의 성장기여도 비교 |





## 2. 제조업

### □ 2024년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3.7% 증가할 전망

- 제조업 가동률이 2023년 8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고, 반도체 수출 회복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생산과 출하는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는 등 최근의 긍정적 산업활동을 반영해 지난 10월 전망(2.2%) 대비 1.5%p 상향 조정
  - 세계 교역 회복과 수출 증가, 긴축적 통화 기조 가운데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증가,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완화, HBM 등 반도체 수출 회복과 가격 인상 등은 상방 요인
  - 금융 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글로벌 수요부진 우려,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에 따른 대중국 수출 회복 지연, 미국의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에 따른 소비 하락,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미·중 중심으로의 공급망 재편 등은 하방 요인
- 2024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5.0%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수출 회복세 둔화와 기저효과로 2.6% 증가할 전망

## 3. 서비스업

### □ 2024년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1.8%로 전년보다 증가세 둔화 전망

- 2023년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는 2.1% 증가하며 2022년 보다 2.1%p 둔화
  - 상반기 중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로 소비와 투자 여력이 축소되면서 도소매·숙박음식업과 금융업을 중심으로 실질 부가가치 감소
- 2024년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대비 0.3%p 감소할 전망
  - 대출잔액 증가 및 고금리 지속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소득의 감소,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부동산 PF 부실과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금융권의 평가손실 등은 하방요인
  - 국내외 관광수요의 증가로 인한 운수업의 업황 개선, 인구고령화, 선진 의료기술의 적용 등 의료·보건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는 상방요인

#### 4. 건설업

##### □ 2024년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2.1% 감소할 전망

- 2024년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동기대비 상반기 1.2%, 하반기 2.9% 각각 감소할 전망
  - SOC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와 동시에 실질 건설비용 안정화는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한 자금경색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재정 부실화는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방 요인을 제약

####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 2024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4.7% 증가할 전망

- 2024년에 IT 업종 중심의 수출 개선은 상방 요인, 고금리와 높은 체감 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
  - 석유화학의 기저효과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생산활동이 회복되어 수요가 증가
  - 냉방·난방도일 증가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2024년의 안정적인 원자재 가격 동향 전망도 상방 요인으로 작용
- 연내 전기·가스·수도 요금의 인상 가능성 제고로 성장세가 제약될 수 있음
  -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는 2024년에 난방도일 감소 및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하방 요인으로 작용



### III. 국제비교

#### 1. 반도체

##### □ 2024년 세계반도체 시장 규모는 6,044억 달러로 전년대비 13.9% 증가 전망

- 2023년에 부진하였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024년 1,360억 달러로 49.7% 증가하며 2022년 수준(1,391억 달러)을 거의 회복할 것으로 전망
  -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메모리 반도체 공급업체들이 2024년 중 점진적으로 감산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
- AI로 촉발된 고대역폭 메모리(HBM: High Bandwidth Memory)에 대한 수요는 2024년에도 유지될 전망
  - HBM이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6%, 2023년 8.4%, 2024년 20.1%로 전망(트렌드포스, 2024.3.18.)
  - HBM 시장 규모는 2022년 20.8억 달러, 2023년 43.6억 달러, 2024년은 전년대비 287.8% 증가한 169.1억 달러로 전망

#### 2. 자동차

##### □ 2024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전년대비 4.1% 증가하며 성장세 둔화 전망

-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주요국들의 정책 리스크에 따른 전기차 시장 둔화 전망,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수요 하락 등 하방 압력으로 2023년 대비 성장률 둔화 전망
  - 다만, 2024년 하반기 중 주요국의 금리 인하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완만한 성장을 예상
- 주요국들의 친환경 자동차 관련 패권 경쟁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 3. 화학

#### □ 2024년 세계 화학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5% 증가할 전망

- 2023년 세계 화학시장 규모(매출액 기준)는 2021~2022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인 기저효과로 3.0% 감소한 것으로 추정
  - 기저효과 외에도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유럽과 중국의 경기회복지연,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부진했던 전방산업 수요로 인해 재고가 누적되며 화학산업 성장이 정체
- 이런 추세는 2024년에도 이어지면서 세계 화학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약 1.5% 증가한 약 5.6조 달러로 전망
  - 세계 경기 둔화와 유가의 하향 안정세, 중국의 경기 둔화와 수요 위축,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등의 가정에 근거
  - 단, 2024년 유가가 전년대비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세계 석유 수요와 OPEC+ 감산 규모에 따라 유가의 변동 폭이 확대될 수 있음

### 4. 철강

#### □ 2024년 세계 철강 수요는 2023년 대비 1.9% 증가할 전망

- 중국의 철강 수요는 2023년 수준을 유지
  - 인도, EU27+UK 및 아세안 국가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철강 수요 회복 예상
  - 2024년 조강생산 능력은 19.1억톤으로 전년대비 1.1% 증가
-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지만, 중국의 경기둔화와 글로벌 철강 수요의 회복이 지연되어 2024년 철강 가격은 하락 기조가 예상
  - 철강 가격에 영향을 주는 원자재 가격은 2023~2024년에 하향 안정화가 예상되나 2019년 이전과 비교 시 여전히 높은 수준
- 업종별 비교 시 건설, 자동차 부문의 철강 수요는 감소하고, 조선, 일반기계 부문의 철강 수요는 증가할 전망



## 제 I 부 동향

제1장 산업 여건	3
제2장 통상 여건	11

## 제 II 부 전망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31
제2장 제조업	33
제3장 서비스업	47
제4장 건설업	60
제5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66

## 제 III 부 국제비교

제1장 반도체	79
제2장 자동차	85
제3장 화학	89
제4장 철강	94

# BOX 차례

[BOX 1]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2024년 정부 지원 현황 .....	17
[BOX 2]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공공기관 부채 .....	74
[BOX 3] 글로벌 철강산업 이슈 .....	100



## [제 I 부]

[표 I-1] 주요 국제기구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	4
[표 I-2] 국가별 ISSB 공시기준 도입 전망 .....	14
[표 I-3] 에너지 가격 동향 .....	23
[표 I-4] 비철금속 가격 동향 .....	25
[표 I-5] 농산물 가격 동향 .....	26

## [제 II 부]

[표 II-1] 2024년 전망의 부문별 비교 .....	32
[표 II-2] 가공단계별 수출, 증감률 및 비중 .....	37
[표 II-3]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	42
[표 II-4]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	64

## [제 III 부]

[표 III-1]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	81
[표 III-2] 지역별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	81
[표 III-3] 집적회로(IC) 부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	82
[표 III-4] 자동차 산업 현황 .....	86
[표 III-5] 세계 자동차 시장 전망 .....	88
[표 III-6] 철강제품 분류와 용도 .....	94
[표 III-7] 글로벌 철강 수요 전망 .....	95
[표 III-8] 글로벌 조강생산 전망 .....	95

# 그림 차례

## [제 I 부]

[그림 I -1] OECD 경기선행지수 .....	4
[그림 I -2] 세계 교역량 .....	5
[그림 I -3]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	5
[그림 I -4]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	6
[그림 I -5] OECD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	6
[그림 I -6]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7
[그림 I -7]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	7
[그림 I -8] 실질 GDP 성장률 추이 .....	8
[그림 I -9] 경기종합지수 .....	8
[그림 I -10] 우리나라의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추이 .....	9
[그림 I -11]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	10
[그림 I -12] 소비자물가 및 소비자심리지수 .....	10
[그림 I -13] 선형경제와 순환경제 개념 .....	11
[그림 I -14] EU PFAS 규제 적용 로드맵 .....	12
[그림 I -15] ISSB 구성요소 및 특징 .....	15
[그림 I -16] 미국 SEC 기후법안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 공시 요구사항 .....	16
[그림 I -17]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 .....	19
[그림 I -18] 글로벌 일일 물동량 .....	20
[그림 I -19] 해상운임 지수 .....	20
[그림 I -20] 항공운임 지수 .....	20
[그림 I -21] 에너지 가격 추이 .....	23
[그림 I -22] 비철금속 가격지수 추이 .....	25
[그림 I -23] 농산물지수 추이 .....	26



## [제 II 부]

[그림 II-1] 2024년 전망의 성장기여도 비교	32
[그림 II-2] 월간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35
[그림 II-3] 제조업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증감률 추이	36
[그림 II-4] 대중국 수출액 및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	36
[그림 II-5] 분기별 제조업 생산	38
[그림 II-6] 월별 제조업 생산	38
[그림 II-7] 분기별 출하 및 재고	39
[그림 II-8] 월별 제조업 생산	39
[그림 II-9] 분기별 내수 및 수출 출하	39
[그림 II-10] 월별 내수 및 수출 출하	39
[그림 II-11] 제조업 재고율 및 증감률	40
[그림 II-12] 분기별 생산능력 및 가동률	41
[그림 II-13] 월별 생산능력 및 가동률	41
[그림 II-14]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43
[그림 II-15]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감률 추이(2023년 하반기)	48
[그림 II-16] 서비스업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 증감률(2023년 하반기)	48
[그림 II-17] 도소매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감률 추이	49
[그림 II-18] 도소매업 생산지수의 추이	50
[그림 II-19] 도소매 재고액지수 추이	50
[그림 II-20] 금융보험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감률 추이	50
[그림 II-21] 금융보험업 생산지수의 추이	51
[그림 II-22]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규모 추이	51
[그림 II-23] 정보통신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감률 추이	51
[그림 II-24] 정보통신업 생산지수의 추이	52

[그림 II-25] 방송광고 시장규모 추이	52
[그림 II-26] 부동산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감률 추이	52
[그림 II-27] 부동산업 생산지수의 추이	53
[그림 II-28] 건축 허가·착공·준공 추이	53
[그림 II-29]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전망	54
[그림 II-30] 관광객 추이	55
[그림 II-31] 방한 중국관광객 추이	55
[그림 II-32] 요양급여비 추이	56
[그림 II-33] 카드승인실적 증감률	56
[그림 II-34]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 추이	57
[그림 II-35] 주요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DSR 증감 추이	57
[그림 II-36] 주요국 비금융기업의 DSR 증감 추이	57
[그림 II-37] 생활물가지수 추이	57
[그림 II-38] PF 대출 현황	58
[그림 II-39] 용도별 부동산거래 추이	58
[그림 II-40]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59
[그림 II-41]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 추이	59
[그림 II-42] 건축허가면적 대비 건축착공면적 추이	61
[그림 II-43] 건설업 부문별 실질 부가가치	62
[그림 II-44]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64
[그림 II-45] 건설용 중간재 가격 추이	65
[그림 II-46] 건설업 부문별 실적 지수	65
[그림 II-4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적치 추이	67
[그림 II-48]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적치(전년대비)	68
[그림 II-4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적치(전기대비)	68



[그림 II -50] 전기·가스·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 추이 .....	69
[그림 II -51] 부문별 전기소비 .....	69
[그림 II -52] 도시가스 소비 추이 .....	70
[그림 II -53] 천연가스 소비 추이 .....	70
[그림 II -54] 환경산업의 매출액 현황 .....	70
[그림 II -55]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 .....	70
[그림 II -56] 전기·가스·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 전망 .....	71
[그림 II -57] 부문별 에너지 최종소비 .....	72
[그림 II -58] 업종별 산업생산지수 .....	72
[그림 II -59] 난방도일(18℃) 추이 .....	72
[그림 II -60] 냉방도일(24℃) 추이 .....	72
[그림 II -61] 가구당 소득 및 지출 추이 .....	73
[그림 II -62] 가스 단가와 요금 추이 .....	73

### [제 III 부]

[그림 III -1] IT 기기 출하량 전망 .....	80
[그림 III -2] 조사기관별 시장 규모 .....	80
[그림 III -3] 조사기관별 시장 규모 증가율 .....	80
[그림 III -4] HBM 시장 전망 .....	84
[그림 III -5] 자동차 생산 추이 .....	85
[그림 III -6] 자동차 수출 비중 .....	86
[그림 III -7] 화학산업의 가치사슬 현황 .....	89
[그림 III -8] 세계 화학시장 규모 .....	90
[그림 III -9] 국내 철강 수요산업 비중 .....	94

[그림 Ⅲ-10] 글로벌 철광석 가격 .....	96
[그림 Ⅲ-11] 글로벌 원료탄 가격 .....	96
[그림 Ⅲ-12] 글로벌 열연 가격 .....	96
[그림 Ⅲ-13] 우리나라 철강재 수출입 동향 .....	96
[그림 Ⅲ-14] 우리나라 철강 수입 추이 .....	97
[그림 Ⅲ-15] 우리나라 철강 수출 추이 .....	97
[그림 Ⅲ-16] 국내 철강 내수 전망 .....	98
[그림 Ⅲ-17] 국내 철강 수출 전망 .....	98
[그림 Ⅲ-18] 국내 철강 생산 전망 .....	98
[그림 Ⅲ-19] 국내 철강 수입 전망 .....	98



# 2024 경제전망Ⅱ

## 생산 부문

---



동향

I

제1장 산업 여건

제2장 통상 여건



## 제1장 산업 여건

### 제1절 대외 여건

#### ▶ 2024년 세계 경제는 어려운 상황 속에 완만한 회복세 전망

- 인플레이션이 둔화하였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유지로 경기부진 연장
- 정치적 리스크가 동반된 지정학적 위기 및 공급망 불안이 지속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 IMF는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인 3.1%, 세계은행은 0.2%p 낮은 2.4%, OECD는 0.4%p 낮은 2.9%로 전망했다. 각 국제 기구는 2024년 경제전망에 대해 각국이 인플레이션의 막바지 안정화를 위해 긴축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 유로존 등의 경기둔화 지속으로 세계 경기 침체의 전환 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금리상승 및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지원 여력 감소로 인해 2.4~3.1%의 경제성장을 예상했다.

IMF는 2024년에 큰 경기 침체도 없고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기에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감소하고 위험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로존은 경기 회복세가 약하고 일본도 엔화 약세로 기존 전망치보다 낮게 수정하였다.<sup>1)</sup> OECD는 지정학적 불안, 서비스 부문의 높은 물가 상승 압력, 통화긴축의 영향이 지속되며 2024년에는 2023년(3.1%)보다 낮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다.<sup>2)</sup> 미국에서는 양호한 성장세가 기대되나 유럽지역에 대해서는 통화 긴축의 지속으로 발생한 수요부진을 미약한 성장세의 원인으로 밝혔다. 세계은행은 다른 기관들보다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낮게 예상했는데 이는 지정학적 긴장,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경기둔화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

김윤희 경제분석관(yunhee.kim@assembly.go.kr, 6788-4679)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kwonil@assembly.go.kr, 6788-4677)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Moderating Inflation and Steady Growth Open Path to Soft Landing」, Jan. 30, 2024.

2)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February 2024: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for Growth」, OECD Publishing, Feb. 5, 2024.

고, 물가 안정에 따라 통화정책이 완화될 수 있지만 2024년을 최근 3년간 경기의 저점('22년:3.0%, '23년:2.6%, '24년:2.4%, '25년:2.7%)으로 예상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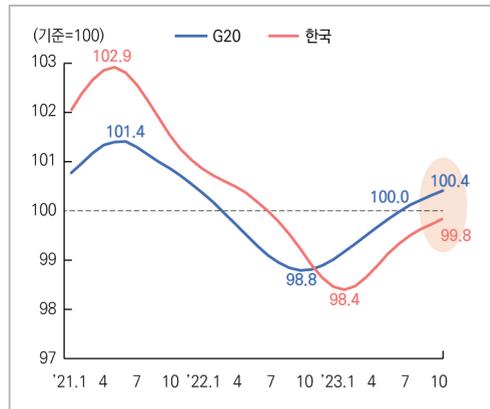
OECD 경기선행지수를 살펴보면 2021년 고점을 나타낸 후 하락한 뒤 반등하고 있지만 더딘 회복세를 보인다. 글로벌 분절화로 인한 세계 교역량 축소, 긴축통화 정책의 지속, 제조업 부진 등의 영향이 크다. OECD의 G20 국가에 대한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6월 101.4p로 최고점을 나타낸 뒤, 2022년 말 98.8로 저점을 나타냈으나 2023년 중반 이후 100을 회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2년 5월 최고점(102.9)을 나타낸 뒤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며 아직 100 선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표 I-1 | 주요 국제기구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주요 기관	2023	2024 <sup>f</sup>	2025 <sup>f</sup>
IMF('24.1월)	3.1	3.1	3.2
(선진국)	1.6	1.8	1.8
(신흥국)	4.1	4.1	4.2
세계은행('24.1월)	2.6	2.4	2.7
(선진국)	1.5	1.2	1.6
(신흥국)	4.0	3.9	4.0
OECD('24.2월)	3.1	2.9	3.0

주: 세계 경제 성장률 산출 시 IMF와 OECD는 PPP (Purchasing -Power-Parity) 환율, 세계은행은 시장환율 적용  
자료: 각 기관

그림 I-1 | OECD 경기선행지수



주: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흐름을 예측, 지수가 100p를 넘으면 경기상승세, 하회하면 경기하락세 예상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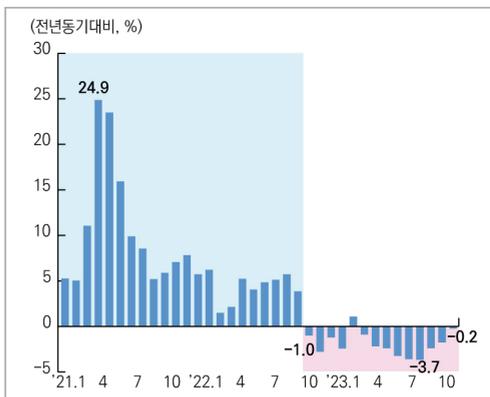
세계 교역량은 2022년 11월 이후 약 1년간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2021년 4월 24.9% 증가로 최고치를 나타낸 이후 2022년 10월까지 평균 8%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의 통화 긴축으로 인한 수입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23년에는 중국의 회복세 약화, 공급망 재편, 자원 무기화 등으로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되었고 고금리

3)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Subdued Growth, Multiple Challenges」, Jan. 9, 2024.

도 장기화되어 세계교역이 부진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22년 4분기에 시작된 상품무역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세계 교역증가량<sup>4)</sup>이 2023년에는 0.8% 증가하고, 2024년에는 불안정한 요소들의 개선으로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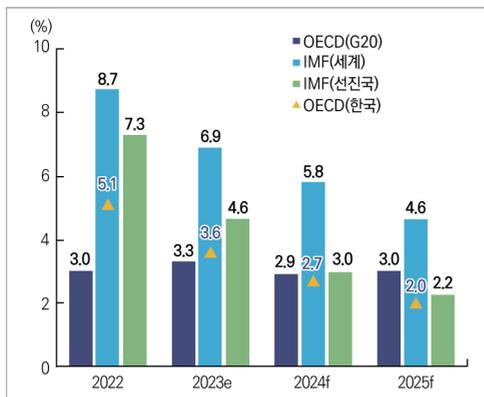
세계 물가 상승률의 경우 상승압력이 2023년에 다소 누그러지긴 하였으나 높아진 물가는 여전히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4년 1월 전망에서 IMF는 2024년 글로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3년에 비해 1.1%p 낮은 5.8%가 될 것을 예상하였고,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2023년 4.6%에서 2024년 3.0%로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OECD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G20 국가는 2023년 3.3%에서 2024년 2.9%로 하락하고, 한국은 2024년 전년대비 0.9%p 하락한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I-2 | 세계 교역량



자료: CPB WORLD TRADE MONITOR

그림 I-3 |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자료: IMF(2024), OECD(2024)

2022년 중순 이후 시작된 주요국들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2022년 1월(0.25%)부터 2023년 8월 까지 11차례 인상되어 현재 5.50%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도 2021년 12월 0.10%이었던 금리를 최근까지 연속적으로 인상하여 5.25%를 유지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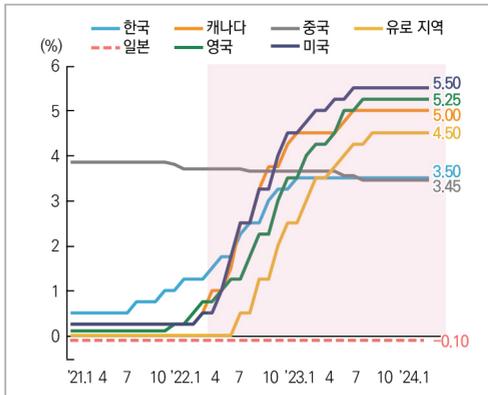
4) 본 보고서의 전망에 전체치 중 세계 교역량 증가율에 대해서는 IMF(3.3%), 세계은행(2.3%), OECD(2.7%) 전망의 평균치인 2.8%를 사용하였다.

5) WTO, 「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 Update」, Switzerland, WTO Publications, Oct. 2023.

다. 유럽중앙은행도 인플레이션 진화를 더욱 염두에 두고 2022년 7월 0.00%에서 2023년 7월 4.50%까지 정책금리를 인상했다. 최근에는 각국의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각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를 기존의 물가안정에서 부채와 경기 리스크 완화를 위한 경제 및 금융 안정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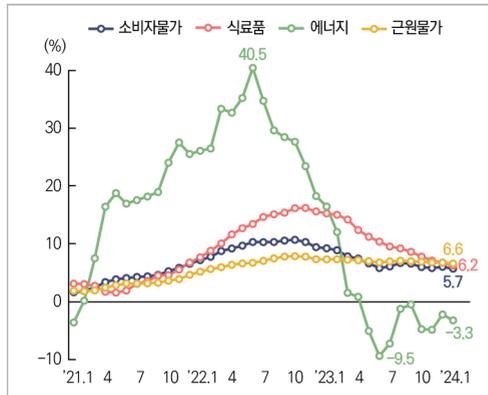
주요국의 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의 영향은 2024년 지속될 전망이다. 정책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2023년 중반 에너지 물가가 내림세로 전환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4년 초 5.7%의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6.2%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6.6%로 소비자물가보다 0.9%p 높게 나타났다.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은 상승하고 고물가로 인한 정부 지원 축소로 투자 지속도 예상된다.

그림 I-4 |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자료: 각국 중앙은행

그림 I-5 | OECD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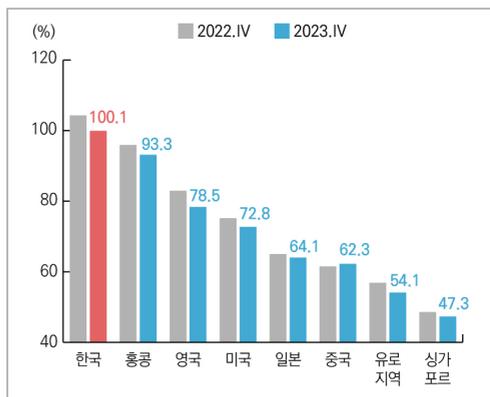
주: OECD 근원물가지수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자료: OECD(2024. 3. 6.)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강세로 나타나며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켰다. 이런 금리상승 추세 및 금리상승 폭은 기업, 정부, 가계의 부채 상황을 어렵게 하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sup>6)</sup>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6) IMF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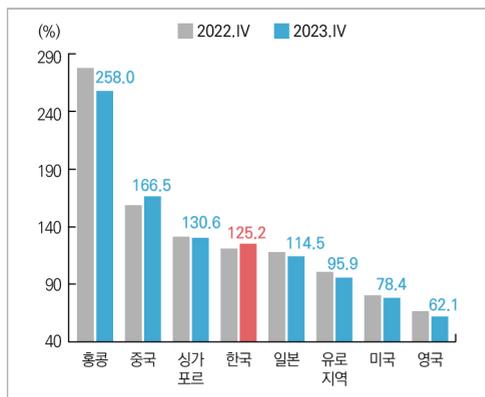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및 기업의 부채비율을 비교해 보면, 2023년 4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100.1%로 조사대상 35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에 가장 높았다. 이러한 상황은 2021년 2분기 이후 2년 반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어 홍콩(93.3%), 영국(78.5%), 미국(72.8%), 일본(64.1%), 중국(62.3%), 유로존(54.1%) 및 싱가포르(47.3%)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도 한국이 상위권이며 국내총생산 규모를 초과하고 중국과 더불어 작년보다 증가했다. 한국 기업부채 비율은 2023년 4분기 기준 125.2%로, 홍콩(258.0%), 중국(166.5%), 싱가포르(130.6%)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이는 2022년 4분기 수치(121.0%)와 비교해 4.2%p 증가한 것이다.

그림 I-6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 국제금융협회(IIF)

그림 I-7 |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자료: 국제금융협회(I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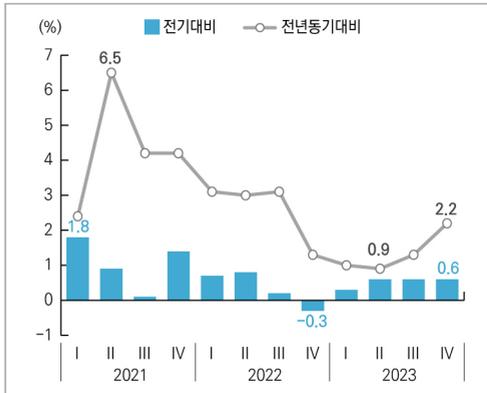
## 제2절 대내 여건

### ▶ 2024년 IT 경기 개선 등으로 설비투자 상승과 수출 증가가 성장을 견인

- 반도체 업황 회복 및 글로벌 교역 증가로 인한 설비투자과 수출 증가는 상방요인
-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비 여력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는 하방요인

2024년 한국 경제는 2.2%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데,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따른 설비투자 상승과 수출 증가가 주된 상승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비 여력 감소와 증가하는 한계차주<sup>7)</sup> 및 부진한 건설투자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는 국내 경제에 하방 요인이다. 경기종합지수 중 선행지수 순환변동치<sup>8)</sup>는 2023년 4월 이후 개선되고 있지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sup>9)</sup>가 2023년 1월 99.3으로 저점을 통과하여 상승세를 보였으나 8월 이후 다시 100을 하회하고 있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 그림 I-8 |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I-9 | 경기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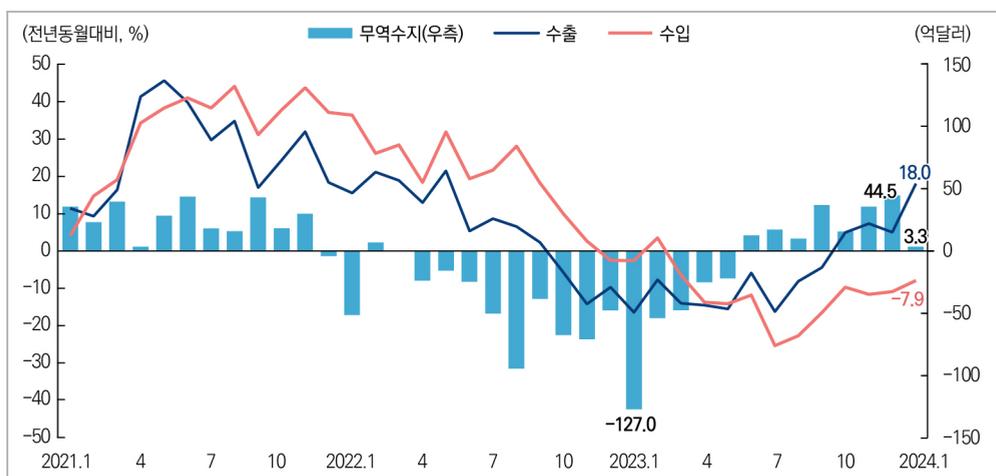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7)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 8)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 9)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 내수출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국내 경제에 영향이 큰 수출은 2024년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sup>10)</sup> 따라 회복세가 예상된다. 2023년 11월 이후 반도체 수출이 개선되면서 국내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12월 45억 달러를 나타내었다. 수출은 2022년 10월 이후 세계 경기둔화로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어 12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회복되어 2024년 1월에는 18%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수입은 같은 기간 에너지 가격과 철광석,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원자재 등의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주요국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수출 회복력이 낮아질 수 있다. 향후 수출여건 변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금리와 국제유가 등이 있다.

그림 I-10 | 우리나라의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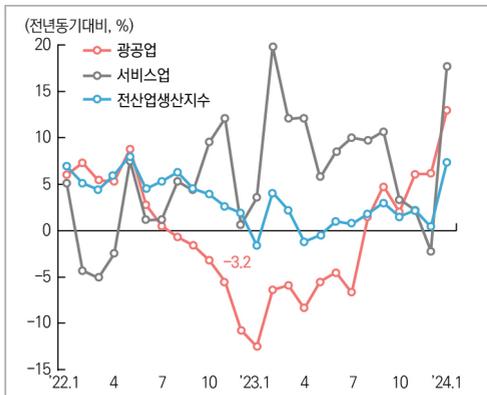
생산부분에 있어서 전산업생산은 2022년 8월 이후 12개월 동안 광공업 생산의 감소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의 견인으로 하락폭이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광공업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IT 수요부진과 고금리 현상으로 인한 세계 경기 위축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2023년 1월(-12.5%) 저점을 찍었고 지속적으로 전년동기대비

10) 2024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에 대해서는 IMF 3.3%, 세계은행 2.3%, OECD 2.7%, WTO 3.3%로 각각 전망하였다.

감소하는 추세를 2023년 7월(-6.7%)까지 보여주었다. 반면 서비스업은 2022년 5월(7.5%) 이후 전년동기대비 증가추세를 18개월 이상 보여주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활성화되며 성장률을 견인하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 목표(2%)보다 높은 3.6%를 나타내었다. 2023년 상반기에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3년 8월에는 다시 3.4%로 반등하였고 현재 월별로 3% 전후의 물가 상승률을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생활물가<sup>11)</sup>의 상승률은 2024년 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3.7%로서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1%보다 높다.<sup>12)</sup> 고금리, 고물가와 경기둔화가 겹치면서 소비자심리지수는 2023년 5월까지 100 이하의 비관적 소비 심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상승 전환하여 기준선인 100을 회복하였고 2024년 2월에는 101.9를 보여주었다.

| 그림 I-11 |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 그림 I-12 | 소비자물가 및 소비자심리지수



주: 소비자심리지수는 100 이상이면 낙관적 소비 심리, 100 이하면 비관적 소비 심리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11) 생활물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생활물가지수이며,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수로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중 구매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의 가격으로 산출한다.

12)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8년: 1.5 → '19년: 0.4 → '20년: 0.5 → '21년: 2.5 → '22년: 5.1 → '23년: 3.6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18년: 1.6 → '19년: 0.2 → '20년: 0.4 → '21년: 3.2 → '22년: 6.0 → '23년: 3.9

## 제2장 통상 여건

### 제1절 그린무역장벽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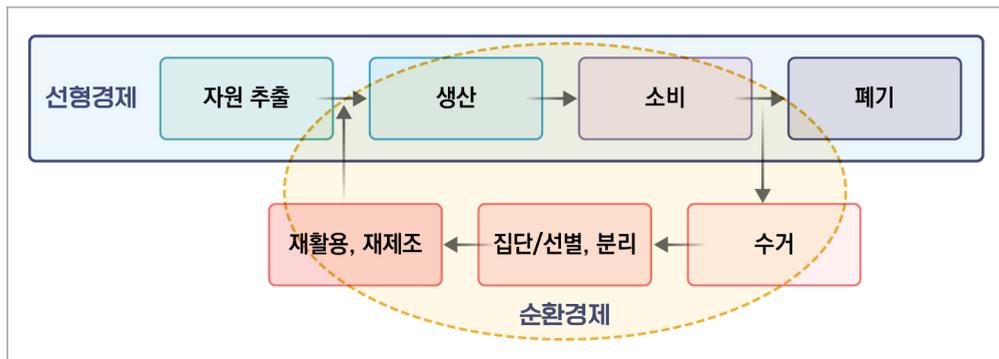
▶ 2024년은 글로벌 기업의 제품생산 및 경영정보 공시에 친환경화가 본격화

- 유럽과 미국은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도입을 구체화
- 글로벌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한 ESG 경영공시 의무화 시작

#### 가. 순환경제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으로 산업 지형이 변형되고 있다. 산업부문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은 운송<sup>13)</sup> 및 인프라 산업<sup>14)</sup>의 변화를 초래했으며 소재-부품산업<sup>15)</sup>의 친환경화를 유도하고 있다. 순환경제는 제품 생애를 자원 추출, 생산, 소비,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 관점에서 보는 대신 수거, 집단/선별 및 분리, 재활용 및 재제조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순환구조로 가정한다.

| 그림 I-13 | 선형경제와 순환경제 개념



김윤희 경제분석관(yunhee.kim@assembly.go.kr, 6788-4679)

13) 해운(조선), 육운(자동차, 기차), 항공(항공)

14) 전력,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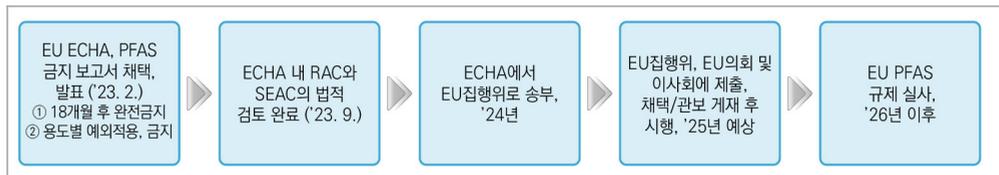
15) 이차전지, 1차 금속, 정유, 석유화학(플라스틱)

순환경제 패러다임은 자원고갈, 폐기물 관리,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기업에는 저렴하고 효율성이 있는 기존 제품을 같은 성능을 유지한 재생 제품으로 제조해야 하는 과제를 준다. 그럼에도 자연 고갈, 환경오염 등에 대해 지속가능한 전 지구적 대응으로서 UN이나 OECD를 중심으로 국제협약 결의안 채택<sup>16)</sup>과 모니터링<sup>17)</sup>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EU는 2020년에 「순환 경제 행동계획」<sup>18)</sup>을 수립하였고 역내에는 2021년 플라스틱세<sup>19)</sup>를 도입했다. 역외에 대해서도 2023년 2월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은 총 10,000종 이상의 PFAS<sup>20)</sup> 사용을 2026년부터 금지하는 보고서를 채택하여 발표하였다.<sup>21)</sup> PFAS 규제는 대체물질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국내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sup>22)</sup>

2023년 9월 ECHA의 ‘위해성평가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RAC)’와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Socio-Economic Analysis Committee, SEAC)’는 법적 검토를 끝냈고, EU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서를 수정·보완하여 2024년 내 EU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출된 수정안이 EU 의회와 이사회에 2025년에 채택되면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이후 실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림 I-14 | EU PFAS 규제 적용 로드맵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6) UN, 「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2022.  
 17) OECD, 「Towards Eliminating Plastic Pollution by 2040: Policy Scenario Analysis, Turnover」, 2023.  
 18) EU Commission, A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2020. 3. [https://environment.ec.europa.eu/strategy/circular-economy-action-plan\\_en](https://environment.ec.europa.eu/strategy/circular-economy-action-plan_en)  
 19)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 1kg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한다.  
 20)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s)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화학물질’로 불리며 1940년대 개발된 이후 의류 코팅, 카펫, 조리기구, 일회용품 제조 등에 활용된다.  
 21) 용도에 따라 18개월 전환 기간 부여 또는 5년(대체물질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용 기계)에서 12년(의료품 등 대안이 없거나 개발에 장기 소요 제품)의 유예기간 후 완전 금지하는 2안이 검토 중이다.  
 22) ‘유럽연합(EU), 과불화화합물 전면 규제 움직임 산업부, 유럽연합(EU) 측에 우려와 요구사항 전달,’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 9. 26.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도 2021년 10월 PFAS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2021-2024 PFAS 전략 로드맵」을 발표하였다.<sup>23)</sup> 미국은 이미 2011년에 PFAS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취급하거나 수입,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은 EPA에 PFAS 화학적 특성, 사용 범위,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안하였다.<sup>24)</sup>

2024년 1월 8일, EPA는 수년간 제조 또는 사용되지 않은 329개의 PFAS에 대해 EPA의 검토와 위험 판정 결과를 받은 후 기업이 다시 제조 및 사용을 할 수 있는 규칙을 확정했다.<sup>25)</sup> 이에 따라 기업이 329개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면 먼저 EPA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PFAS의 사용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주는지에 대해 2016년 개정된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TSCA)」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며, PFAS의 새로운 사용은 2023년 6월에 발표된 EPA의 새로운 사용 평가 기준에 따라야 한다.<sup>26)</sup>

이처럼 EU와 미국에서 PFAS에 대한 규제가 활발히 검토되고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에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은 내수 제품생산 및 수입자에만 적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표 업종인 자동차와 반도체업 등에서 제조 공정 및 제품생산에 PFAS를 사용하고 있다.<sup>27)</sup> EU와 미국에 진출하거나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PFAS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면, 3M의 사태<sup>28)</sup>와 같이 합의금을 물게 되는 등 막심한 피해가 예상된다.

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10/18/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launches-plan-to-combat-pfas-pollution/>

24) <https://www.epa.gov/newsreleases/epa-finalizes-rule-require-reporting-pfas-data-better-protect-communities-forever>

25) <https://www.epa.gov/newsreleases/biden-harris-administration-finalizes-rule-prevent-inactive-pfas-reentering-commerce>

26) <https://www.epa.gov/newsreleases/epa-announces-new-framework-prevent-unsafe-new-pfas-entering-market>

27) 자동차업은 자동차 제조 전 과정에서 주요 부품, 반도체업은 식각공정의 냉매, 화학증착 공정의 반응기 세정제, 윤활제 등, 배터리업은 주력 제품인 '리튬 이온 배터리'에 PFAS를 사용 중이다.

28) 미국 3M사는 자사 제품에 포함된 PFAS가 미국 상수도 등 수질을 오염시켰다며 플로리다주에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하여 총 103억달러(약 13조3700억원)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2023. 6. 22).

## 나. ESG 공시 의무화

세계 3대 ESG 정보공시 기준은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재단<sup>29)</sup>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sup>30)</sup> 공시기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기후공시 의무화 법안 내 기준, 유럽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의 유럽지속가능성 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이 있다.

2023년 6월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의 ISSB가 ESG 공시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6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상장사들의 ESG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sup>31)</sup> 영국은 2024년 상반기에 ISSB에 기반한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표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호주는 2024년 7월까지 대기업을 위한 ISSB 기반 보고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본도 ISSB에 기반한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표준이 2025년에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제외(독자적인 기후공시 의무화 기준 마련)한 각 나라에서 ISSB 기준의 보고가 정착되면, 전 세계는 ESG 공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그만큼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평가가 객관화되고 의무화, 표준화, 연계성이 강조되며 상장 기업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표 I-2 | 국가별 ISSB 공시기준 도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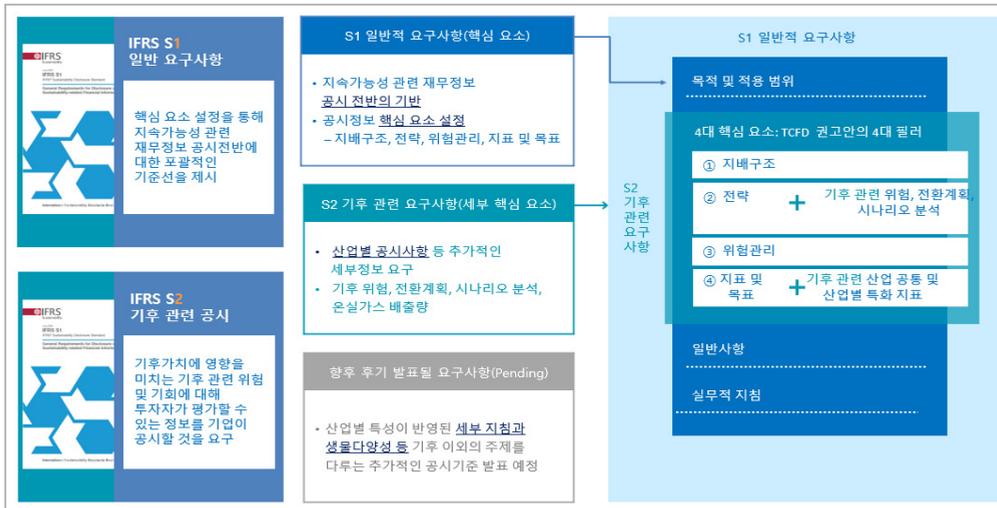
국가	TCFD의무화	ISSB 지지여부	ISSB 기준 도입 예상	ISSB기반 자국기준 제정 현황
영국	의무	지지	2024	초안발표
캐나다	예정	지지	-	초안준비
뉴질랜드	의무	지지	2023	적용중
미국	예정	반대	-	-
EU	의무	지지	2023	적용중
한국	자발적	지지	2026	초안준비
일본	의무	지지	2025	초안준비

주: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s Disclosures, TCFD: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이며 2017년 기후공시 기준 마련, 2024년부터 관련 업무를 IFRS에 이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9) 기업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의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기준이다.  
30)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COP 26 이후 자본시장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될 지속가능성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31) 금융위원회,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 2. 14.

ISSB가 2022년 3월에 발표한 IFRS는 S1과 S2로 구성되어 있다. IFRS S1은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공시를 위한 일반원칙 등 일반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IFRS S2의 기후 관련 공시사항은 TCFD<sup>32)</sup> 권고안의 4대 필러(Pillar)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IFRS S2에서는 단기·중기·장기에 걸친 기후 시나리오 분석과 재무영향분석, 기후 회복력에 대한 공시가 포함된다. 또한 산업 전반에 관한 7개<sup>33)</sup> 지표와 산업특정지표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의 기타 간접배출인 Scope 3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의무 공시사항이다. 다만,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초 적용시 1년간 공시가 유예된다.

그림 I-15 | ISSB 구성요소 및 특징



자료: IF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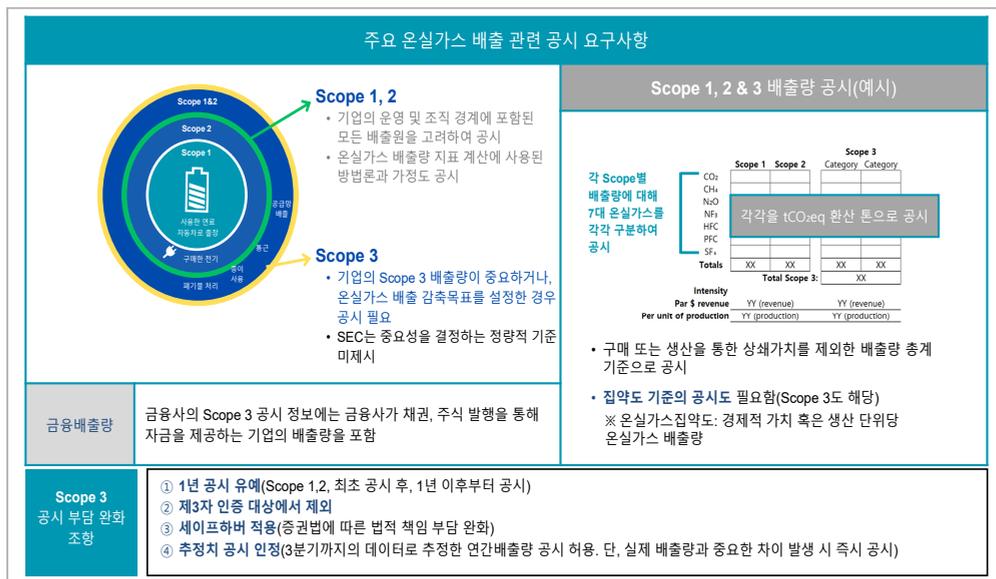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 독자적인 기후관련 공시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2022년 3월에 제출했다. ISSB 공시기준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를 정보 이용자로 특정하고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당 법안은 TCFD의 권고안을 기초로 고안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에 대한 일반공시,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무제표 영향분석, 적용방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온실

32)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33) 온실가스 배출량,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기회, 자본배치, 내부 탄소 가격, 보상

가스 배출량은 Scope 1, 2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Scope 3은 중요성에 따라 공시를 결정한다. 다만, SEC 기후법안은 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GHG(Greenhouse Gas) 프로토콜에 따라 산정하도록 요구하는 ISSB 공시기준과 차이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Scope 1, 2는 제3자를 통한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국내외 기업에 적용된다.

| 그림 I-16 | 미국 SEC 기후법안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 공시 요구사항



자료: S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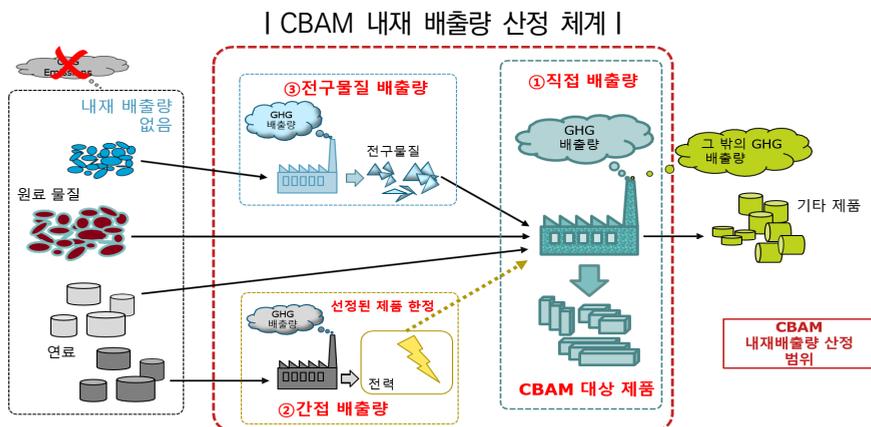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ESRS(유럽지속가능성 보고기준)는 EU(유럽연합)가 2050년까지의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발효된 CSRD(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의 일환으로서 유럽위원회의 EFRAG(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가 제정하여 2024년 11월부터의 적용되는 유럽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을 말한다. ESRS 공시기준은 2개의 공통기준과 환경(5개), 사회(4개), 거버넌스(1개) 관련 10개의 주제 등 총 12개 기준서로 구성된 가장 포괄적인 기업 경영공시 기준이다.<sup>34)</sup>

34) 해당 공시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① 2년 연속 순매출 0.4억 유로 초과, ② 자산 0.2억 유로 초과, ③ 종업원수 250명 초과 중 2개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현재 유럽 내에서만 약 50,000개 기업이 해당될 만큼 적용 범위가 넓다. 국내 기업은 EU 내 자회사가 영업하거나, Non-EU에 모회사가 소재한 경우라도 2년 연속 EU 내 전체 기준 순매출액이 1.5억 유로 초과였으면 적용되어, 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더라도 2028년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받을 수 있다.

[BOX 1]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2024년 정부 지원 현황

□ EU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는 탄소무역장벽제도<sup>35)</sup> 관련 지원 사업 운영<sup>36)</sup>

- CBAM 대응 행정절차, 제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관련 기업 통합지원
  -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CBAM 입법 진행 상황, 제도 개요 및 운영 절차를 상시 안내하고 CBAM 적용 대상 품목<sup>37)</sup> 및 해당 기업을 확인
- CBAM 대응 행정절차 및 배출량 MRV 중심으로 대상기업 통합지원
  - MRV<sup>38)</sup>를 지원하기 위해 CBAM 배출량 산정 및 검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EU에 제출할 배출량 산정 방법 설명 및 MRV 교육·컨설팅
  - 한국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 검증기관의 EU CBAM 검증 수행 가능 체계<sup>39)</sup>를 지원하여 EU CBAM에서 인증되도록 협상 진행<sup>40)</sup>



자료: 환경부, 2024년 예산사업(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지원) 설명서

35)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EU와 동일한 탄소배출 규제를 적용하고 그 차이를 수입 가격에 반영하는 탄소세의 일종, 2023년 10월부터 시범운영 후 2026년부터 의무화되는 제도이다,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중기 경제전망 II: 산업」, I.2. 제3절 주요국의 그린전환 정책, 2023. 9. 25. 30~31쪽.

36) 2024년 환경부 예산은 12.5억 원 규모이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및 이행기반 구축 관련해서 202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2.5억원 규모의 CBAM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37) 현재 6대 산업(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대상이나 2030년까지 EU 배출권거래제도 대상 산업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38) 측정·보고·검증: Measuring, Reporting, Verifying(MRV)

39) CBAM 이행 및 위임법을 기반 산정 방법 모니터링, 내재배출량 산정 및 검증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다.

40)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인정협력기구(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IAF)와 온실가스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MLA)을 지난 '22년 1월에 체결, 이후 CBAM MLA 신설을 제안할 방안을 추진하며, 유럽 등 주요 지역 기구별 협력회의 개최 및 IAF CBAM 대응 전담 상설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제 운영 규정을 개발하려고 한다.

## 제2절 공급망 불안정성

- ▶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구체화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지속
- ▶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물류 장애에 대한 대응 필요

### 가. 체계화되는 자국우선주의

가속화되고 있는 탈세계화 추세 속에 공급망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국들의 자국우선주의가 보다 구체화 되면서 정책이나 규제의 형태로 글로벌 공급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조치나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그 대표적이 사례들이다. 주요국들은 이러한 정책과 규제를 통하여 우려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탈피, 자국 산업 생태계 보호, 자국으로 산업시설 투자 유치 등을 꾀하고 있다. 더욱이 산업에서의 수요가 높은 부존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은 자원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자원을 무기화할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석탄이나 구리와 같은 주요 광물 수출 중단조치나, 멕시코의 리튬 국유화 등이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러한 공급망 불안정성은 제조업과 그 생산물의 대외무역이 경제적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 있어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국내 기업의 공급망 위기인식과 대응현황’<sup>41)</sup>에 대한 설문에 따르면 이러한 공급망 위협이 우리 기업들에게 실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문 응답기업의 69.0%가 공급망 문제를 경험하였으며 이 중 85.8%가 공급망 전략에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을 하였거나 계획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한 규제와 정책 시행은 개별 기업들의 경영전략이 아닌 국가 단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각 위협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김용균 경제분석관(kimyk0909@assembly.go.kr, 6788-4791)

41) 한국무역협회, Trade Brief no.01, 2024.1.9.

## 나. 물류 리스크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에 대한 반응으로 예멘 후티 반군이 미군 및 미국 상선을 공격하면서 홍해 일대에 물류 교란이 발생하였다. 팬데믹이 종식 국면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물류에 대한 장애가 해소되고 있었으나 중동지역의 분쟁 발생으로 인하여 공급망에 대한 위협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 그림 I-17 |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



주: 평균으로부터의 표준편차를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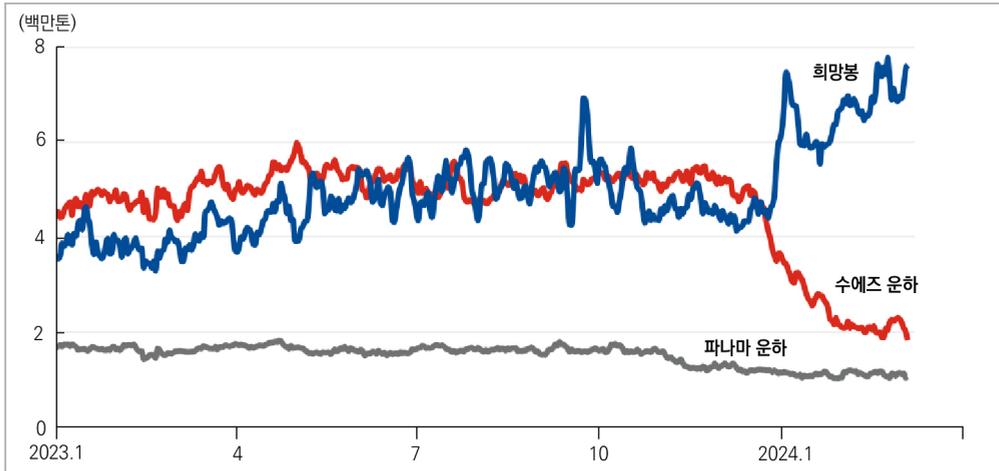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홍해 지역의 수에즈 운하는 세계 물동량의 약 12%(컨테이너 물동량의 32%)를 소화하고 있는데,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하여 일일 통행량이 2023년 10월 평균 77척에 비하여 2024년 2월 평균 38척으로 50.1% 감소하였다. 더불어 세계 물동량의 약 5%(화물선 물동량의 40%)를 소화하며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sup>42)</sup>마저 극심한 가뭄으로 2023년 10월에 비하여 2024년 2월 통행량이 43.8% 감소하였다.<sup>43)</sup> 전세계의 물동량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양대 운하의 운항 차질은 해상운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42) KOTRA, '글로벌 해운·물류 차질 관련 필리핀 동향', 2023.12.28.

43) 한국무역협회, Trade Brief no.02, 2024.2.28.

| 그림 I-18 | 글로벌 일일 물동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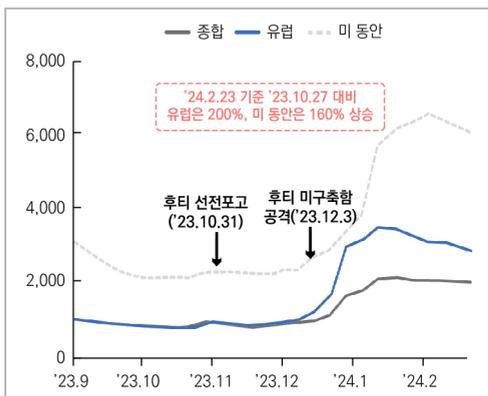


주: 7일 이동평균

자료: IMF<sup>44)</sup>

홍해의 물류 장애로 인하여 유럽으로의 운항 일이 기존 대비 12일에서 14 일가량 늘어나고,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KCCI)가 2023년 10월 평균 대비 2024년 2월 말 250.1% 상승하며 물류비용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으로의 수출 물량의 80%가량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지연과 비용증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유럽에 대한 경쟁국 대비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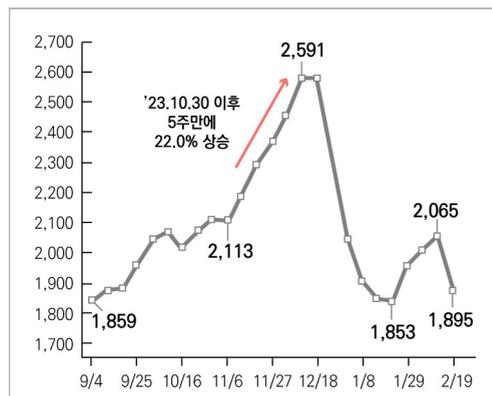
| 그림 I-19 | 해상운임 지수



자료: 연합인포맥스

(Shanghai Shipping Exchange)

| 그림 I-20 | 항공운임 지수



자료: Baltic Exchange

44) IMF, 'Red Sea Attacks Disrupt Global Trade', 2024.3.7.

정책과 규제뿐 아니라 물리적으로 공급망이 교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원활한 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의 수출입, 최종재의 수출 등을 위하여 공급망의 안정화는 우리 경제에 있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실현되지 않은 위협이 아닌 실제로 공급망과 물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장애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하여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제3절 원자재 수급 동향

### ▶ 2024년 원자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 전망

- 다만, 비철금속 가격은 중국의 수요 회복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완만한 상승세

원자재 가격은 2023년 하반기 동안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에너지의 경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이상기후와 전쟁 등으로 일부 생산 및 수송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원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인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세계 경기 둔화, 동절기 온화한 기온,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 안정세를 보였다. 비철금속도 중국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세계 공급과잉과 재고 증가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곡물의 경우 쌀을 제외하고 주요 수출국의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러시아의 수출이 견조세를 유지하며 양호한 재고 수준을 보이는 데 반해 세계 곡물 수요는 부진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하방요인들이 2024년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비철금속 가격은 중국의 수요 회복과 재생에너지 전환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가. 에너지

국제 유가는 세계 경기 둔화로 2023년 2분기 배럴당 77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OPEC+의 감산 추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한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2023년 3분기 배럴당 8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국제 유가는 미국의 원유생산 호조와 기준금리 동결,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2023년 12월 배럴당 76달러까지 다시 하락하였다. 그러나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지속과 미국의 원유생산 차질,<sup>45)</sup> 러시아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에 따른 생산시설 피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2024년 2월 배럴당 81달러로 상승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OPEC+ 감산 연장, 러시아의 휘발유 수출 중단(3~8월)<sup>46)</sup>, 중동 불안 등으로 2024년 상반기에 상승할 것으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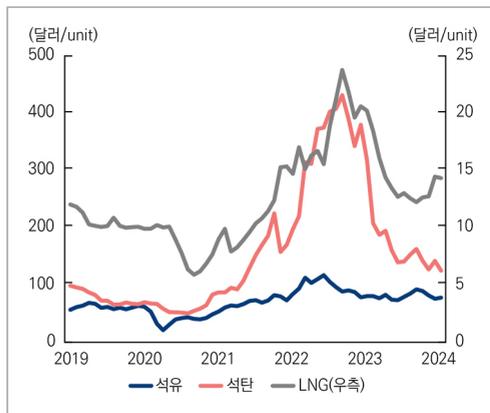
조은영 경제분석관(dolkongs@assembly.go.kr, 6788-4676)

45) 미국 원유 생산의 10%를 차지하는 노스 다코타 지역에서 기록적 한파로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었다.

망되나 수요보다 공급이 증가할 경우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참고로, IMF(2024.1.)는 2024년과 2025년 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각각 79.1달러, 75.3달러로 전망하였다.<sup>47)</sup>

천연가스 인덱스 지수(2010=100)는 조기비축에 따른 충분한 재고량, 동절기 온화한 기온, 수요 감소 및 발전원 대체, 중국의 수요부진 등으로 2023년 2분기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3년 10월 발생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발틱 해저배관 손상에 따른 가동 중단 등으로 수급 불안이 고조되면서 천연가스 인덱스 지수는 2023년 2분기 89.3에서 4분기 106.5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의 대체재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2023년 4분기 MMbtu당 20.7달러에서 3분기 12.6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4분기에는 13.3달러로 올랐다. 또 다른 대체재인 석탄은 재생에너지 생산 및 천연가스 수요 확대로 가격이 2023년 2분기 미터톤(천kg)당 164.7달러에서 4분기에 136.9달러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 I-21 | 에너지 가격 추이



주: 유가(배럴)는 두바이유, WTI, 브렌트유 평균치, 석탄(mt)은 호주시장 기준, LNG(MMbtu)는 일본 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 표 I-3 | 에너지 가격 동향

(단위: 달러/unit, %)

	2022	2023				전기 대비 증감률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석유	85.3	79.0	76.6	85.3	82.1	-3.8
석탄	3704	237.6	164.7	151.9	136.9	-9.9
LNG	20.7	18.2	13.5	12.6	13.3	5.4

주: 유가(배럴)는 두바이유, WTI, 브렌트유 평균치, 석탄(mt)은 호주시장 기준, LNG(MMbtu)는 일본 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46) 러시아는 증가하는 내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휘발유 수출을 3월부터 6개월간 중단할 예정이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russia-bans-gasoline-exports-6-months-march-1-2024-02-27/>, 접속: 2024.3.9.>

47)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4.1.30, p.6.

## 나. 비철금속

알루미늄 가격은 글로벌 경기 둔화, 유럽지역의 수요 감소, 주요국의 긴축 정책에 따른 산업용 금속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 중국의 부동산시장 위기와 경제 불안,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sup>48)</sup>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2023년 1분기 톤당 2,405달러에서 3분기 2,160달러까지 하락하였다. 다만, 향후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부양 등으로 수요가 다소 회복되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2024년 4분기에 톤당 2,400달러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구리 가격은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코로나 이후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로 2022년 4분기 톤당 8,025달러에서 2023년 1분기 8,944달러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중국 경기회복이 기대에 못 미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위기와 달러 강세로 구리 가격은 2023년 4분기 톤당 8,176달러로 하락하였다. 다만, 향후 구리 가격은 구리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부양에 힘입어 2024년 4분기에 톤당 약 9,000달러로 상승할 전망이다.<sup>49)</sup>

스테인레스 스틸, 전지 및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니켈은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중국 스테인리스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재고가 늘면서 2023년 4분기에 톤당 17,256달러로 1분기 대비 33.8% 하락하였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니켈 가격은 2024년 2분기에 톤당 16,011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니켈 가격은 중국 수요의 회복, 에너지 전환 가속, 공급 축소<sup>50)</sup>로 2024년 4분기에 톤당 16,880달러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sup>5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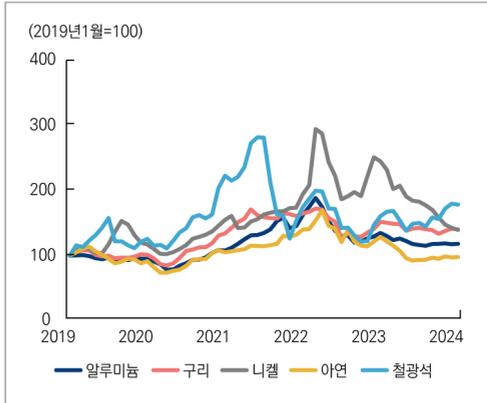
48) 알루미늄 생산량 상위 5개국은 중국(57%), 인도(5%), 러시아(5%), 캐나다(5%), 아랍에미리트(4%)로,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남해주, “인도의 알루미늄 생산과 가격 상승,” KOTRA 해외시장 뉴스, 2022. 6)

49) 오정석·황유선,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Monthly Report, 국제금융센터, 2024.3.

50) 인도네시아가 낮은 품질의 니켈 생산을 늘리면서 국제 니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니켈 광산의 절반 이상이 수익성 악화로 폐쇄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현상은 향후 인도네시아산 니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Bloomberg)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24%(2,100만 톤)를 보유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2022년 80만톤으로 2025년까지 세 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G20 한중일 전기차 전초전, 현대차 ‘일본차 텃밭’ 뒤집는다,” 비즈니스리포트, 2022.10.13.)

51)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가격예측, <<https://www.komis.or.kr/komis/price/moIndex/mineralMOI/marketOutLookIndex.do>, 접속: 2024.3.10.>

| 그림 I-22 | 비철금속 가격지수 추이



자료: 세계은행

| 표 I-4 | 비철금속 가격 동향

(단위: 달러/ton, %)

	2022		2023			전기 대비 증감률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알루미늄	2,336	2,405	2,266	2,160	2,192	1.5
구리	8,025	8,944	8,474	8,368	8,176	-2.3
니켈	25,514	26,070	22,366	20,392	17,256	-15.4
아연	3,012	3,137	2,540	2,436	2,498	2.6
철광석	99	126	112	115	129	12.0

자료: 세계은행

#### 다. 곡물

소맥<sup>52)</sup>의 경우 중국의 수입 확대 및 쏬커버링<sup>53)</sup> 매수세, 우크라이나 수출 중단 소식 등으로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미국의 수확 진행, 러시아 수출의 견조세 유지, 양호한 재고 수준과 수요부진 등으로 2023년 1분기 톤당 382달러에서 4분기에 291달러로 하락하였다. 향후 소맥 가격은 흑해 산 소맥의 원활한 공급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밀 수확 개시로 2024년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유지될 전망이다.<sup>54)</sup>

옥수수<sup>55)</sup>의 경우 미국과 남미의 기상여건 개선에 따른 수확 호조와 전반적인 수요부진, 금융자금 이탈 등으로 가격이 2023년 1분기 톤당 294달러에 4분기 216달러로 하락하였다. 향후 옥수수 가격은 미국의 옥수수 파종면적 감소에도 재고량이 충분하고, 남미의 기상여건이 양호한 관계로 전반적으로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52) 소맥 생산량은 3개년 평균 기준 7억 7,163만톤이고, 주요 생산국은 EU(17.6%), 중국(17.5%), 인도(13.6%), 러시아(10.2%), 미국(6.3%), 캐나다(4.3%), 호주(3.9%), 우크라이나(3.4%) 등의 순이다. 수출량은 1억 9,874만톤이고 수출국은 러시아(18.5%), EU(16.4%), 캐나다(12.5%), 미국(12.3%), 호주(10.1%), 우크라이나(8.8%) 등의 순이다. 수입국은 중국(4.1%), 브라질(3.4%), EU(3.2%), 일본(2.9%), 한국(2.1%) 등의 순이다.

53) 매도 포지션을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하는 환매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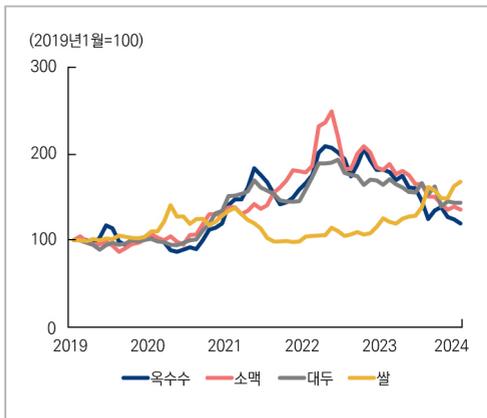
54) “1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 전 분기 대비 4.5% 하락전망.” 「국제곡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3.

55) 옥수수 생산량은 3개년 평균 기준 11억 5,003만톤이고, 주요 생산국은 미국(31.0%), 중국(23.0%), 브라질(9.2%), EU(5.9%), 아르헨티나(4.5%)의 순이다. 수출량은 1억 8,159만톤이고 수출국은 미국(28.8%), 브라질(22.0%), 아르헨티나(19.6%), 우크라이나(14.8%) 등의 순이다. 수입국은 EU(11.6%), 멕시코(9.6%), 중국(9.1%), 일본(8.8%), 한국(6.5%) 등의 순이다.

대두<sup>56)</sup> 가격은 브라질과 미국의 기상여건에 따라 등락을 보였으나 수확 호조에 비해 수요가 부진하면서 2023년 1분기 톤당 635달러에서 4분기 543달러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향후 수요부진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대두 가격은 하향세를 보일 전망이다.<sup>57)</sup>

쌀<sup>58)</sup>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안 곡물로 쌀의 수요 증가, 이상기후로 인한 미국·태국·이탈리아·중국 등의 쌀 생산 부진, 국내 쌀 가격 급등과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에 따른 인도의 비바스마티(non Basmati) 백미수출금지<sup>59)</sup> 등으로 2023년 1분기 톤당 472달러에서 4분기 593달러로 상승하였다. 향후 쌀 가격은 수확기의 도래에 따른 공급 증가, 미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뭄 해소에 따른 생산량 증가 및 수출 회복으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sup>60)</sup>

| 그림 I-23 | 농산물지수 추이



자료: 세계은행

| 표 I-5 | 농산물 가격 동향

(단위: 달러/ton, %)

	2022		2023			전기 대비 증감률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옥수수	322	294	275	225	216	-3.8
소맥	416	382	364	325	291	-10.6
대두	640	635	601	612	543	-11.3
쌀	425	472	490	590	593	0.5

자료: 세계은행

56) 대두 생산량은 3개년 평균 기준 3억 6,230만톤이고, 주요 생산국은 브라질(35.9%), 미국(32.3%), 아르헨티나(12.8%), 중국(5.0%), 인도(3.1%)의 순이다. 수출량은 1억 5,989만톤이고 수출국은 브라질(51.7%)과 미국(33.5%)이다. 수입국은 중국(59.9%), EU(8.9%), 멕시코(3.7%) 등의 순이다.

57) “1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 전 분기 대비 4.5% 하락전망,” 「국제곡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3.

58) 세계 쌀 생산량은 3개 평년 기준으로 약 5억 821만톤이고, 주요 생산국은 중국(29.1%), 인도(24.4%), 베트남(5.5%), 태국(3.9%), 미얀마(2.5%) 등의 순이다. 수출량은 5,153만톤으로 인도(34.3%), 태국(13.9%), 베트남(12.9%), 중국(7.0%), 미국(5.5%) 등의 순이다. 수입국은 중국(9.6%), EU(4.5%), 베트남(2.7%), 미국(2.4%) 등의 순이다.

59) 인도의 쌀 수출량은 3년 평균 1,776만톤으로 전년 평균(2,200만톤) 대비 23.9% 감소하였다. 무역량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디카 백미가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60) “1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 전 분기 대비 4.5% 하락전망,” 「국제곡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3.



# 2024 경제전망Ⅱ

## 생산 부문

---



# 전망

# II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2장 제조업

제3장 서비스업

제4장 건설업

제5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국민계정에서 생산 GDP는 총부가가치와 순생산물세<sup>61)</sup>로 구성되고, 총부가가치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농림어업, 광업으로 구성된다. 단, 농림어업, 광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생산활동에 비해 절대적으로 작아 본 보고서에서는 기타로 통합하여 전망하였다.

2024년 실질 GDP 수정 전망(2.2%)은 이전 전망<sup>62)</sup>(2.0%) 대비 0.2%p 상향 조정되었다.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최근 반도체 수출 회복에 따른 큰 폭의 수출 증가, 2023년 8월 이후 가동률 증가세 전환, 최근 생산과 출하의 증가, 재고의 감소 등 긍정적 산업활동을 반영해 증기 전망(2.2%) 대비 1.5%p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2023년에 대한 기저효과와 세계 교역량 회복에 따른 통관수출 전망치 상향, 글로벌 반도체에수요 회복과 가격 인상 등도 반영하였다.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대출잔액의 증가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소득의 감소 등 하방 요인을 고려해 증기 전망(2.0%)보다 0.2%p 하향 조정하였다.

건설업 부가가치는 건설업 부문의 건축허가면적 대비 건축 착공 면적 감소 추세 및 금융 리스크와 같은 하방압력을 고려하여 최근의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을 반영하여 증기 전망(1.5%) 대비 3.6%p 하향 조정하였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가가치는 원유·가스 등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성 완화와 석유화학업과 IT업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활동이 회복되며 에너지 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증기 전망(0.7%) 대비 4.0%p 상향 조정하였다. 단, 2024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하방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kwonil@assembly.go.kr, 6788-4677)

61) 순생산물세는 생산물세에서 생산물보조금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생산물세에는 재화의 수입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등에 부과되는 수입세 및 관세가 포함된다. 즉, 생산물세는 부가가치세, 수입세, 수출세, 기타생산물세로 구분할 수 있다.

62)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3.10.

총부가가치는 제조업의 상향 조정과 서비스업의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중기 전망(2.0%) 대비 0.2%p 상향 조정되었고, 순생산물세는 제도변경 효과 등을 고려해 1.0%p 하향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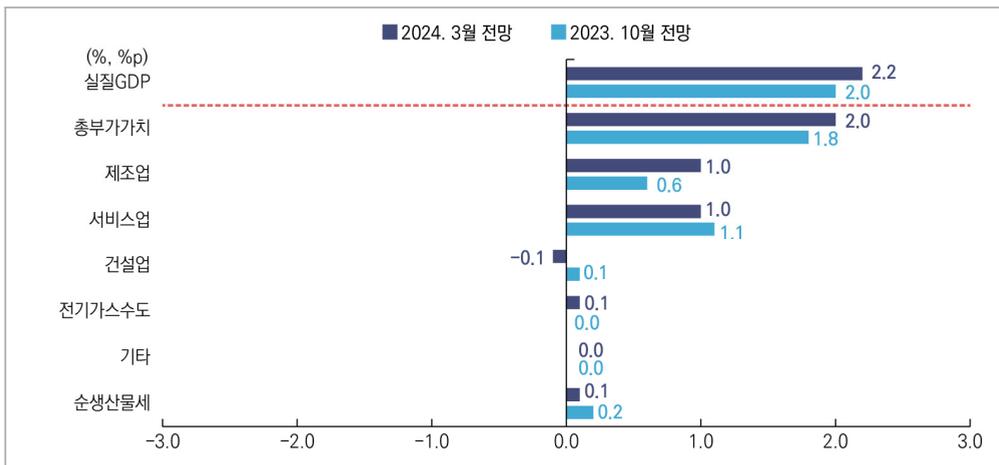
표 II-1 | 2024년 전망의 부문별 비교

(단위: %, %p)

	23.10월 전망(A)	24.3월 전망(B)	차이(B-A)
실질 국내총생산(GDP)	2.0	2.2	0.2
총부가가치	2.0	2.2	0.2
제조업	2.2	3.7	1.5
서비스업	2.0	1.8	-0.2
건설업	1.5	-2.1	-3.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7	4.7	4.0
기타	1.0	2.6	1.6
순생산물세	2.6	1.6	-1.0

2024년 실질GDP 전망치 2.2%에 대한 성장기여도(%p)는 총부가가치 2.0, 순생산물세 0.1로 분석된다. 생산 부문별 성장기여도(%p)는 제조업 1.0, 서비스업 1.0, 건설업 -0.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1, 기타 0.0 등이다.

그림 II-1 | 2024년 전망의 성장기여도 비교



### ▶ 2024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3.7%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sup>f</sup>	하반기 <sup>f</sup>	연간 <sup>f</sup>
1.5	-2.0	4.0	1.0	5.0	2.6	3.7

###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교역 회복과 수출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글로벌 수요부진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 기조 가운데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에 따른 대중국 수출 회복 지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BM 등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회복과 가격 인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에 따른 소비 하락</li> </ul>

2024년 실질 GDP 수정 전망(2.2%)은 이전 전망(2.0%)<sup>63)</sup> 대비 0.2%p 상향 조정하였다. 제조업 부가가치는 최근 반도체 수출 회복에 따라 생산과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산업활동을 반영해 이전 전망(2.2%) 대비 1.5%p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2023년에 대한 기저효과와 세계 교역량 회복에 따른 통관수출 전망치 상향,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및 가격 인상 등도 반영하였다. 다만 대중국 수출 회복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었으나, 대미국 수출액 대비 대중국 수출액의 비율은 2022년 1.70배에서 2023년 1.42배로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sup>64)</sup>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kwonil@assembly.go.kr, 6788-4677)

63)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3.10.

64) 대중국 수출(22년: 1,558억 달러 → 23년: 1,248억 달러) 2023년 310억 달러(-19.9%) 감소, 대미국 수출(22년: 1,098억 달러 → 23년: 1,157억 달러) 2023년 59억 달러(5.4%) 증가

## 제1절 동향

### 가. 수출 동향

2023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6,32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7.5% 감소하였다. 월별 수출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2023년 10월부터 증가로 전환되며 2024년 2월 현재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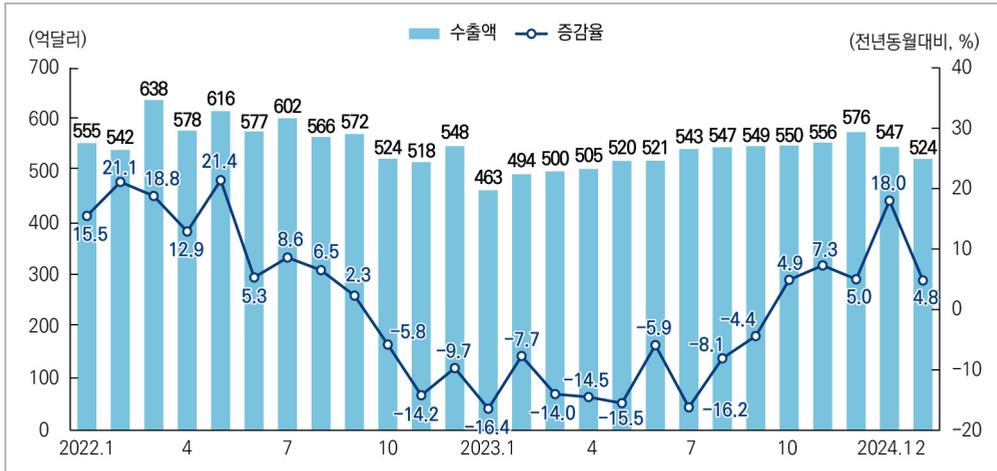
2023년은 세계적 고금리 기조,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모두 2022년 대비 하락(각각 -0.4%p, -4.9%p)하였다. 여기에 더해 세계 반도체 수요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 중국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2023년 수출은 전반적으로 부진하였다. 주력산업 중 일반기계, 조선, 자동차 등이 호조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 전기차 및 SUV 등 고부가가치 자동차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출 실적<sup>65)</sup>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나타내었다. 또한, 2023년 중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반도체 수출이 11월 증가로 전환된 이후 2024년 2월까지 연속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메모리반도체 고정가격 또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2023년 3분기 저점 이후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sup>66)</sup>

---

65) 연간 자동차 수출 순위: (1위) 2023년: 708.7억 달러 → (2위) 2022년: 540.7억 달러 → (3위) 2021년: 484.0억 달러

66) D램(8Gb\_DDR4): ('23.1월) 1.81달러 → ('23.4월) 1.45달러 → ('23.7월) 1.34달러 → ('23.10월) 1.50달러 → ('24.2월) 1.80달러  
낸드(128Gb): ('23.1월) 4.14달러 → ('23.4월) 3.82달러 → ('23.7월) 3.82달러 → ('23.10월) 3.88달러 → ('24.2월) 4.90달러

| 그림 II-2 | 월간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주: 2024년 2월은 잠정치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수출을 가격과 물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출물량은 2022년 10월에서 2023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한 후, 등락을 반복하다 2023년 9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2024년 1월 물량의 상승 폭이 17.1% 수준까지 높아져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단가는 2022년 10월 25개월 만에 전년동월대비 0.3% 감소로 전환된 후, 2024년 1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하였다.<sup>67)</sup> 따라서 최근 수출물량 증가와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괴리로 수출의 증가 폭이 제한적일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sup>68)</sup>

수출단가의 하락은 지난해 누적된 반도체 재고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 등에 기인한다. 수출물량 감소는 세계 수요의 감소,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 우리 제품의 중국 내 점유율 하락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액에서 대중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2023년 기준 대중국 수출 비중이 19.7%로 가장 높고 미국 18.3%, 베트남 8.5%, 일본 4.6% 순으로 나타난다.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8년 26.8%로 최대

67) 총수출금액은 잠정치를 기준으로 2023년 2월까지 자료가 공표되었으나 수출단가와 수출물량을 나타내는 지표는 1월까지만 공표되었다.

68) 단, 수출물가지수를 통해 반도체 가격을 살펴보면 감소 폭이 축소되며 2024년 1월에는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은행은 수출가격지수(시차 조정된 물가지수)를 이용하며,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수출단가지수를 이용하므로 교역조건지수 흐름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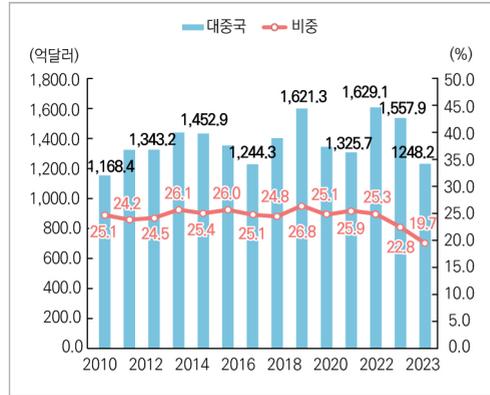
치를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으나, 2022년 22.8%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1년 만에 3.1%p 하락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2022년 16.1%에서 2.2%p 상승하였다.

그림 II-3 | 제조업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증감률 추이



주: 수출물량은 한국은행의 수출물량지수, 수출 단가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단가지수  
 자료: 한국은행,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그림 II-4 | 대중국 수출액 및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대중국 수출 비중의 축소는 수출에서 기존의 한·중 수출의 보완 및 동조화 관계가 경쟁관계로 전환되면서 수출 동조화가 소멸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탄력성이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sup>69)</sup> 중국 내에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제고로 최종재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되던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를 중국산 제품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중간재 수출의 비중은 2023년 68.9%로 2022년 74.2%에 비해 5.3%p 하락했다. 그러나 이를 분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2023년 1~3분기에 중간재에 대한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4분기 소폭 증가로 전환되었다.

69) 국제금융센터, 「대중국 수출 위축 원인분석」, 2023.2.1.

| 표 II-2 | 가공단계별 수출, 증감률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

	2022년		2023년				2024년		1월
	전체	비중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비중	
총계	6835.8 (6.1)	-	1512.2 (-12.8)	1557.8 (-12.0)	1570.1 (-9.7)	1681.2 (5.7)	6322.3 (-7.5)	-	547.0 (18.0)
1차산품	44.1 (12.0)	0.6	9.8 (-4.1)	11.2 (-10.3)	9.9 (-8.1)	9.8 (-7.7)	40.7 (-7.7)	0.6	3.0 (7.9)
소비재	809.6 (3.6)	11.8	235.2 (26.9)	255.6 (30.6)	231.9 (12.3)	260.6 (17.4)	983.3 (21.5)	15.6	85.2 (25.9)
자본재	891.4 (-6.6)	13.0	210.4 (-7.6)	228.0 (1.6)	216.1 (-0.5)	267.2 (20.4)	921.7 (3.4)	14.6	82.4 (26.0)
중간재	5073.3 (9.0)	74.2	1050.8 (-19.6)	1059.3 (-20.7)	1107.7 (-15.0)	1137.7 (0.9)	4355.5 (-14.1)	68.9	372.1 (14.3)
기타	17.5 (18.5)	0.3	5.8 (76.5)	3.8 (28.7)	5.4 (125.8)	6.0 (-32.7)	21.0 (19.9)	0.3	4.3 (105.3)

자료: 한국무역협회

## 나. 생산 동향

2023년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10.2%)는 크게 늘었으나, 반도체(-2.0%), 전자통신(-5.6%) 등이 감소하며 2022년 대비 2.6%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이 감소한 것은 올해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2009년(-0.2%), 2015년(-0.3%), 2020년(-0.2%) 총 3번이 있었다.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은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위기였던 시기이고, 2015년은 세계 경기 둔화, 세계 교역 축소,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수출국의 수출 부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였다.

제조업 생산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2년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하락하였다가 2023년 4분기에 5.1% 증가로 전환되었다. 제조업 생산은 2023년 3분기까지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글로벌 수요부진, 팬데믹 특수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으로 부진하였다. 하반기 들어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3분기에는 생산 감소 폭이 급격히 축소되고, 4분기에는 IT 수요 확대와 단가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생산이 증가하였다. 월별 제조업 생산은 2023년 8월부터 전년동기대비 증가로 전환되어 2024년 1월까지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II-5 | 분기별 제조업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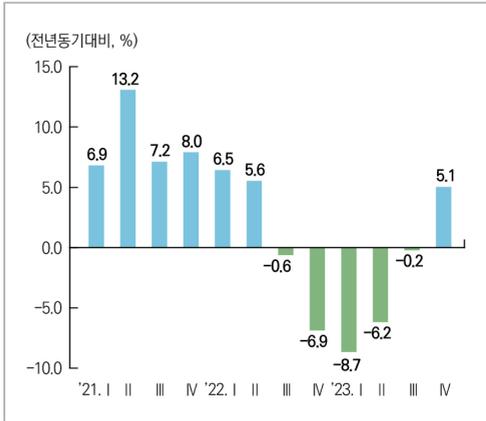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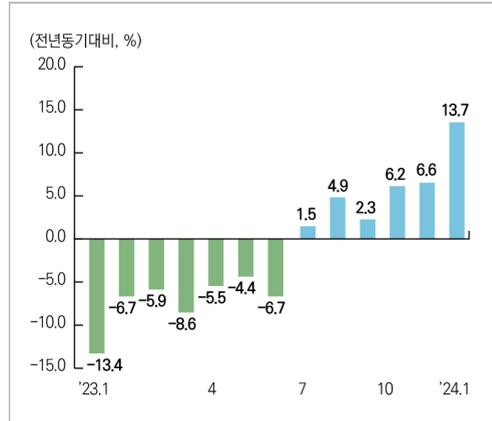


그림 II-6 | 월별 제조업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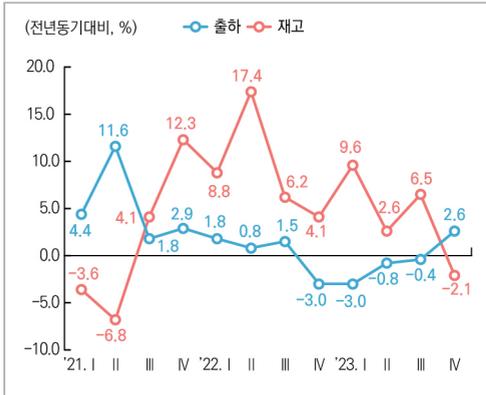


주: 2024년 1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제조업 출하<sup>70)</sup>는 2021년 3분기부터 전년동기대비 낮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 4분기에는 3.0% 감소로 전환되어 2023년 3분기까지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반면, 제조업 재고는 2021년 3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추세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 4분기에 출하가 증가로 전환되면서, 재고 증가율도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2022년 3분기~2023년 2분기까지 반도체 제조업에서 수출 출하가 감소하였고, 전자부품 및 컴퓨터 관련 제조업은 2023년 중 내수와 수출 출하가 모두 부진하였다. 월별로 출하와 재고를 살펴보면, 월별 출하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재고는 2023년 12월부터 1월까지 2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70) 출하는 크게 내수, 수출, 타공장 및 기타 출하로 구분된다. 내수출하는 생산 또는 구입한 제품이 국내 판매업자, 타 사업체, 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출하되었거나, 다른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수출용 제품의 부품으로 출고된 경우를 의미한다. 수출출하는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다른 수출업자를 통해 간접 수출 또는 주한외국군, 면세점으로 납품한 경우를 의미한다. 타공장 및 기타 출하는 동일 조사 제품을 생산하는 동일 기업내 타공장으로 출하되었거나, 선물, 견본, 전시용, 제품포장용, 설비 보수용 등으로 출하된 경우를 의미한다.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2.7.)

그림 II-7 | 분기별 출하 및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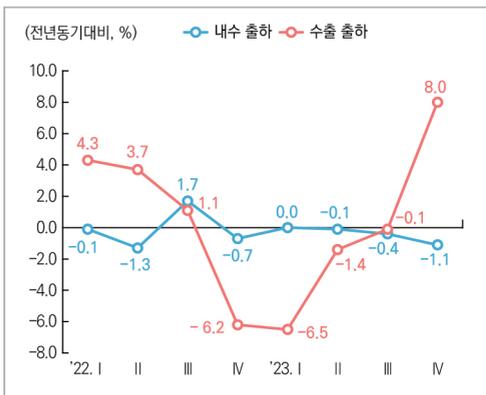
주: 2024년 1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II-8 | 월별 제조업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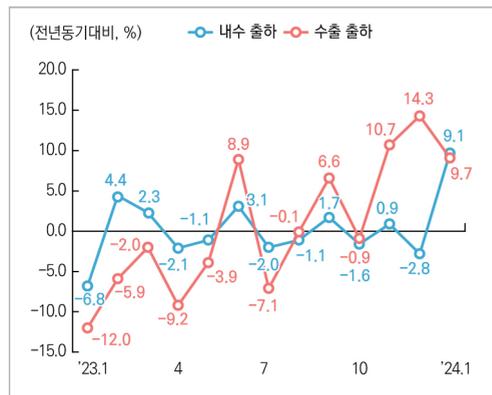
2023년 제조업 출하를 내수와 수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출 출하는 1~3분기 중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4분기 중 8.0% 증가하며 2023년 전체로는 0.1% 감소하였다. 내수 출하는 2023년 중 비교적 완만하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전년대비 0.5% 감소하였다. 2022년 3분기부터 수출 출하가 내수 출하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수출 출하와 내수 출하의 증가율이 역전되었고 4분기에는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내수 출하보다 수출 출하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내수 출하와 수출 출하의 증가율을 월별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23년 10월 각각 -1.6%, -0.9%에서 2024년 1월 기준 각각 9.7%, 9.1%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II-9 | 분기별 내수 및 수출 출하



주: 2024년 1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II-10 | 월별 내수 및 수출 출하



재고율<sup>71)</sup>은 2023년 1월 118.6%에서 4월 123.6%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12월 104.3%로 하락하였다. 재고율이 120%를 상회한 경우는 1998년 8월 121.3%를 기록한 후 처음이다. 재고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내수와 수출출하가 모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수출 감소에 더해 내구재(-3.4%)와 비내구재(-1.7%), 준내구재(-1.7%)가 모두 감소하며 국내 소매판매액(-2.2%)이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2024년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내구재(7.1%) 소비는 증가했으나, 준내구재(-1.4%)와 비내구재(-7.8%)의 소비는 감소하며 소매판매액(-3.4%)이 감소했다.<sup>72)</sup>

그림 II-11 | 제조업 재고율 및 증감률



주: 2024년 2월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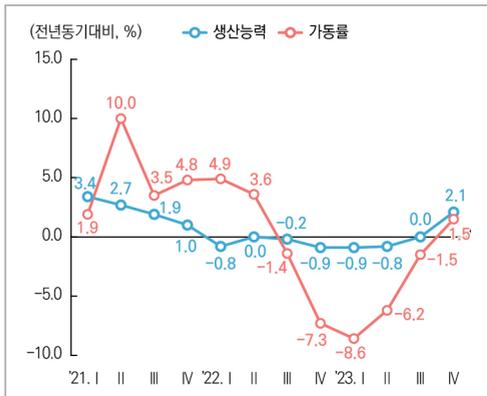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7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의 비율(재고/출하 비율)을 의미한다. 재고율은 재고의 적정수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지표로 인식되는데, 재고율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재고가 출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경기가 수축국면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72) 현대경제연구원(2016.6.15.)의 「경기 침체기의 가계소비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침체국면에서는 가계의 내구재 소비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과거 2011년에도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지만, 특히 고소득층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비내구재 소비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특히 저소득층에서 큰 감소 폭을 보인다고 분석하며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악화를 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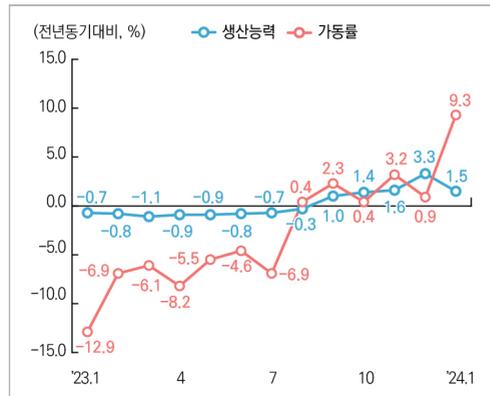
제조업 생산능력은 2022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0.2% 감소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3년 4분기에 2.1% 증가로 전환되었다. 제조업 가동률<sup>73)</sup>도 2022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1.4% 감소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3년 4분기에 1.5% 증가로 전환되었다. 월별 생산능력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3개월 연속 하락하였는데, 월별 가동률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하락 폭을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II-12| 분기별 생산능력 및 가동률



주: 2024년 1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II-13| 월별 생산능력 및 가동률



73) 생산설비의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의 비율로 산출된다.

## 제2절 전망

2024년에는 세계 교역량 증가와 작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ICT 수요 회복세 지속,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화 추세에 따른 고기능 제품의 수요 확대 등 상방요인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통화 긴축기조와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회복 제약 등 하방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4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2023년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2023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5.0%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수출 회복 개선세가 하락하며 2.6%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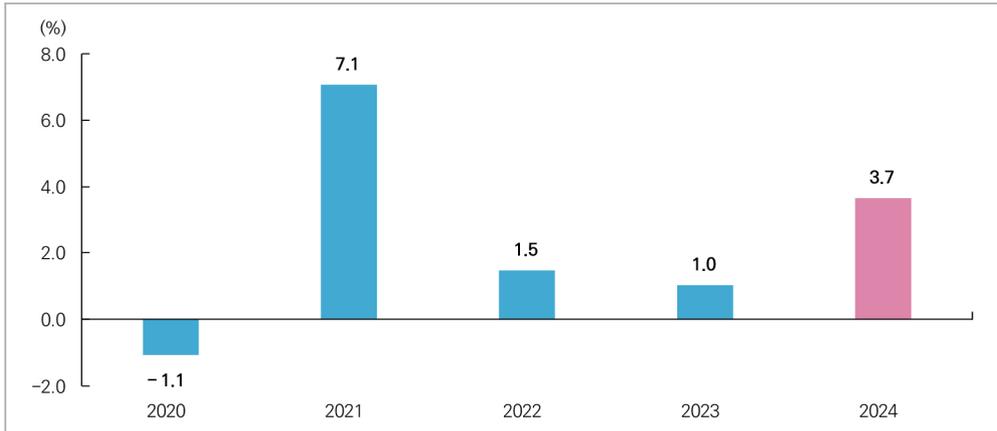
【표 II-3】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sup>f</sup>	하반기 <sup>f</sup>	연간 <sup>f</sup>
1.5	-2.0	4.0	1.0	5.0	2.6	3.7

2023년 11월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생산과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는 등 부진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경기 흐름과 관련하여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세계교역 회복과 수출 증가, 긴축적 통화 기조 가운데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증가, HBM 등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회복과 가격 인상,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완화 등은 상방 요인이다. 그러나 금융 불안과 신용 긴축에 따른 글로벌 수요부진 우려,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에 따른 대중국 수출 회복 지연, 미국의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에 따른 소비 하락,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미·중 중심으로의 공급망 재편 등은 하방 요인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하방 요인으로 인한 제한적 성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교역 반등으로 제조업 생산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II-14 |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주: 빨간색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 가. 상방요인

세계교역 회복과 수출 증가, 긴축적 통화 기조 가운데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증가하고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완화, HBM 등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회복과 가격 인상 등은 상방 요인이다.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8%로 2023년 2.9% 대비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역량은 2023년 0.6%에 비해서는 높은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sup>74)</sup> 2024년 세계 교역량의 증가 폭이 2023년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은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한다.<sup>75)</sup> 그러나 2023년의 낮은 세계교역 성장률로 인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의 세계교역이 2022년의 5.5%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2024년의 통상환경에 하방 요인도 상존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긴축적 통화 기조 가운데 2024년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증가하고,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완화 등은 상방 요인이다. 2024년 주요 선진국 대부분 높은 금리와 부채부담 등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sup>76)</sup>이다. 따라서 물가가 점차 하락하면서 금리인하로 이어져 가계의 구매력이

74)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I부 산업 여건 및 「2024년 경제전망」 시리즈 I권 지출 부문을 참조

75) 2022년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40.85%로 독일(2021년) 38.42%, 프랑스(2021년) 19.78%, 영국(2021년) 15.07%, 일본 17.65%, 미국(2021년) 7.52% 보다 높은 수준이나, 스위스 49.74%, 노르웨이 43.1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KOSIS, 「무역의존도(OECD회원국)」)

회복되면 주요국의 민간소비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통상 금리인하가 이루어지면 대략 6개월 후에 실물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up>77)</sup> 현재 금리인하 시기가 시장의 전망보다 늦춰지고 있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High Bandwidth Memory) 등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이 회복되고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은 상방 요인이다. 2024년 반도체 산업은 2023년의 부진을 털어내고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 IoT 등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고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3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986.3억 달러로 전년대비 2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 2022년 8월부터 감소하던 반도체 수출은 2023년 11월 15개월간 이어진 감소 흐름에서 증가로 전환되어 2024년 2월까지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반도체 수출의 호조 흐름은 IT 전방산업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 상승,<sup>78)</sup> 수출물량 증가세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PC·모바일 재고 감소, AI 서버 투자 확대 등 IT 부문의 전방산업 수요 확대로 인해 2024년 2월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에서 모두 수출이 증가하였다.<sup>79)</sup> 2024년에는 스마트폰 신제품과 AI 서버용 제품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이러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형 AI로 촉발된 고대역폭 메모리(HBM)에 대한 높은 수요는 2024년에도 이어져, HBM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나 HBM 시장 규모는 트렌드포스(2024.3.18.)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해 보면, 2024년에는 2023년(43.6억달러)대비 287.8% 증가한 169.1억 달러로 전망된다.<sup>80)</sup> 이를 2024년 메

7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11.14.)에 따르면 2024년 주요국의 성장률은 미국 1.5%, 유로지역 1.1%, 영국 0.6%로 전망되고 있다고 한다.

77) LG경제연구원, “미국 금리인하의 예상 파급효과,” LG주간경제, 2001.5.30.

78) D램(8Gb\_DDR4): ('23.1월) 1.81달러 → ('23.4월) 1.45달러 → ('23.7월) 1.34달러 → ('23.10월) 1.50달러 → ('24.2월) 1.80달러

낸드(128Gb): ('23.1월) 4.14달러 → ('23.4월) 3.82달러 → ('23.7월) 3.82달러 → ('23.10월) 3.88달러 → ('24.2월) 4.90달러

79) 2024년 2월 기준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60.1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8.1% 증가,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34.2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7.2% 증가하였다.

80)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III부의 제1장 반도체 부문을 참조

모리 시장 전체로 확대해 보면 HBM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시장(1,297.7억 달러)의 13.0% 수준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HBM 시장의 성장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나. 하방요인

금융 불안과 신용 긴축에 따른 글로벌 수요부진 우려,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에 따른 대중국 수출 회복 지연, 미국의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에 따른 소비 하락,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미·중 중심으로의 공급망 재편 등은 하방 요인이다.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에 따른 대중국 수출 회복 지연 우려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년 2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소비에서 펜트업(pent-up) 효과<sup>81)</sup>가 나타나고,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탄력성이 하락하면서,<sup>82)</sup> 2023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대비 4.4%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감소에는 중국 내 생산 구조의 변화 외에 중국 내 소비 부진도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023년 4분기 중국 내 소비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0.4% 증가에 그치는 등, 소비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축적된 중국 가계의 초과저축(excess saving) 규모는 기관별로 추정치가 상이하지만, 최소 4조 위안(약 752조원)에서 최대 7.4조 위안(약 1,39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sup>83)</sup> 중국의 소비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로는 가계소득의 성장세 둔화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가계 재정 건전성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저축을 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2023년 하반기 이후 중국 정부도 부동산 대책을 위시해 강한 경기부양책과 다양한 소비진작책을 공표하고 있다. 경기하강 위험 증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리 불안 등으로 중국 내 소비회복이 제한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sup>84)</sup>

81) 외부 요인으로 인해 수요가 억제되었다가 그 요인이 해소되면서 수요가 분출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82) 국제금융센터, 「대중국 수출 위축 원인분석」, 2023.2.1.

83) 이정진, 「중국 가계 초과 저축의 소비 전환 가능성 점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3.6.

미국의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에 따른 소비 하락 우려는 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3년 4분기 미국 가계의 전체 신용카드 부채는 1조 1,29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430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sup>85)</sup>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90일 이상 연체 전환 기준)이 6.36%로 1년 전보다 2.35%p 상승했다. 이는 2011년 2분기(6.9%)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특히 소비성향이 높은 18~29세 청년층의 카드 연체율이 9.65%로 가장 높았고, 30대의 연체율도 8.73%로 높았다. 또한 2023년 4분기 미국의 전체 가계 부채는 17조 5,03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6,040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2%로 0.25%p, 자동차대출 연체율은 2.66%로 0.44%p 각각 증가했다. 2023년 미국경제는 고금리·고물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소비 호조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팬데믹 이후 미국의 소비를 지지해 왔던 초과저축이 소진되는 가운데 연체율이 증가하면, 소비여력 감소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미·중 중심으로의 공급망 재편 등은 하방 요인이다. 우선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통관수출에서 증가가 제약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과 디리스크잉(de-risking)을 전제로 경제안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sup>86)</sup> 최근의 변화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산업이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2023년 대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인 1,1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견조한 미국 경기와 공급망 재편 효과가 대미 수출 호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중 수출이 감소한 부분이 대미 수출로 전부 회복되지 못한다는 점은 우리 경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

84) 홍창표, 「중국 경제회복의 키워드, 소비부진의 원인과 전망」, CSF 전문가 오피니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85)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2023년 4분기 가계부채 및 신용 보고서」, 2024.2.6.

86) 기존 대중국 전략이었던 디커플링(decoupling)이 경쟁 혹은 적대세력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했는데, 디리스크잉(de-risking)은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험 요소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경제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낮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자는 뜻이다.

### ▶ 2024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8%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sup>f</sup>	하반기 <sup>f</sup>	연간 <sup>f</sup>
4.2	2.7	1.5	2.1	1.4	2.1	1.8

### ▶ 주요 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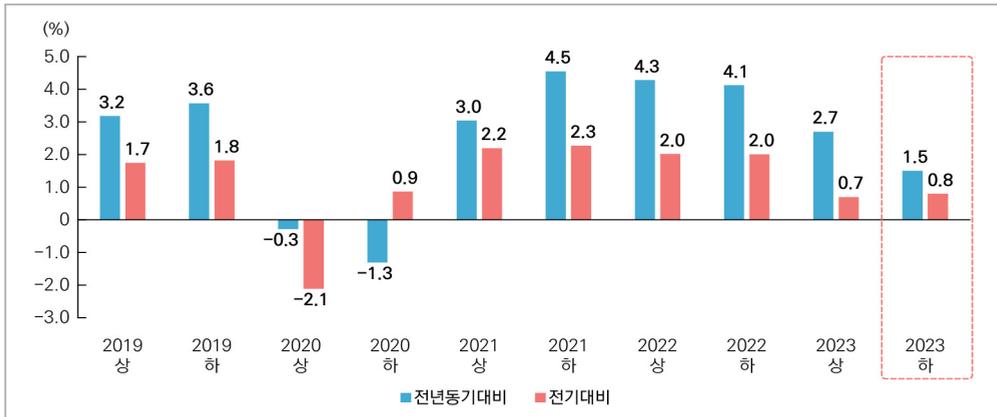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관광수요의 대폭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소득의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PF 부실과 해외 부동산 투자자산의 가치 하락</li> </ul>

2024년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0.3%p 감소한 1.8%에 이를 전망이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잔액 증가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소득의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부동산PF 부실과 해외부동산 투자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발생할 금융권의 손실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외 관광수요의 대폭 증가와 인구고령화, 선진 의료기술의 적용, 비급여 진료의 증가, 국민 건강보험 제도의 확대 등이 운수창고업과 의료보건사회복지업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제1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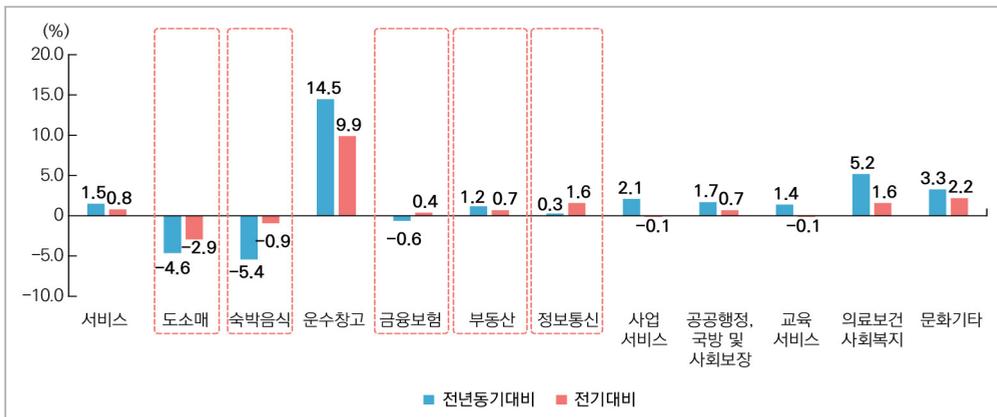
2023년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2.1%p 감소한 2.1% 증가하였다. 2023년 상반기 중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도소매및숙박음식업(-4.6%)과 금융업(-0.6%)을 중심으로 실질 부가가치가 감소하면서 2023년 하반기 전망치(1.9%)를 0.4%p 하회하는 1.5% 증가에 그쳤다. 다만 운수업(14.5%), 의료보건사회복지업(5.2%), 문화기타업(3.3%)의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은 서비스업 평균(0.8%)을 상회하였다. 전기대비로는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0.7%, 0.8%의 증가율을 보여 2022년 상하반기 증가율(2.0%, 2.0%)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5 |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감률 추이(2023년 하반기)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16 | 서비스업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 증감률(2023년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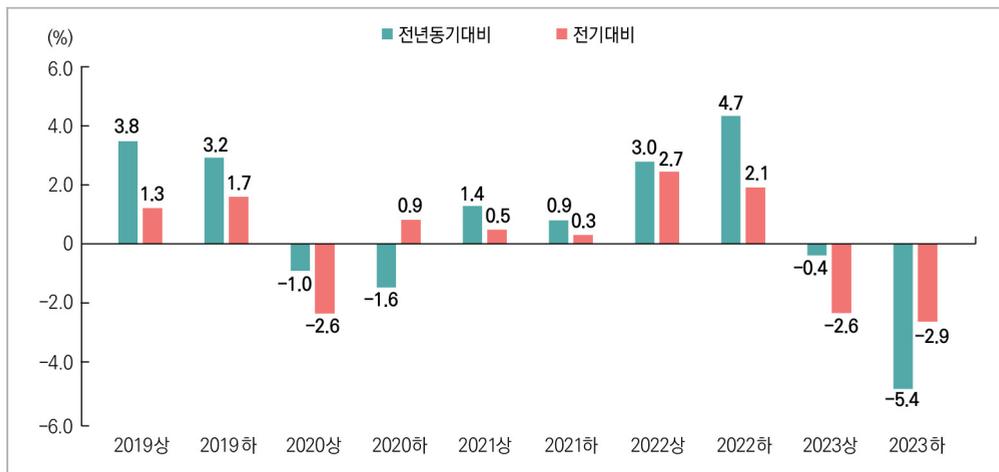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가. 도소매업

도소매업의 실질 부가가치<sup>87)</sup> 증가는 2023년 3.0%로,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0.4%, 하반기에는 5.4% 감소하였다. 도소매업 실질 부가가치에 대한 세분류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도소매업 생산지수를 통해 추이를 살펴보면,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의 경우 3분기부터 생산지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전년의 반도체 수급부족이 해소되면서 기저효과가 줄어든 데 기인한다. 도매업은 2분기부터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과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을 중심으로 생산지수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의 경우 소비 및 제조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의 생산 감소폭이 컸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도매업을 중심으로 재고액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소매업의 생산지수도 2분기부터 감소폭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금리 지속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와 경기 부진으로 소비판매가 연료 소매업과 무점포 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한 데 기인한다. 도소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기대비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6%, 2.9%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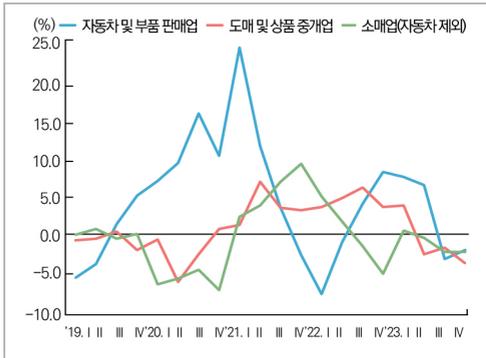
| 그림 II-17 | 도소매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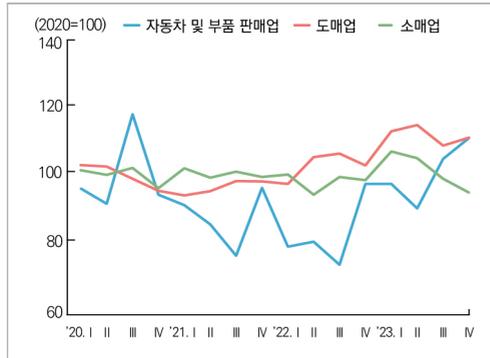
87) 도소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23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5.1%, 서비스업의 5.9%를 차지한다.

그림 II-18 | 도소매업 생산지수의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II-19 | 도소매 재고액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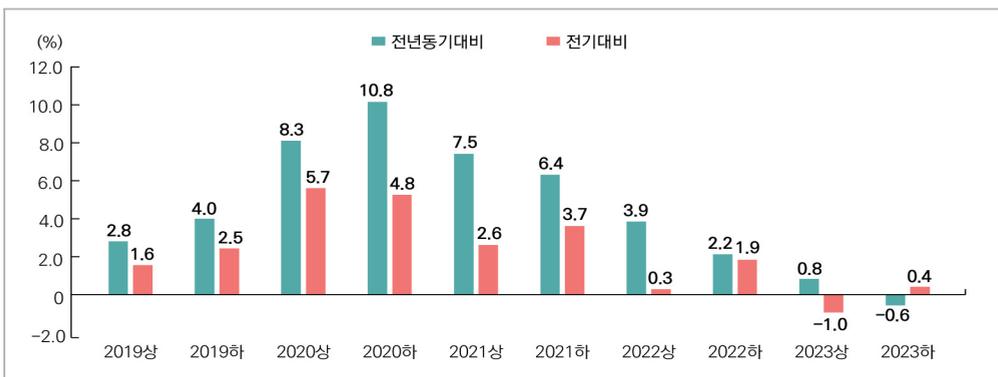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나. 금융보험업

금융보험업의 실질 부가가치<sup>88)</sup> 증가는 2023년 0.1%로,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0.6% 감소하였다. 금융보험업 생산지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데, 하반기 실질 부가가치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은 신규대출에 대한 예대마진 감소와 보험 및 연금업의 기저효과에 기인한다. 생명보험사는 2022년 10년 만기 도래 상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하반기에 고금리 확정형 일시납 저축보험을 대규모로 판매하였다.<sup>89)</sup> 금융보험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기대비로 상반기에 1.0% 감소한 반면 하반기에 0.4% 증가하였다.

그림 II-20 | 금융보험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감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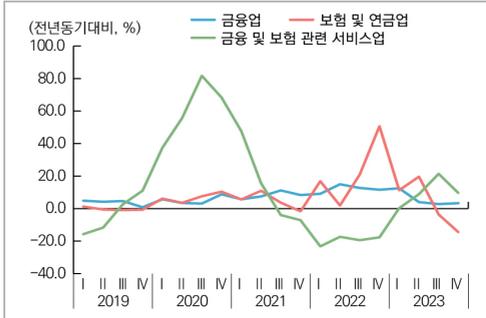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88) 금융보험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23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6.2%, 서비스업의 10.8%를 차지한다.

89) 이로 인해 2022년 개인보험 초회보험료가 전년 대비 115.1% 증가한 25.7조 원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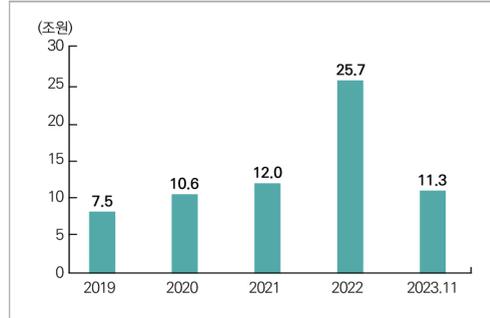
(“2023년 보험산업 수정 전망,” 보험연구원, 2023.7. 8쪽)

| 그림 II-21 | 금융보험업 생산지수의 추이



자료: 통계청

| 그림 II-22 |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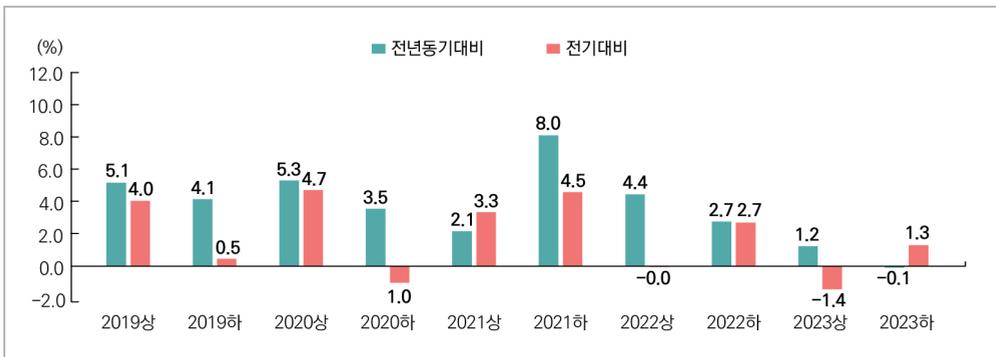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

#### 다.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의 실질 부가가치<sup>90)</sup> 증가는 2023년 0.7%로,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0.1% 감소하였다. 정보통신업 생산지수는 출판업, 방송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으로 구분된다. 정보통신업 생산지수는 출판업과 방송업 등을 중심으로 실질 부가가치가 감소하였다. 출판업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과서 수요가 위축되었고, 방송업의 경우 광고 수익이 감소하면서 실질 부가가치가 줄어들었다. 참고로 2022년 광고시장은 16.5조원이며 이 중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약 4조원으로 24.3%를 차지한다. 2023년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3.3조원으로 전년 대비 17.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추세는 2024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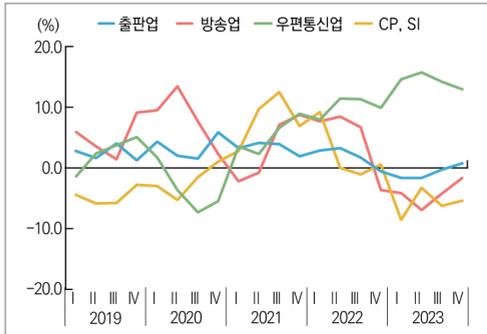
| 그림 II-23 | 정보통신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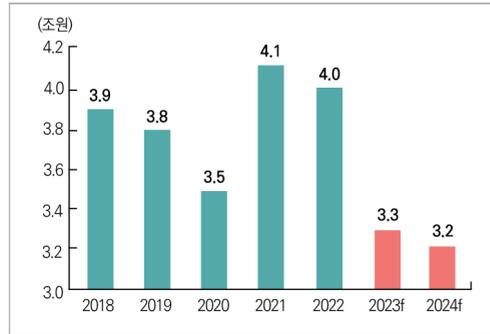
90) 정보통신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23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4.8%, 서비스업의 8.3%를 차지한다.

| 그림 II-24 | 정보통신업 생산지수의 추이



자료: 통계청

| 그림 II-25 | 방송광고 시장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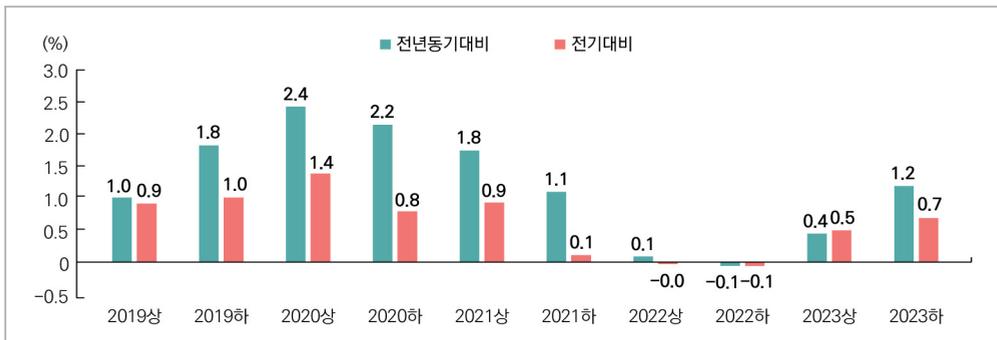


자료: 「2023 방송통신광고비조사 보고서」

## 라. 부동산업

부동산업의 실질 부가가치<sup>91)</sup> 증가는 2023년 0.8%로,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0.4%, 하반기에는 1.2% 증가하였다. 부동산업 생산지수로 살펴보면, 부동산 관리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다. 특히,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정부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시장 경기침체로 증소시행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공급이 부진한데 기인한다. 참고로 2023년 상반기 건축 허가와 착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2.6%, 38.5% 감소하였는데, 이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의 인허가 및 착공 면적이 줄어든 데 기인한다.<sup>92)</sup>

| 그림 II-26 | 부동산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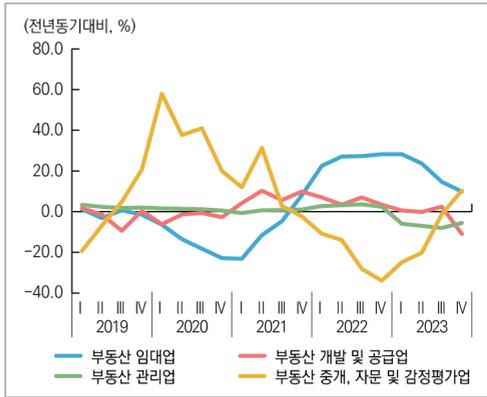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91) 부동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23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7.1%, 서비스업의 12.4%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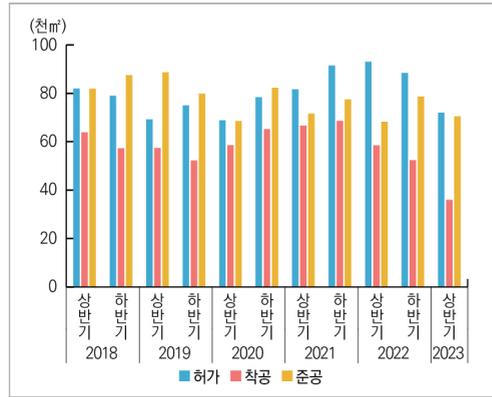
92) “23년 상반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8.2.

그림 II-27 부동산업 생산지수의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II-28 건축 허가·착공·준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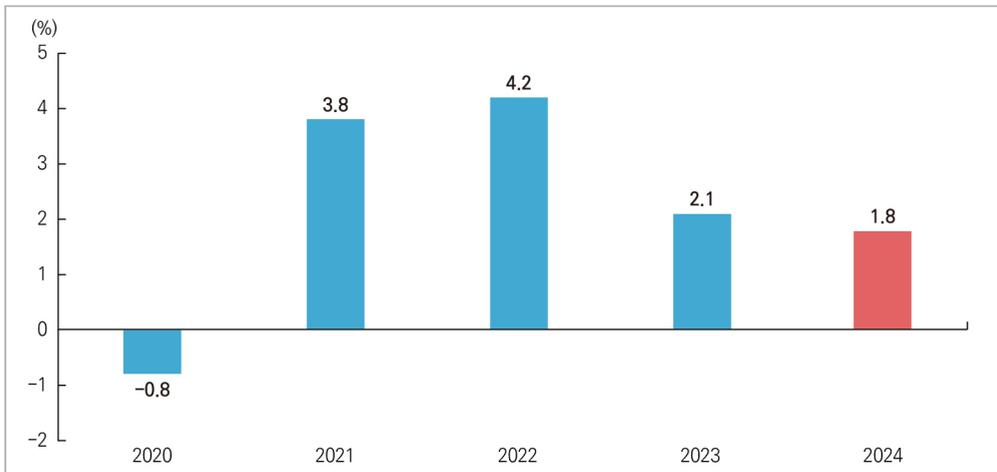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 제2절 전망

2024년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대출잔액의 증가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소득의 감소 등으로 지난 전망치(2.0%) 대비 0.2%p 감소한 1.8%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상반기 서비스 실질 부가가치는 1.4% 증가에 그치는 반면, 하반기 서비스 실질 부가가치는 금리하락이 예상되면서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실질 부가가치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와 국내외 관광수요의 증가 지속으로 의료보건사회복지업, 사업서비스업과 운수창고업의 부가가치 증가가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런 전망은 다음과 같은 상하방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그림 II-29 |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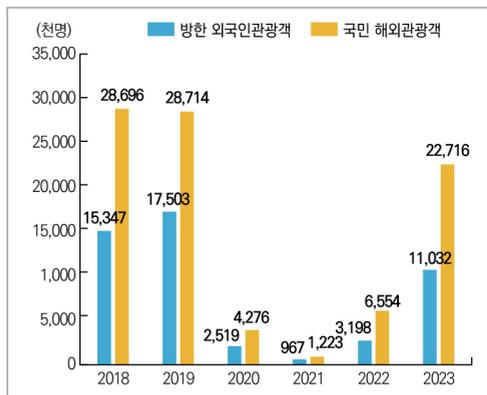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가. 상방요인

국내외 관광수요의 증가폭이 예년 수준을 크게 증가할 경우 운수창고업, 사업서비스업과 숙박음식업의 부가가치가 전망에 비해 상회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 관광수요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방한 외국인관광객은 2023년 말 1,103만명(2019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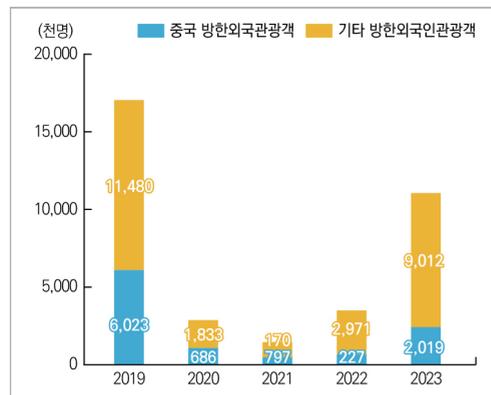
비 63.0%), 국민 해외관광객은 2,272만명(2019년 대비 79.1%)이다. 국민 해외관광객 증가에 비해 방한 외국인관광객 증가가 적은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인 단체 관광이 금지된 데 기인한다. 중국 정부는 2023년 8월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효과는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방한 관광객은 2024년 1월 88만명으로, 2023년 1월 방한 관광객(43만명)의 약 2배에 달한다. 이 중 중국 관광객은 28만명으로 전년동월(2.5만명)대비 11배 증가하였다. 이런 추세가 연내 지속된다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율은 전망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 해외관광객도 2024년 1월 277만명으로 전년동월(178만명) 대비 55.6%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 국민 해외관광객 291만명의 약 95.2%에 해당된다.

| 그림 II-30 | 관광객 추이



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

| 그림 II-31 | 방한 중국관광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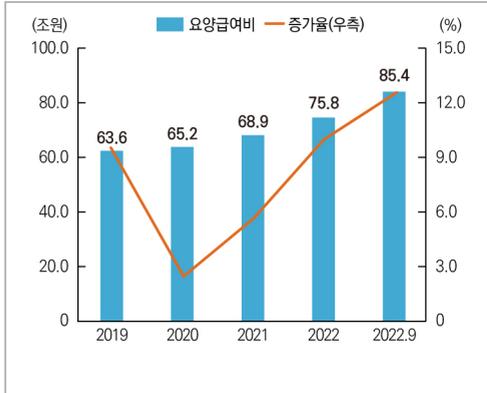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

둘째, 인구고령화 외에 의료기술의 고도화, 비급여 진료의 증가,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의 확대 등은 의료보건사회복지업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기준 946만명으로 2018년(739만명) 이후 연평균 5.1%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1~3분기 누계)<sup>93)</sup>는 동기간 연평균 8.1% 증가하였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는 필수재로 경기 여건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요인들로

93)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통계는 2023년 3분기까지 제공되므로 1~3분기 누계 자료로 비교하였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5030000&brdScnBltno=4&brdBltNo=2433&pageIndex=1&pageIndex2=1>, 접속:2024.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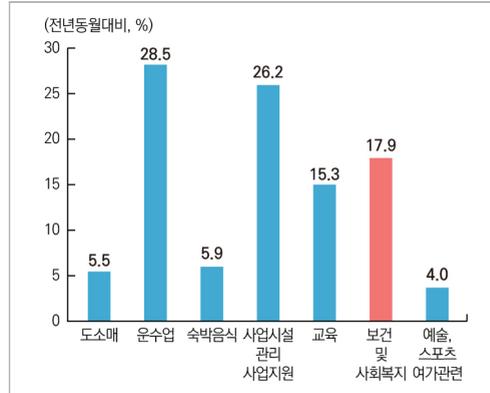
인해 의료보건사회복지업의 부가가치 실적치가 전망치를 상회할 수 있다. 참고로 이런 추세는 최근 카드승인실적에도 나타나는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카드승인실적이 2024년 1월 전년동월대비 17.9% 증가하여 운수창고업(28.5%)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6.2%)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 그림 II-32 | 요양급여비 추이



주: 각 연도 1~3분기 누계  
자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그림 II-33 | 카드승인실적 증감률



주: 2024년 1월  
자료: 여신금융협회

## 나. 하방요인

대출잔액의 증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실질소득의 감소는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등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2023년 3,565조 원으로 전년대비 135조원(3.9%)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대출잔액 증가율 중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2024년 1월 5.04%임을 고려할 때 전년대비 추가된 이자부담만 최소한 6.8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DSR은 2023년 6월 기준 각각 14.2%, 43.9%에 달한다. 주요국 중 한국의 최근 DSR 증가폭이 높다는 점에서 당분간 소비여건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물가의 지속도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2023년 5.6%로 2022년(6.9%) 대비 1.3%p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생활물가 중 식품과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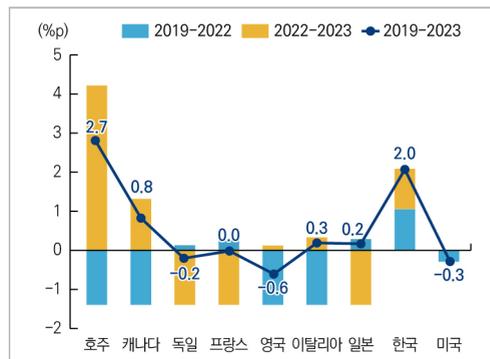
식비용, 에너지와 연관된 전기가스요금과 택시요금, 보험료의 인상폭이 컸다.<sup>94)</sup> 식품의 경우 폭염과 이상저온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생산 부진이 컸고 전기가스요금과 택시요금의 경우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비용상승분이 반영된 데 기인한다. 2024년에도 추가적인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이상기온에 의한 농축수산물 생산 부진이 발행할 수 있어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 그림 II-34 |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II-35 | 주요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DSR 증감 추이



주: 각년도 6월말 기준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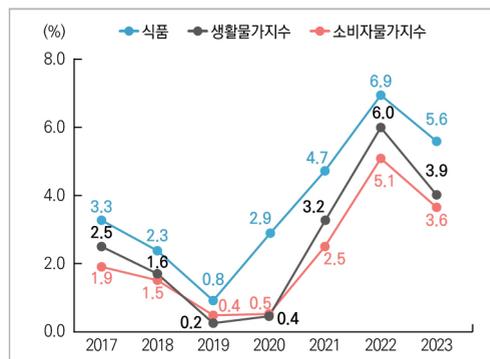
| 그림 II-36 | 주요국 비금융기업의 DSR 증감 추이



주: 각년도 6월말 기준

자료: BIS

| 그림 II-37 | 생활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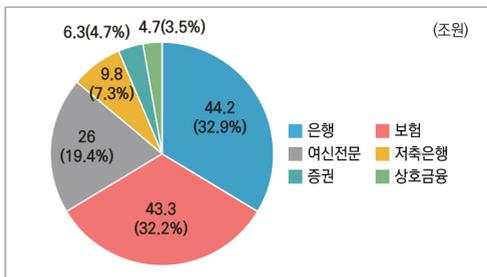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94) 보험료는 2022년 14.1%, 2023년 12.9%의 증가하였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22005&conn\\_path=1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22005&conn_path=13)>, 접속: 202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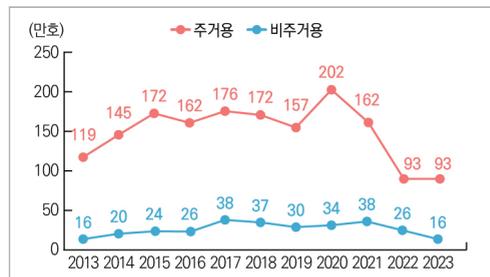
고금리, 공사비용 상승,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PF의 부실화는 일부 금융기관에 리스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동산 PF 대출은 2023년 9월 기준 134.3조원<sup>95)</sup>으로 2020년 말 92.5조원 대비 45.2%(41.8조원) 증가하였다. 금융권별로 살펴보면, 은행(44.2조원), 보험(43.3조원), 여신전문(26.0조원)이 84.5%를 차지한다. 문제는 여신전문(4.44%)과 PF 대출의 15.5%를 차지하는 증권사(13.85%), 저축은행(5.56%), 상호금융(4.18%)의 연체율이 금융권 평균(2.42%)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금융기관의 경우 비수도권과 비주거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sup>96)</sup> 한편 부동산거래가 2020년을 고점으로 절반 수준까지 감소한 이후 정체된 상황에서 비수도권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수도권의 주택매매거래량은 2023년 24만호로 전년대비 19.4%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주택매매거래량은 31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에 그쳤다. 주거용 건물거래는 2020년 202만건에서 2022년 93만건으로 감소한 후 2023년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비주거용 건물거래는 2021년 38만건에서 2022년 26만건, 2023년 16만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 II-38 | PF 대출 현황



주: 2023년 9월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그림 II-39 | 용도별 부동산거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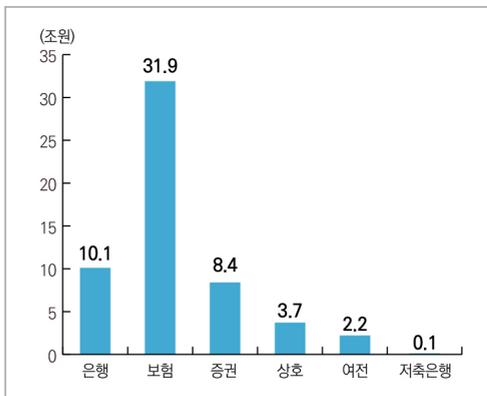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95)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대출(관리형토지신탁 대출 포함, 2023년 2분기 23.3조원)은 제외된 수치이다.  
96)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신용등급을 보유한 증권사 25개사와 저축은행 16개사의 부동산PF(브릿지론, 부동산 PF대출, 부동산PF 채무보증)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증권사의 경우 비수도권(해외 포함) 투자지역 비중이 40%대이고 저축은행의 비주거용의 비중이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혁준,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는 금융업권," Special Report, NICE신용평가, 2023.12.6. 10쪽)

구분	위험평가지표	증권사 (2022년 12월 → 2023년 9월)	
		2022년 12월	2023년 9월
손실흡수능력	부동산 PF/자기자본	37%	35%
사업단계	브릿지론 비중	26%	27%
상환순위	중·후순위 비중	49%	44%
투자지역	비수도권(해외 포함) 비중	45%	44%
용도	비주거용 비중	41%	37%
		(지방 38%, 해외 5%)	
			141% → 115%
			55% → 55%
			11% → 12%
			28% → 29%
			49% →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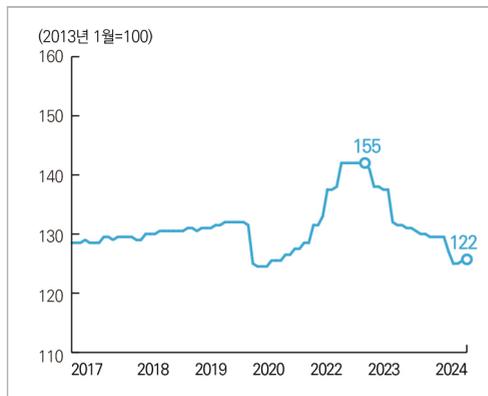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해외 부동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투자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는 2023년 9월 56.4조원이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 31.9조원, 은행 10.1조원, 증권 8.4조원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 북미 34.5조원(61.1%), 유럽 10.8조원(19.2%), 아시아 4.4조원(7.9%), 기타 및 복수지역 6.6조원(11.8%)으로 투자되었다. 단일자산<sup>97)</sup>에 대한 투자액은 35.8조원으로, 이중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 미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LTV 조건 미달 등으로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이 2023년 9월 2.31조원(6.46%)에 이른다.<sup>98)</sup> 참고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2024년 1월 기준 122로 2022년 고점(155) 대비 21.4% 하락하였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금융권 총자산 대비 0.8%임을 감안할 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해외 부동산 가치 회복이 만기도래 시까지 지연될 경우 금융권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sup>99)</sup>

| 그림 II-40 |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 그림 II-41 |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 추이



자료: Green Street CPPI

97) 투자대상은 단일자산과 복수자산으로 구분된다. 단일자산 투자는 부동산 개발과 임대를 목적으로 개별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35.8조원에 이르며, 복수자산 투자는 블라인드 펀드나 재간접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20.5조원에 해당된다.

9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3.9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2024.2.22.

99)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만기도래 분포 (조원, %): (2024년) 12.7조원(22.5%), (2026년) 15.2조원(26.9%), (2028년) 11.2조원(19.9%), (2030년) 4.6조원(8.2%), (2031년 이후) 12.7조원(22.5%)

## 제4장 건설업

### ▶ 2024년 건설업의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2.1% 감소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sup>f</sup>	하반기 <sup>f</sup>	연간 <sup>f</sup>
0.7	5.2	0.6	2.7	-1.2	-2.9	-2.1

###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C 예산 집행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한 자금경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비용의 안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 부실화</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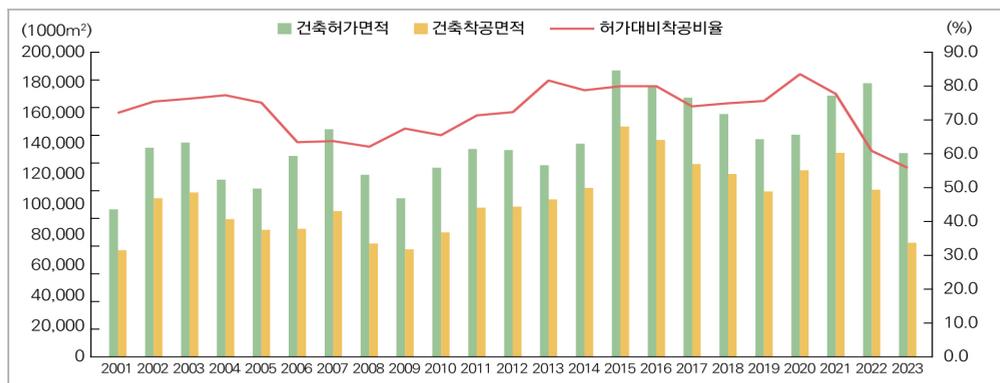
2024년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과 동행지표인 건축착공면적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024년 건설경기 또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한 부담과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기업들의 재정 부실화가 건설경기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정부의 SOC 예산 조기 집행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 중간재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승 추세는 둔화되고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건설 중간재의 생산은 대부분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설비투자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당분간 건설 중간재 가격이 급격하게 낮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용균 경제분석관(kimyk0909@assembly.go.kr, 6788-4791)

## 제1절 동향

2023년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2.7% 증가하며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상반기에는 건축공사가 크게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5.2%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0.6% 증가하며 그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그러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의하면 2023년 건축허가면적은 지난 10년 평균의 84.8% 수준에 머무르며 전년대비 25.6% 감소하였고 건축착공면적은 지난 10년 평균의 63.2% 수준으로 31.7% 감소하였다.<sup>100)</sup> 건설업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건축허가와 동행지표인 건축착공면적 모두 감소하는 모습이다. 이는 2023년뿐만 아니라 향후 건설경기가 부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II-42 | 건축허가면적 대비 건축착공면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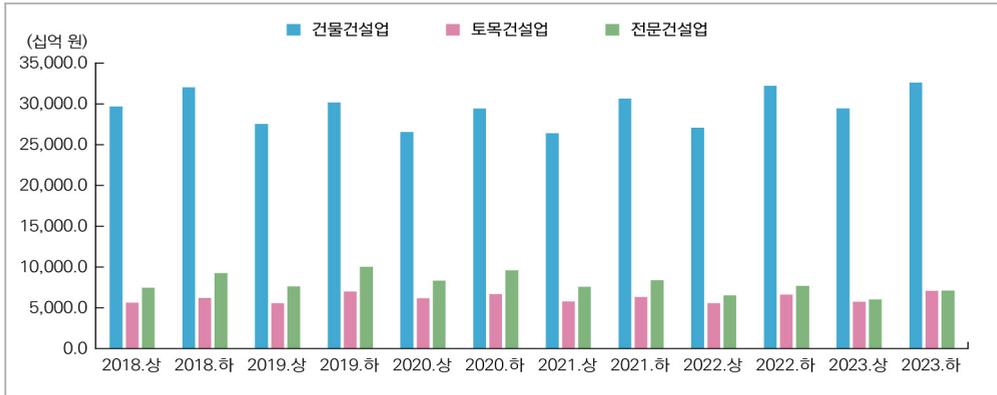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의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는 성장하였지만 이는 그동안 건설업의 저조한 성장세에 대비한 증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 건설비용의 증대에 기인한 것이고 건설경기는 당분간 부진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2023년 상반기의 실질 부가가치 성장세에 크게 이바지했던 건축공사 또한 그 성장세가 둔화되어 건설업 경기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도 그 성장세가 다시 꺾일 것으로 보인다. 건설자재 원가의 가격이 안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주를 이루는 건설 관련 중간재 산업의 설비투자 압력이 증가하며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커지고 있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00)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4년 건설경기 전망」, 2023.12.12.

그림 II-43 | 건설업 부문별 실질 부가가치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 가. 건물건설업

2023년 건물건설업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4.7% 증가하였다. 2023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하였고, 하반기에는 1.3% 증가하였다. 주거용 건물건설업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3.8% 증가하였다. 2023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하였고, 하반기에는 0.1% 감소하였다.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또한 전년대비 5.7% 증가하였다. 2023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하였고, 하반기에는 2.7% 증가하였다. 공종별 기성액은 건축공사가 2023년 상반기는 18.2% 증가하였고, 하반기는 9.4% 증가하였다.

### 나. 토목건설업

2023년 토목건설업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4.7% 감소하였다. 2023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하였고 하반기에 6.8% 증가하며 그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공종별 기성액은 토목공사가 2023년 상반기는 3.8% 증가하였고, 하반기는 6.1% 증가하였다.

### 다. 전문건설업

2023년 전문건설업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7.7% 감소하며 그 감소세는 이어갔지만 그 감소세는 둔화되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7.8% 감소하였으며 하반기 또한 7.6% 감소하였다.

## 제2절 전망

2023년 건설업은 주요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과 더불어 주요 동행지표인 건축착공면적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임금,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실질 건설비용의 증가가 실질 부가가치에 반영되어 2023년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나, 건설경기 자체는 부진한 상황이며 그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상승에 이바지하였던 건물건설업의 상승세가 둔화되며 2024년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는 상반기에 1.2% 감소하고, 하반기에 2.9% 감소하여 연간 전년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융비용 상승으로 자금조달 압박이 심화되며 중소형 건설업체는 물론, 대형 건설업체마저 재정부실에 내몰리며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sup>101)</sup> 부실 리스크의 확대로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허가가 실질적인 건설착공으로 실현되는 비율의 하락세<sup>102)</sup>도 이어지고 있어서 건설경기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중간재 가격의 상승세는 둔화되어 안정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건설 중간재는 대부분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철강, 시멘트 등)이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에 대한 투자 압박으로 인해 건설 중간재에는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중간재 가격의 상승은 건설 단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이 동일하다고 전제하면 건설업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SOC 예산의 조기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의 상반기 하락세는 하반기보다 그 감소폭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며 높은 금융비용, 신규 건설착공 부진, 높은 건설비용, 경기 위축 등 복합적인 경기 하방압력들로 인하여 건설시장이 2023년 대비 위축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101) 신용도나 담보 대신 사업계획, 수익성 등을 보고 해당 건설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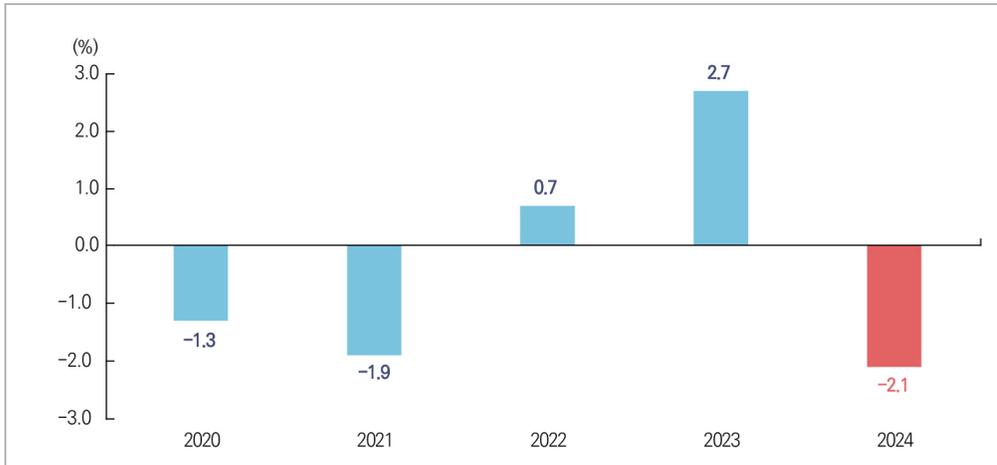
102) 건축허가면적 대비 건축착공면적 비율은 2022년 61.1%에서 2023년 56%로 하락하였다.

표 II-4 |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sup>f</sup>	하반기 <sup>f</sup>	연간 <sup>f</sup>
0.7	5.2	0.6	2.7	-1.2	-2.9	-2.1

그림 II-44 |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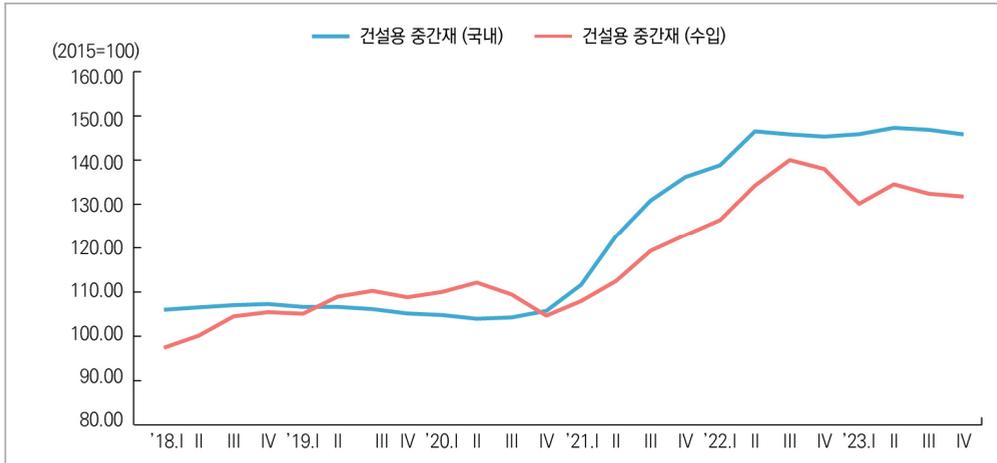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 가. 상방요인

2024년 건설업은 상방요인이 적은 건설경기 부진이 예상된다. 단지, 정부의 SOC 예산의 조기집행이 이루어지면 경기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관련 산업의 설비투자 압력으로 인하여 가격 하방경직성이 예상된다. 단지 높은 건설 원자재 가격과 임금은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한다.

| 그림 II-45 | 건설용 중간재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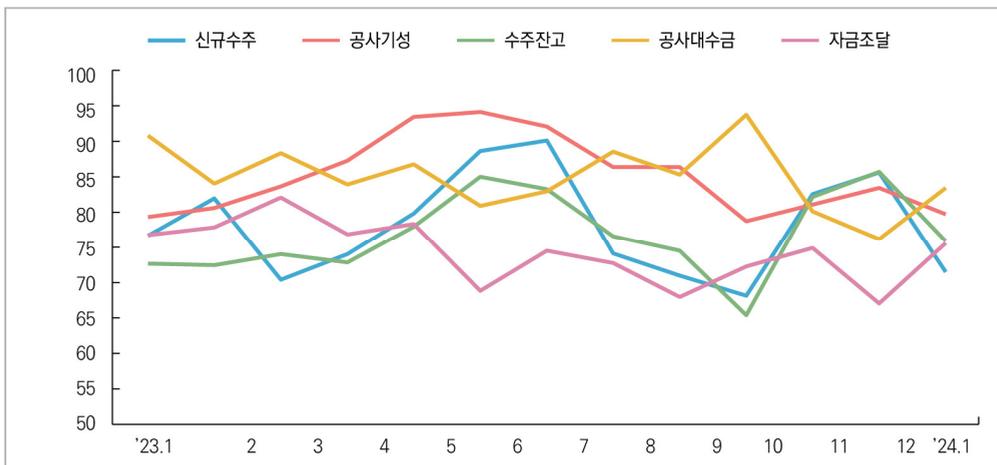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 나. 하방요인

2024년 건설업은 높은 금융비용과 그로 인한 유동성 경색문제로 인하여 큰 하방압력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건설업체는 물론 중소형 건설업체들 또한 기업부실화의 위험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적극적인 건설경기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공급측 부진과 더불어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은 수요측 부진의 지속으로 이어져 2024년 건설업은 공급측, 수요측 모두 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II-46 | 건설업 부문별 실적 지수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 제5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 2024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4.7%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sup>f</sup>	하반기 <sup>f</sup>	연간 <sup>f</sup>
1.9	-5.6	-4.3	-5.0	4.7	4.6	4.7

###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산업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li> <li>○ 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공급 원활</li> <li>○ 난방도일 증가로 에너지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둔화</li> <li>○ 전기, 가스 요금 인상으로 수요 감소</li> </ul>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2024년에 IT 업종 중심의 수출 개선이 상방 요인으로 고금리와 높은 체감 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이 주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4.7%의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2024년 중 전기, 가스요금 인상의 가능성이 있어 전망치가 하향 조절될 수 있다. 2023년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는 소비 내수 비중과 중국 의존도<sup>103)</sup>가 높은 석유화학업의 부진 등으로 저조했으나 2024년에는 석유화학업의 기저효과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IT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생산활동이 회복되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는 2023년에 난방도일 감소 및 요금 인상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기저효과와 냉난방도일 증가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의 안정적인 원자재 가격 동향도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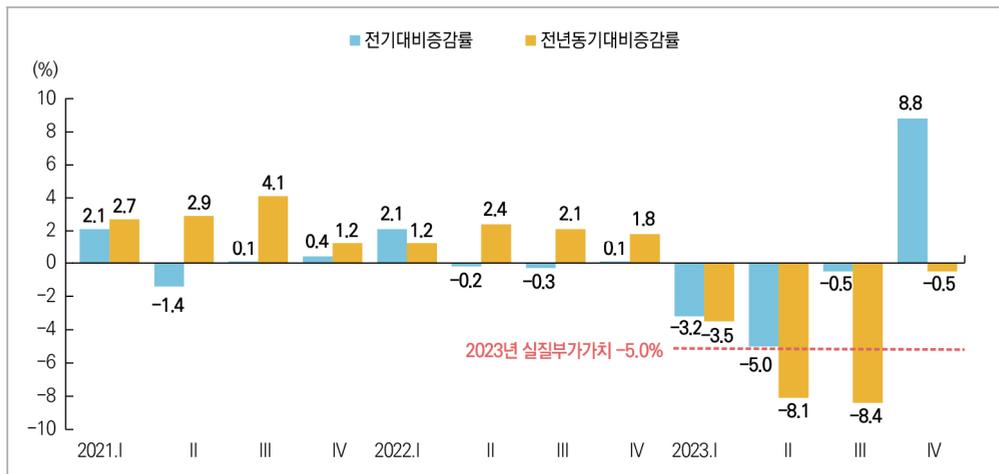
김윤희 경제분석관(yunhee.kim@assembly.go.kr, 6788-4679)

103) 석유화학 제품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20년 47.6%에서 '23년 상반기에는 39.7%로 낮아졌다. 김호섭 외, “석유화학 산업 2023년 3분기 실적분석 및 향후 전망,” 한국신용평가, 2023. 11. 16.

## 제1절 동향

2023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sup>104</sup>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5.0% 하락했는데 주로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실적하락과 전기업의 부진에 기인한다. 3분기까지의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5~8.4% 낮았으나 4분기에는 발전 효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전기업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으로 인해 원전 비중이 상승하여 회복세(전기대비 8.8%)를 보였다.<sup>105</sup>

그림 II-47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적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업종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특히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전기업의 실적이 낮았다. 이는 2022년부터 총 6회, 7.3원/MJ의 가스요금 인상<sup>106</sup>과 4회의 전기요금 인상<sup>107</sup>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sup>108</sup>에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으

104) ① 전기업, ②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③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으로 구성된다.

105)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는 1,400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경북 울진군 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9월 운영허가 이후 시운전을 수행했고 연말에 계통연결이 완료됐다. 경북도 연간 가정용 전력소비량의 27.2%에 해당하는 시간당 평균 약 70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원안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 의견,'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 2023. 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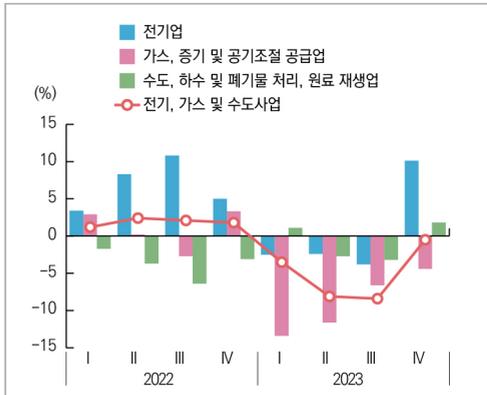
106) 주택용 소매요금 서울시 기준(VAT 및 기본요금 포함)으로 MJ(Mega-Joule)당 '22.4월(16.2원 → 16.6원), '22.5월(16.6원 → 18.0원), '22.7월(18.0원 → 19.2원), '22.10월(19.2원 → 22.2원), '23.5월(22.2원 → 23.3원), '23.7월(23.3원 → 23.5원)에 인상되었다.

107) 전기요금은 2022년 하반기 이후 4번 인상('22.7, '22.10, '23.1, '23.5)하였다.

108) <https://dart.fss.or.kr/mai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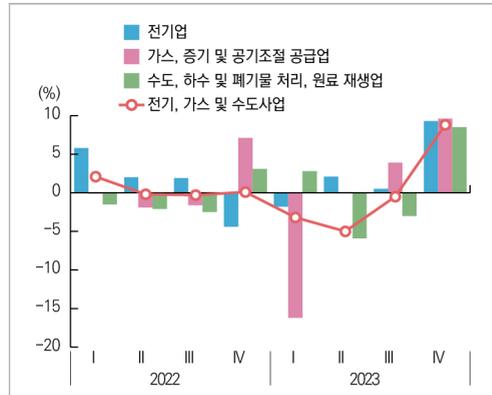
로 분류되는 기업은 총 793개이다. 수도,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에 속한 기업은 131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관련 기업은 619개, 환경 정화 및 복원업에 속한 기업은 18개가 있다.

그림 II-48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적차(전년대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49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적차(전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 가. 전기업

전기업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 중에서 2023년 말 기준 약 65%를 차지한다. 전기업의 실질 부가가치 추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인다. 2023년의 실질 부가가치(원자료 기준)를 분기별로 보면 1분기 실적은 2022년보다 높았으나 2, 3분기에는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4분기에는 원자력발전 운영 등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회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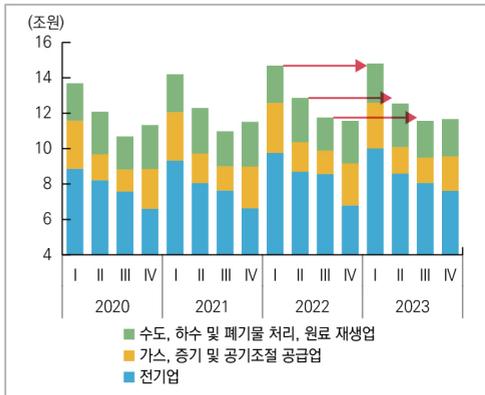
최근 3년간 부문별 전기 소비를 보면 수송의 경우 전기차 보급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sup>109)</sup> 산업용 전력 소비의 경우 연간 비교 시 총사용량은 건물(가정, 상업 및 공공)보다 높지만,<sup>110)</sup> 계절별 편차가 크지 않다. 2023년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둔화하고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도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적었으며 특히 10월의 사용량(21,025GWh)은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109) 2012년 이후 하이브리드(전기+휘발유)와 전기차의 등록 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1년 1,102대 → '22년 1,508대 → '23년 1,532대가 등록되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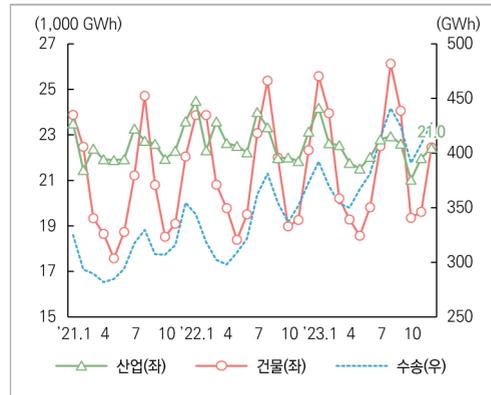
110) 2023년 기준 산업용 전기는 268,462GWh, 건물용 전기는 261,495GWh가 소비되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2024. 3. 15.

| 그림 II-50 | 전기·가스·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II-51 | 부문별 전기소비



자료: 한국전력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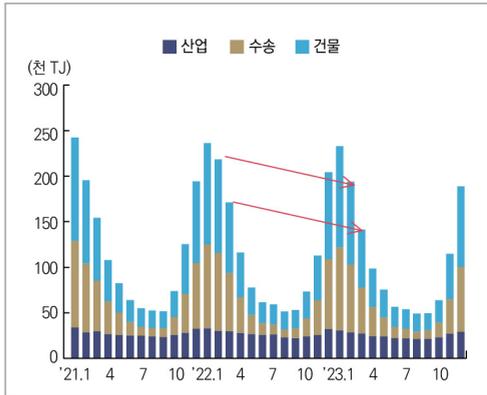
#### 나.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23년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분기 13.4%, 2분기 11.6%, 3분기 6.6%, 4분기 4.4% 감소하였다. 상반기에 가스업의 실질 부가가치가 감소한 것은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가 전년동월대비 2023년 2월 12.6%, 3월 21.0%, 4월 18.0%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실제로 2023년 2월에는 난방비 대란으로 급등한 난방비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가스요금 인상 및 난방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다.<sup>111)</sup> 천연가스 소비도 발전전용 가스 소비가 전년대비 6.2% 감소하고 가스제조 부분도 7.7%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7% 감소했다. 발전용 가스 소비 감소는 LNG 수입 가격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sup>112)</sup>을 유지하면서 발전에너지원 중 원자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11) 산업통상자원부, “2월 난방비가 11월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은 가스요금 상승이 아닌 가스 사용량 증가 때문 등(2.12일 MBC 「한파 속 ‘난방비 폭탄’... 에너지 대란, 앞으로 “더 크게 온다” 보도에 대한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 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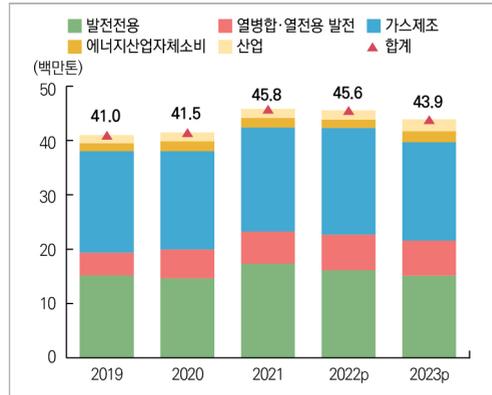
112) 천연가스 수입 천 톤당 '21년: 0.55(백만달러), '22년: 1.08(백만달러), '23년: 0.82(백만달러)

그림 II-52 도시가스 소비 추이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그림 II-53 천연가스 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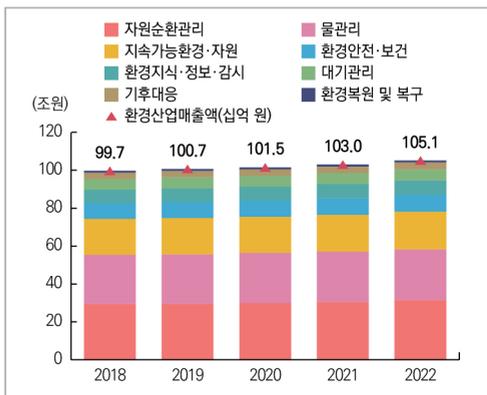


자료: 한국가스공사, LNG직도입사

### 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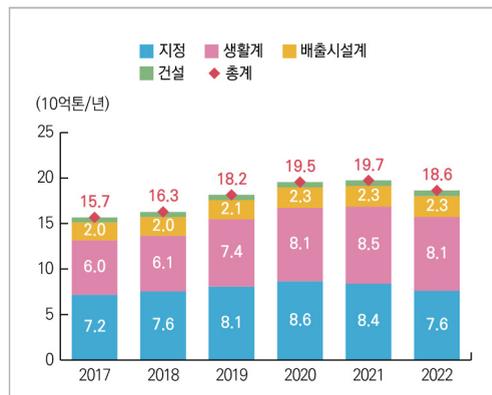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2.7%, 3.2% 감소하였고 전기 대비로도 5.9%, 3.0% 감소하였다. 환경산업의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대형 건설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직반입 금지 조치,<sup>113)</sup> 가전제품 수요 감소, 자동차 신차구매 감소 등에 따른 폐기물 처리 부문의 생산이 실질 부가가치 감소에 기인한다.

그림 II-54 환경산업의 매출액 현황



자료: 환경부, 「환경산업통계조사」

그림 II-55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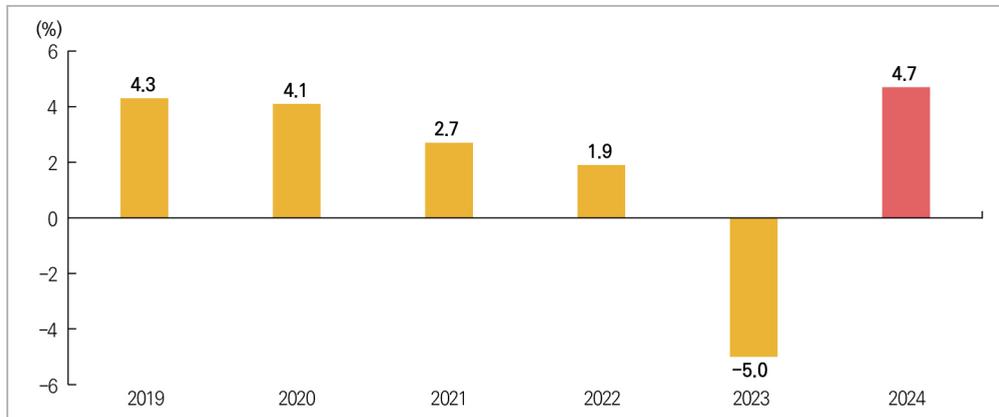
자료: 환경부

113) 환경부, “2022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약 50% 감축 추진, 건설폐기물 99% 재활용한다…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보도자료, 2021. 11. 24.

## 제2절 전망

2024년 전기·가스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sup>114)</sup>는 지난 전망치(0.7%, 2023년 10월)에 비해 4.0%p 높은 4.7% 증가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소비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업의 전년도 부진(-3.4%)<sup>115)</sup>에 대한 기저효과와 반도체 등 IT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생산활동이 회복되어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 크게 상승했다가 2023년 상반기 하락한 국제 유가 수준이 현재까지 배럴당 80달러 내외를 유지하고<sup>116)</sup>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2022년 하반기 이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기와 도시가스 및 열 요금의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3년 전기·가스·수도사업의 부가가치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에너지 가격이 높은 시기에 적정 요금 인상 시기를 놓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 문제<sup>117)</sup>로 2024년 하반기에는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sup>118)</sup>

▶ 그림 II-56 | 전기·가스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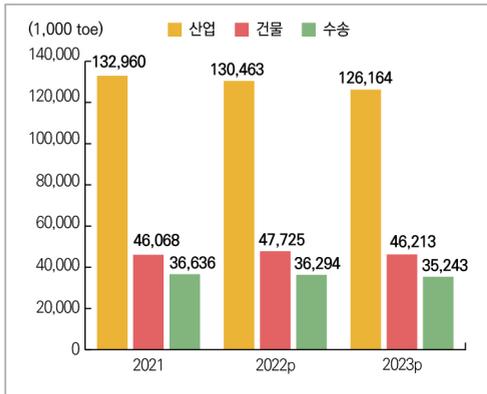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 114) 2023년 말 기준 전기·가스 수도사업의 세부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 비중(원계열)은 전기업 65%, 가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8%,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 순이다.
- 115) 김호섭 외, “석유화학 산업 2023년 3분기 실적분석 및 향후 전망,” 한국신용평가, 2023. 11. 16.
- 116) 국제유가는 2022년 배럴당 113.3달러를 기록한 후 공급난 해소, 강달러 현상,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12월 77.2달러로 하락한 뒤 80달러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117)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연결재무제표 기준)이 '20년 364.2%에서 '23년 482.7%로 증가(부채액: 28조원 → 47조원)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같은 기간 부채비율이 187.5%에서 542.5%로 증가(부채액: 132조원 → 193조원)하였다.
- 118) '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 기금운영계획 설명자료를 보면, 전력 단가를 '23년 126.4원/kWh에서 '24년 154.14원/kWh로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3.2조 원(예상판매량: 561,592GWh)으로 전년 대비 6,133억 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가. 상방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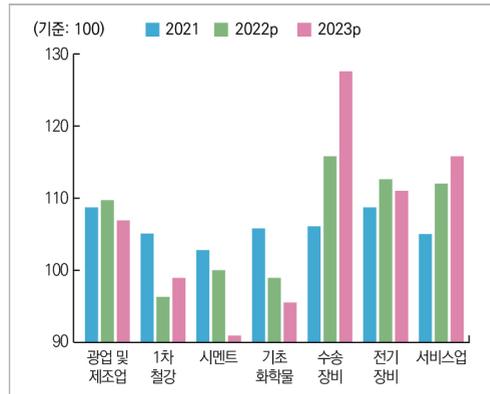
작년 하반기부터 에너지소비 집약도가 큰 IT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2024년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0.8%p 상승한 2.2%로 전망됨에 따라 최근 3년간 내림세였던 산업, 건물, 수송 부문의 전반적 에너지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부문 석유화학업과 반도체 등 IT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생산활동이 회복되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는 2023년의 난방도일 감소 및 요금 인상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기저효과와 난방도일 증가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림 II-57 | 부문별 에너지 최종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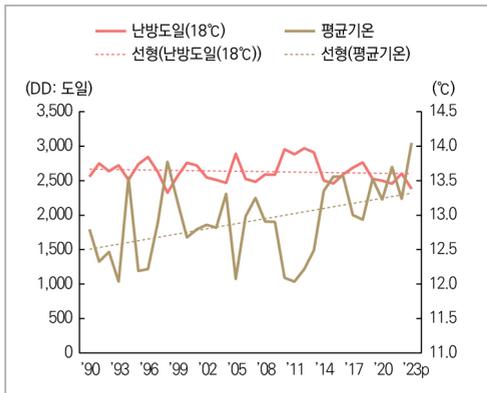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 그림 II-58 | 업종별 산업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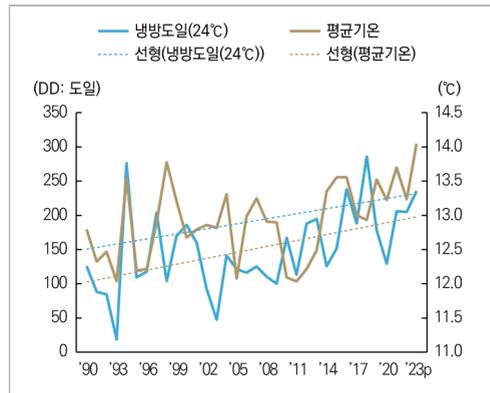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그림 II-59 | 난방도일(18°C) 추이



자료: 기상청(서울기준)

| 그림 II-60 | 냉방도일(24°C)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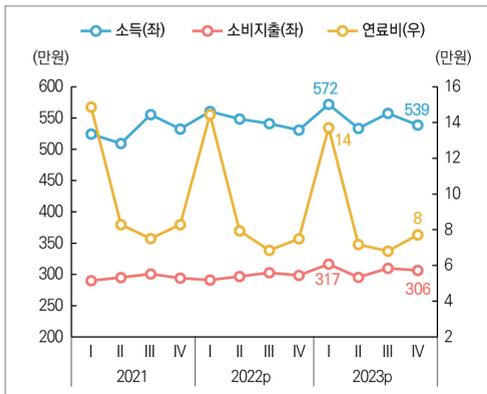
자료: 기상청(서울기준)

## 나. 하방요인

2024년 전기·가스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 전망의 하방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높은 체감 물가 수준, 고금리와 가계부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한 내수 부진이 서비스업의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실질기준)」의 최근 3년간 가계소득, 소비지출 및 연료비 지출 추이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비농림어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23년 1분기 572만원으로 최근 3년 내 가장 높았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3년 4분기에는 539만원을 나타낸다. 같은 기간 연료비는 13.7만원에서 7.7만원으로, 소비지출도 316만원에서 306만원으로 감소했다. 소득 감소 폭(-5.8%)에 비해 연료소비 감소 폭(-43.7%)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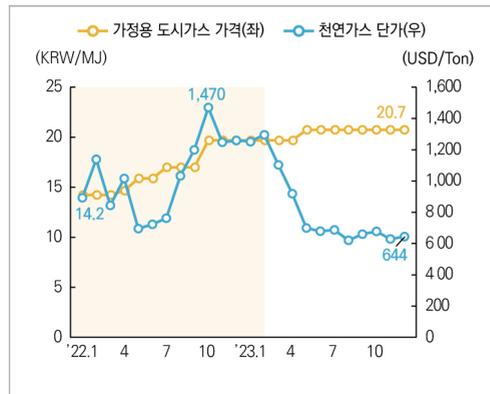
또한 2021년 554.1달러의 1톤당 천연가스 도입 단가가 2022년 10월에 1,470달러까지 증가(2022년 평균가격 1,078달러)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가 증가하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비용이 증가하면서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 부채 관리<sup>119)</sup> 및 원료 단가 반영의 정상화 차원에서 2024년 하반기에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된다.<sup>120)</sup>

| 그림 II-61 | 가구당 소득 및 지출 추이



주: 전국 2인 이상 비농림어가구  
자료: 통계청

| 그림 II-62 | 가스 단가와 요금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119) 기획재정부는 재무위험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관리제도를 운용하는데 부채율이 200%를 넘는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6개,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4개 기관이 2022년 6월에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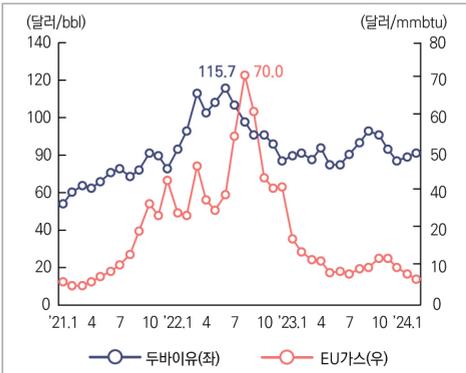
120) 이미 에너지 가격 급등 기간(2021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에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했지만, 주요국과 비교 시 낮은 에너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상분은 에너지 공공기관의 역마진을 상쇄하기엔 부족했다(박스 참조).

## [BOX 2]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공공기관 부채

### □ 2022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담 이연으로 공공기관 부채 증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2.2월) 등을 계기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
  - '22.3월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113.1달러/bbl로 전월대비 21.5% 상승, 전년동월대비 76.9% 상승 후 6월에는 115.7달러/bbl 고점 형성
  - '22.3월 유럽의 가스요금은 42.4달러/mmbtu로 전월대비 55.7% 상승, 전년동월대비 591.9% 상승 후 8월 70.0달러/mmbtu의 고점 기록
- 유럽은 시장 인상분을 에너지 가격 이용에 반영하여 가격 인상 공유<sup>121)</sup>
  - '22.8월 천연가스 가격이 300유로 정도로 상승했을 무렵 유럽의 전력 계약가격은 영국 363.71파운드/MWh, 독일 469.35유로/MWh, 프랑스 492.99유로/MWh를 기록
  - 영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 가계 에너지 요금 할인 등 선별지원
  - 독일은 세금 감면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
- 한국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요금 통제로 에너지 공공기관의 부채 확대
  - '23.12월 말 기준 한국전력의 총부채는 202.4조원, 이자비용은 4.4조원 이고 한국가스공사의 총부채는 47.4조원, 이자비용은 1.6조원
  - 에너지 공공기관은 '22.6월 이후 재무위험기관(부채율 200% 초과)으로 선정되어<sup>122)</sup>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으로 부채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요금의 현실화에 대한 의견도 제기됨<sup>123)</sup>

|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



자료: World Bank

| 에너지 공공기관 부채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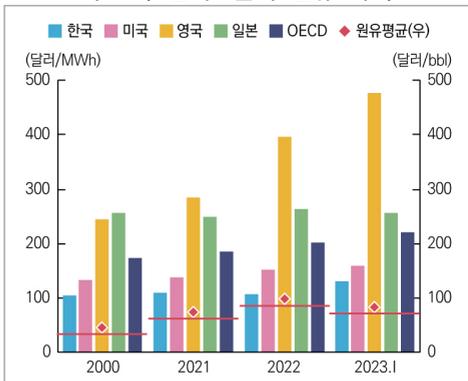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 □ 주요국의 에너지 요금과 국제 에너지 가격의 관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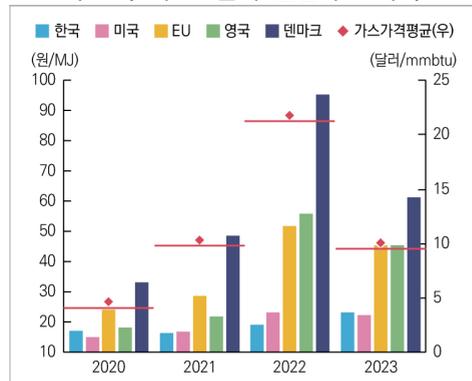
- 국제 원유 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 가격과 주요국 전기요금의 상관관계 비교 시 주요국에 비해 한국이 가장 낮고 미국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한국은 0.34, 일본은 0.48, OECD 평균과 영국은 0.77, 미국은 0.81
- 국제 가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 가격<sup>124)</sup>과 주요국 가스요금의 상관관계 비교 시 주요국에 비해 한국이 가장 낮고 덴마크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한국은 0.14, 미국은 0.79, EU는 0.84, 영국은 0.83, 덴마크는 0.99
- 원자재를 100% 수입해야 하는 국내 여건에서 자원절약과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요금 조정이 중요
  - 공공서비스임에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역 A-J효과<sup>125)</sup> 등이 발생하여 서비스의 질 저하, 세금으로 충당하는 등의 부작용 초래

### | 주요국 전기요금과 원유 가격 |



주: 원유가격은 두바이유, 브렌트유 등 평균  
자료: OECD, World Bank

### | 주요국 가스요금과 천연가스 가격 |



주: 1. 미국은 주택용 천연가스 가격 자료  
2. EU는 HEP(Household Energy Price Index) 반영  
3. 한국은 소매요금 서울시 기준 VAT 및 기본요금 포함  
자료: 한국가스공사, World Bank

- 121) 김윤정, 임유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분석」, 연구자료 22-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8. 23.
- 122) 박진, 「공공요금 현실화하고 과도한 정책사업 지양해야」, 나라경제 11월, KDI, 2022. 11.
- 123) '재무위험 공공기관 선정·집중관리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 6. 3.
- 124) 미국, 유럽, 유럽의 천연가스 평균 가격을 사용하였다.
- 125) 역 A-J 효과(Reverse Averch-Johnson Effect)는 공공요금이 평균비용을 밀돌거나 적정 투자 보수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 2024 경제전망Ⅱ

## 생산 부문

---



# 국제비교

# III

제1장 반도체

제2장 자동차

제3장 화학

제4장 철강



### ▶ 2024년 세계반도체 시장 규모는 13.9% 증가할 전망

- 인공지능(AI) 기술의 탑재로 인해 PC·스마트폰 등 최종 소비자 시장(end market)의 수요가 확대되며,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 전체 반도체 시장 성장을 견인
- 지역별로는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반도체 시장이 성장을 주도

### ▶ 2024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요 회복, 가격 상승 등으로 49.7% 증가하며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전망

반도체 시장조사 3개 회사(WSTS, OMDIA, Gartner)에 따르면, 2023년 세계반도체 시장 규모는 최소 5,201억 달러에서 최대 5,380억 달러 추정되며, 3개 회사 평균 5,307억 달러로 전년대비 1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sup>126)</sup> 2023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4,382억 달러로 전년대비 2.9% 소폭 감소에 그쳤으나, 메모리 반도체는 909억 달러로 전년대비 34.7% 큰 폭으로 감소하며 2023년 세계반도체 시장의 부진을 초래하였다. 2023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양대 축인 D램과 낸드플래시에서 2023년 중 모바일, 서버, PC 등 전방 수요의 부진이 이어지며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가격도 2022년 1분기에서 2023년 3분기까지 연속 하락하면서 부진했다.<sup>127)</sup> 2023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기차 등 자동차산업, 국방 및 항공우주산업 등에서 AI 애플리케이션 용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가격도 양호하게 형성되어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1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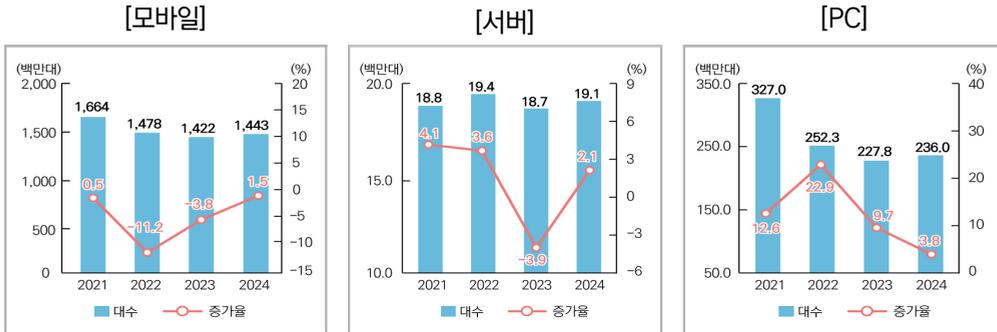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kwonil@assembly.go.kr, 6788-4677)

126) WSTS(2023.11.28.), OMDIA(2023.12.), Gartner(2023.12.4.)

127)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간담회 발표 자료」, 2024.1.

128) Gartner, 20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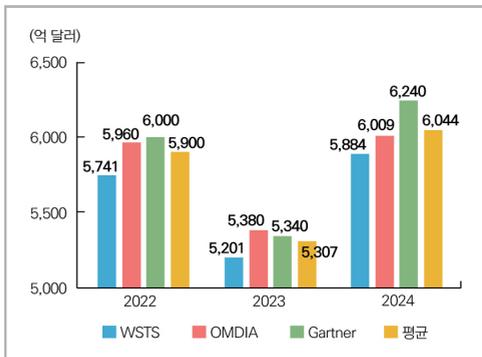
### | 그림 III-1 | IT 기기 출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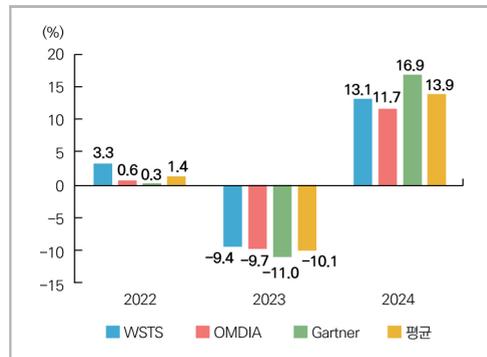
자료: Trendforce('23.12.)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24.1.)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024년 세계반도체 시장 규모는 5,884억 달러에서 6,240억 달러 사이로 전망되는데, 반도체 시장조사 3개 회사 평균 6,0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그림 III-2 | 조사기관별 시장 규모



### | 그림 III-3 | 조사기관별 시장 규모 증가율



주: 금액 및 증가율은 WSTS, OMDIA, Gartner 3개 사 추계치 및 전망치 평균임

자료: 통계청한국반도체산업협회,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간담회 발표 자료」, 2024. 1. ; IRS Global, 「2024 반도체 Global Market Data」, 2024. 2.

특히 2023년에 부진하였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024년 1,360억 달러로 49.7% 증가하며 2022년 수준(1,391억 달러)을 거의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긍정적 전망의 근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2023년 3분기 저점을 기록한 후 가격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어 2024년에는 연중 상승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2023년 중 누적되었던 재고도 점차 소진되며 메모리 반도체 공급업체들이 2024년 중 점진적으로 감산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 III-1 |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단위: 억 달러, 전년대비 %)

	금액			증가율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전체	5,900	5,307	6,044	1.4	-10.1	13.9
메모리	1,391	909	1,360	-	-34.7	49.7
비메모리	4,511	4,382	4,675	-	-2.9	6.7

주: 금액 및 증가율은 WSTS, OMDIA, Gartner 3개 회사 추계치 및 전망치 평균임  
 자료: 한국반도체산업협회(2024.1.),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간담회 발표 자료」; IRS Global(2024.2.), 「2024 반도체 Global Market Data」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024년 반도체 시장의 지역별 성장률은 미주 지역이 22.3%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서 아시아 태평양 12%, 일본 4.4%, 유럽 4.3% 순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III-2 | 지역별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전년대비 %)

	금액			증가율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미국	141,136	132,536	162,154	16.2	-6.1	22.3
유럽	53,853	57,048	59,480	12.8	5.9	4.3
일본	48,158	47,209	49,275	10.2	-2.0	4.4
아시아 태평양	330,937	283,333	317,455	-3.5	-14.4	12.0

주: 백만 달러에서 반올림되어 있으므로 단수 차이가 있음  
 자료: WSTS, WSTS Semiconductor Market Forecast, 2023.11.28.

집적회로(IC) 부문은 2023년에 전년대비 11.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부 부문별로는 우리나라에 경쟁력이 있는 메모리 반도체(-31.0%) 분야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아날로그(-8.9%), 마이크로(-3.2%), 로직(-0.9%) 등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24년에는 집적회로(IC) 부문은 2023년 대비 15.5% 증가할 전망이다. 세부 부문별로도 모든 부문이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며,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 전년대비 44.8%로 큰 폭으로 증가하며 IC 부문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아날로그<sup>129)</sup>는 2024년 중 3.7% 증가할 전망이다. 아날로그 시장의

약 절반 정도가 통신기기용이고 그 중 약 70%를 모바일 단말기가 차지하는데, 2024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약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sup>130)</sup> 마이크로<sup>131)</sup>는 2024년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MPU<sup>132)</sup>가 마이크로 시장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2024년 중 PC 시장은 팬데믹 시기에 구매할 PC를 교체하려는 수요와 생성형 AI 붐으로 8% 성장(카날리스, 2024. 1.)할 전망이다. 최근 MCU<sup>133)</sup> 산업의 성장은 자동차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주도하고 있는데, 자동차에는 평균 50개 이상의 MCU가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sup>134)</sup> 자동차 산업의 AI, 자율주행, 기타 IoT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세가 2024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로직은 전년 대비 9.6% 증가할 전망인데, 아날로그와 마찬가지로 수요의 절반 정도가 통신기기 부문의 수요이므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3 | 집적회로(IC) 부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대비 %)

	금액			증가율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집적회로	474,402	422,174	487,454	2.5	-11.0	15.5
아날로그	88,983	81,051	84,056	20.1	-8.9	3.7
마이크로	79,073	76,579	81,937	-1.4	-3.2	7.0
로직	176,578	174,944	191,693	14.0	-0.9	9.6
메모리	129,767	89,601	129,768	-15.6	-31.0	44.8

주: 백만 달러에서 반올림되어 있으므로 단수 차이가 있음

자료: WSTS, WSTS Semiconductor Market Forecast, 2023.11.28.

129) 음악과 같은 각종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반도체이다.

130) 카날리스(Canalys), *Canalys Smartphone Market Pulse: Q4 2023*, 2024. 1.

131)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반도체로, MPU(Micro Processor Unit), MCU(Micro Controller Unit), DSP(Digital Signal Processor)로 구성된다.

132) 개인용 컴퓨터(PC)에서 중앙 처리 장치(CPU)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133)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으로, 휴대폰, 가전제품, 자동차 전장 시스템 등을 제어하는 시스템반도체의 일종이다. 단순 기능부터 특수한 기능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다양한 특성을 컨트롤 하는 역할을 한다.

134) <https://www.mordorintelligence.kr/industry-reports/>

2023년 반도체 시장의 특징은 생성형 AI로 촉발된 고대역폭 메모리(HBM: High Bandwidth Memory)에 대한 시장의 많은 관심을 들 수 있다. 생성형 AI의 확산은 고성능 서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HBM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나타난다.

HBM은 넓은 대역폭을 지닌 메모리를 의미하며, 대역폭이란 주어진 시간 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나 처리량, 즉 데이터 운반 능력을 의미한다. HBM은 현재 메모리 시장에서 가장 넓은 대역폭을 지닌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중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처리하고 전송할 수 있다.<sup>135)</sup> 향후 빅테크 기업 등이 AI 분야에서 투자를 늘리면서 핵심 부품 중 하나인 HBM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중기적으로는 HBM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sup>136)</sup>

2023년 AI 서버 출하량은 118.3만대로 전체 서버 출하량의 약 9%를 차지한다. 2024년 글로벌 서버 시장은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1,365.4만대로 예상되며, AI 서버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165.2만대로 전체 서버 중 12.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sup>137)</sup> HBM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각 시장조사 기관별로 편차가 매우 크게 전망되고, 최근 발표 자료일수록 시장 규모를 크게 전망하고 있다. 최근 트렌드포스(2024.3.18.)<sup>138)</sup>에서 ‘글로벌 D램 시장 규모 중 HBM의 비중’을 발표하며, D램 시장 규모를 함께 발표한 바 이를 기준으로 HBM 시장 규모를 추정하였다. 트렌드포스는 세계 D램 시장 규모를 2022년 800.9억 달러, 2023년 518.6억 달러, 2024년 841.5억 달러로 전망하였고, 이중 HBM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2년 2.6%, 2023년 8.4%, 2024년 20.1%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HBM 시장 규모는 2022년 20.8억 달러, 2023년 43.6억 달러, 2024년은 전년대비 287.8% 증가한 169.1억 달러로 전망된다.

현재 HBM은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개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HBM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95% 수준이며, 2024년에는 해외 기업들의 시장 진입으로 89%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sup>139)</sup>

135) 삼성반도체 뉴스룸(<https://news.samsungsemiconductor.com/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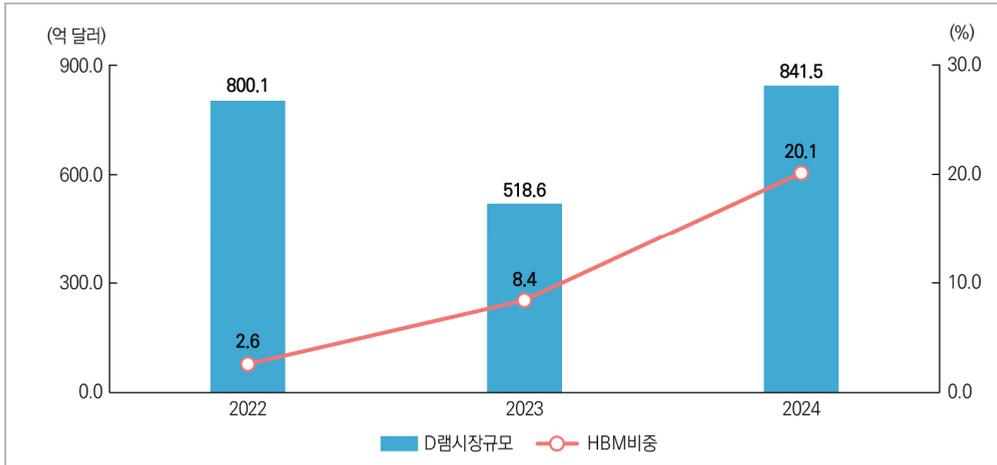
136) 한국신용평가, 「KIS 2024 Industry Outlook」, 2023.12.15.

137) TrendForce, 2024.2.1.

138) TrendForce, *Estimated HBM Revenue Share of the DRAM Industry, 2022-2024*, 2024.3.18.

139) businesspos, “HBM 메모리 시장 지각변동 전망, 삼성전자 선두 오르고 마이크론 급성장.” 2024.2.7.

| 그림 Ⅲ-4 | HBM 시장 전망



자료: TrendForce, *Estimated HBM Revenue Share of the DRAM Industry, 2022-2024*, 2024.3.18.

## 제2장 자동차

### ▶ 2024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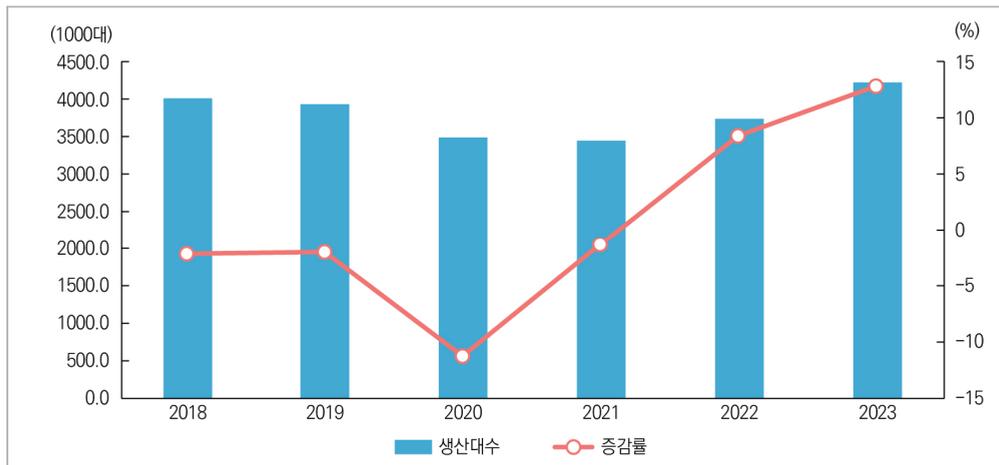
-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하 영향으로 점진적인 성장 예상
-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중국 경기의 둔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 ▶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나 그 속도는 둔화

- 아직 전체 자동차 중 비중은 적으나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세는 여전

2023년 국내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생산의 병목현상을 야기하였던 반도체 수급문제가 해소되면서 생산이 정상화되고 이연수요로 인한 판매 호조로 경기 회복세를 보였다.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 내수 및 수출이 동시에 호조를 보이면서 자동차 생산은 2023년 전년대비 13.0% 증가하였다. 2023년 자동차의 내수 판매 대수는 친환경 자동차 및 SUV의 판매호조와 팬데믹 기간 동안의 이연수요에 힘입어 전년대비 4.5% 증가하였다.

| 그림 III-5 | 자동차 생산 추이



주: 승용, 상용 차량 합산

자료: 대한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자동차 수출 판매 대수는 미국과 EU 시장으로의 친환경 자동차 판매 호실적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며 전년대비 20.3% 증가하였다. 금액 기준으로 높은 가격 차량 제품의 수출 호조로 2023년 수출은 643.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31.5% 증가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11대 산업<sup>140)</sup> 기준으로 2023년 자동차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 중 14.8%를 차지하였다.

표 III-4 | 자동차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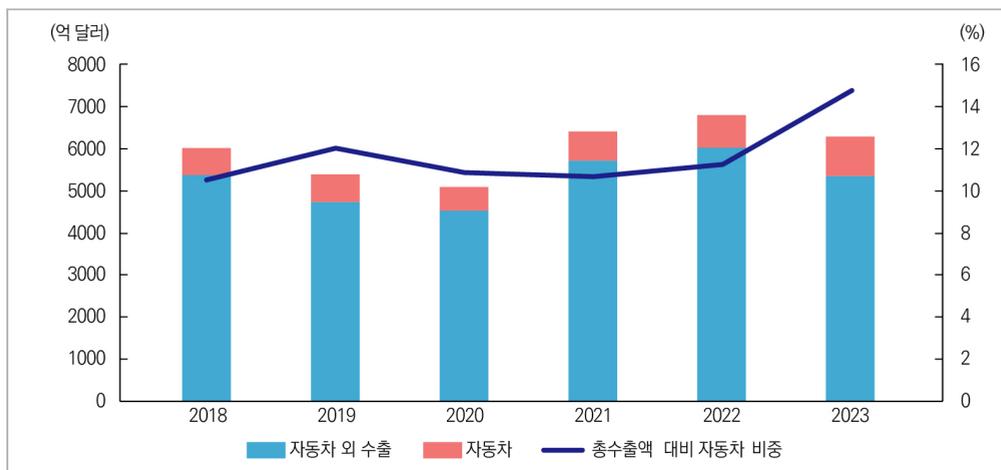
(단위: 천대, 억 달러, 전년대비 %)

	내수	증감률	수출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2018	1,552	-0.5	2,450	-1.2	377.2	-1.6
2019	1,539	-0.9	2,401	-6.3	387.7	2.8
2020	1,611	4.7	1,887	-7.2	377.7	-12.9
2021	1,441	-10.6	2,041	-6.1	415.4	23.0
2022	1,395	-3.2	2,300	-25.4	489.4	17.8
2023	1,458	4.5	2,766	-56.1	643.7	31.5

주: 승용, 상용 차량 합산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I-6 | 자동차 수출 비중



주: 국회예산정책처 11대 산업 분류 기준

자료: 무역협회, 국회예산정책처

140)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경제동향」 분류 기준

2023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전년대비 8.5% 증가한 9,101.7만대 수준으로 판단된다.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한 생산 병목현상이 해소되고 대기수요가 차량 구매로 이어지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2023년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전년대비 29% 성장하며 1,400만대가 판매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23년 전체 자동차 판매대수 중 15.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sup>141)</sup>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국의 친환경 자동차 관련 보조금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위축이 우려되었으나, 친환경 자동차 간의 가격경쟁과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였다. 친환경 자동차의 성장 속도 자체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증가 추세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자동차 글로벌 수요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다발적 지정학적 리스크, 홍해를 중심으로 한 물류 대란 등의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sup>142)</sup> 2024년은 글로벌 경기부진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그동안의 이연수요가 감소하여 2023년의 전년대비 8.5% 상승한 글로벌 자동차 수요에 비하여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3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를 견인하였던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둔화되었던 자동차 구매수요가 2024년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심리의 회복으로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전년대비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유럽은 자동차 가격의 상승으로 시장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이연 대기수요와 경기회복에 힘입어 자동차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9.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소비심리를 보이며 경제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은 전년대비 6.9% 성장하며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중국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성장세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그 성장세가 크게 꺾여 전년대비 1.4% 성장할

141)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3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4년 전망,” 2023.12.

142)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앞의 책.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대기수요로 크게 성장했던 2023년에 비해 대기수요 소진된 채 지속되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하여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자동차 시장은 전년대비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가계부채 상환 부담과 정부 지원의 축소 등으로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로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어 자동차 시장은 전년대비 8.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5 | 세계 자동차 시장 전망

(단위: 천대, 전년대비 %)

	판매대수			증가율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총계	83,887	91,017	94,770	-1.2	8.5	4.1
북미	16,966	18,871	19,585	-6.3	11.2	3.8
미국	14,269	15,840	16,503	-7.2	11.0	4.2
서유럽	11,908	13,277	14,519	-6.1	11.5	9.4
동유럽	3,159	3,832	3,808	-25.4	21.3	-0.6
러시아	783	962	1,028	-56.1	22.9	6.9
아시아	43,770	46,654	47,682	4.1	6.6	2.2
일본	4,224	4,705	4,947	-5.8	11.4	5.1
중국	27,596	29,607	30,014	1.6	7.3	1.4
인도	4,790	5,122	5,251	25.3	6.9	2.5
중남미	3,565	3,588	3,850	2.1	0.6	7.3
브라질	2,095	2,202	2,392	-1.1	5.1	8.6
기타	4,518	4,800	5,324	4.0	6.2	10.9

주: 승용, 상용 차량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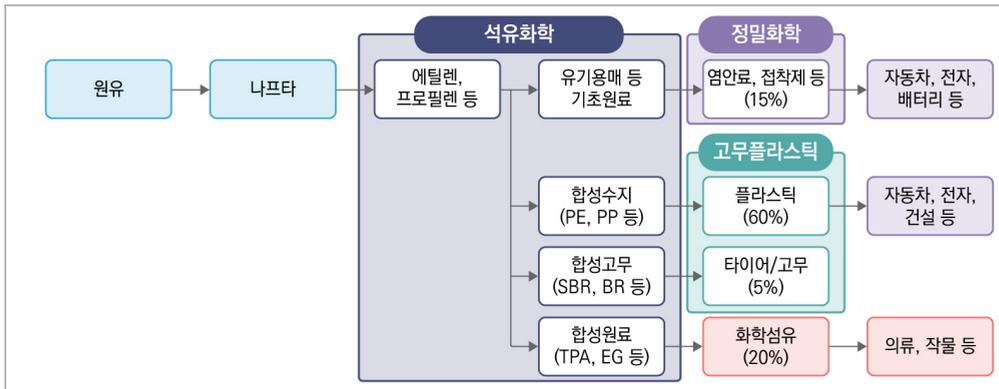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국회예산정책처

▶ 2024년 세계 화학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5% 증가에 그칠 전망

- 세계 경기둔화와 유가의 하향안정세, 중국의 경기둔화와 수요 위축,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등에 기인
- 다만, 2024년 유가가 전년에 비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세계 석유 수요와 OPEC+ 감산 규모가 예측치보다 클 경우 상승요인으로 작용 가능

화학산업은 자동차업, 전기전자업, 섬유업, 건설업, 농업, 의약업 등 다양한 산업의 기초소재를 제공하는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산업으로써, 세계 경제 여건과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화학산업은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으로 구분된다. 석유화학은 석유제품(나프타 등)이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열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유기용매 등 기초원료, 합성수지(플라스틱), 합성섬유 원료, 합성고무 등을, 정밀화학은 이들 원료로 전방산업에 사용될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것을 일컫는다.

| 그림 Ⅲ-7 | 화학산업의 가치사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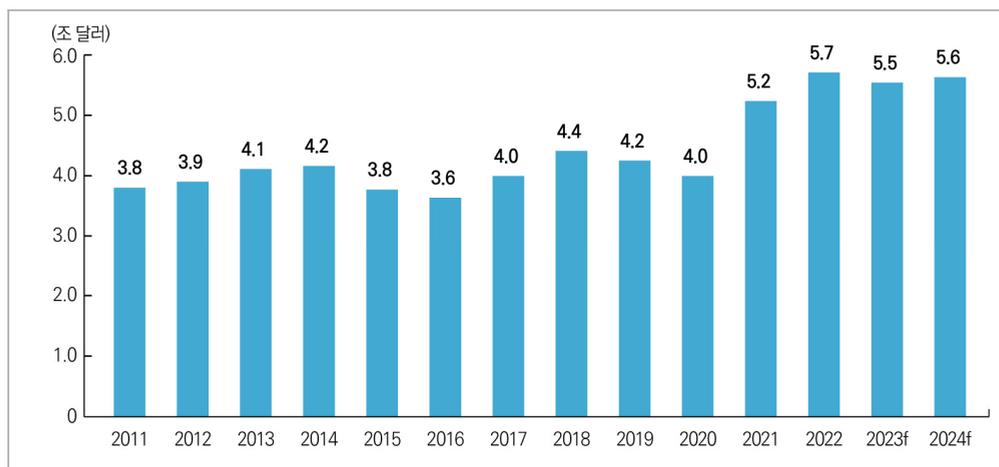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

2023년 세계 화학시장 규모는 2021~2022년의 기저효과로 매출액 기준으로 3.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된 이후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전방산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저금리 하에서 생산시설 증설과 공정개선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세계 화학시장은 2021~2022년 동안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유럽과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전방산업이 부진하였고 재고소진으로 화학산업의 성장은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추세는 2024년에도 이어지면서 세계 화학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약 1.5% 증가한 약 5.6조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7%로 전년(2.9%)에 비해 둔화되고 국제 원유가격도 2024년 79.1달러, 2025년 75.3달러로 하향안정세를 보이는데 기인한다. 다만, 고금리로 소비부진이 이어질 것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약화되면서 기업의 수익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거시적 경제의 불확실성, 중국 경기둔화와 수요 위축, 일부 부문에서 생산능력의 증가로 인한 가격 압박 등으로 수급개선이 단기적으로 지연될 것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의 수요 증가, 바이오 화학시장의 성장,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개발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III-8 | 세계 화학시장 규모



주: 2011~2022년 실적치, 2023~2024년 전망치  
 자료: Cefic, 국회예산정책처

중국의 화학시장<sup>143)</sup>은 2022년 2조 5,113억 달러(매출액 기준)로 전년대비 9.0% 성장하였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세계 화학산업의 수익은 약 4조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 45%가 중국에서 발생한다. 중국은 국내 화학제품 소비량은 1조 7,700억 달러이고 수출액은 720억 달러에 달한다. 수출되는 화학제품 중 유기화학물의 비중이 75%로 높다. 주요 수출국은 2021년 기준으로 미국과 인도, 한국, 일본 등이다. 반면, 주요 수입국은 일본, 한국, 미국, 독일 등이며,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각각 260억 달러, 240억 달러 이상이다. 화학제품의 수출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다소 높아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순수입액은 약 262억 달러에 달한다.<sup>144)</sup> 중국 화학산업의 문제로 낮은 가동률을 들 수 있다. 특히 비료, 스티렌 및 PVC를 포함한 기초화학물질과 폴리머의 가동률이 낮다. 폴리카보네이트와 PACCC의 경우 가동률이 약 60%에 불과하고 PAT의 경우 가동률이 2019년 83%에서 2022년 75%로 감소하였다. 또 다른 문제는 생산시설의 증설<sup>145)</sup>에 따른 과잉생산이다. 프로필렌과 PX의 경우 자급률이 2025년까지 각각 116%와 11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기초화학제품에 대한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로 인해 향후 수급의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의 주요 화학기업들은 M&A를 통한 글로벌 사업확장과 전문 분야와 혁신적인 화학 부문에 대한 진출을 통해 성장과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화학기업인 완화케미컬은 SAP 생산량을 늘리고 리튬 염, 태양광, 나일론 같은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계획이다. 또 다른 기업인 킹파는 폴리페닐렌 설편, 폴리에테르 설편과 같은 고분자에 투자하고 있다. 국영 석유 회사는 수소 경제에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시노펙은 이 분야에서 적극적이다.<sup>146)</sup>

유럽의 화학시장<sup>147)</sup>은 2022년 7,989억 달러(매출액 기준)로 전년대비 9.4%

143) 세계 화학시장 점유율이 2022년 기준 44.0%로 가장 높다.

144) Statista, <<https://www.statista.com/topics/8167/chemical-industry-in-china/#topic-Overview>, 접속: 2024.3.10.>

145) “중국, 에틸렌 설비증설 가속화,” 「중국전문가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2.13.

146) Pflug. Kai., “Tougher Times for China’s Chemical Industry,” CHEManager, Jan. 24, 2024. <<https://www.chemanager-online.com/en/news/tougher-times-chinas-chemical-industry>, 접속: 2024.3.12.>

147) 세계 화학시장 점유율이 2022년 기준 14.0%를 차지한다.

성장하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에너지위원회(American Chemical Council, ACC)에 따르면, 유럽의 화학 생산량이 2023년에 전년대비 7.6% 감소하였다. 특히 EU27개 국가 중 화학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독일의 경우 9.7% 감소하였다. 이는 전방산업의 부진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약세, 중국제품의 지속적인 수입 증가, 높은 에너지 비용과 무역의존도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북서유럽의 가스 가격이 2023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sup>148)</sup> 미국 화학 위원회(ACC)에 따르면, 유럽의 화학 생산량은 2024년에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화학시장<sup>149)</sup> 규모는 2022년 6,368억 달러로, 전년대비 9.2%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상하방요인이 상존하면서 보합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2023년 자동차 판매량이 1,550만대로 증가하면서 해당 부문의 화학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차입 비용의 증가와 경기불확실성으로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리가 인하될 경우 2023년 부진했던 주택시장에서 화학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주요 화학제품 수출국이다. 2022년 미국의 화학제품 수출액은 약 2,600억 달러로, 전년대비 11.6% 증가하였다. 2023년 수출은 7.5%, 2024년 수출은 3.1% 증가할 전망이다. 참고로, 주요 수출품 중 기초화학물질이 46.9%, 의약품이 31.4%의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수출국은 멕시코(31.3%), 캐나다(30.8%), 중국(14.2%) 등의 순이다. 한편 미국은 화학물질 수입 수요도 커, 수입액이 2022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한 약 3,300억 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의약품의 수입 비중이 53.2%로 높은 편이다. 미국은 화학산업에 대한 자본투자와 연구개발(R&D) 지출에 있어 중국 다음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본투자는 2021년과 2022년 기준 각각 248억 달러, 261억 달러였다. 특히 기업들은 저배출 기술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자본투자의 25%를 제조업에 할당하고 있다. 참고로 연구개발비는 2021년과 2022년 기준 각각 128억 달러, 134억 달러였다.

148) 세계 최대화학회사인 바스프(BASF)는 2023년 2월 천연가스 가격을 포함한 유럽의 높은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말까지 독일 루트비히사펜에 있는 암모니아, 카프로락탐,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및 기타 주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49) 세계 화학시장 점유율이 2022년 기준 11.2%를 차지한다.

한국의 화학시장<sup>150)</sup>은 2022년 1,456억 달러로, 전년대비 6.3% 감소하였고 이런 추세가 2023년에도 지속되었다. 이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기의 불확실성 증가, 중국 및 아시아 지역 내 생산시설의 증설 및 단가 하락, 주요 전방산업의 부진 등으로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량이 감소한데 기인한다. 특히 석유화학제품 중 수출 비중이 52%로 높은 합성수지(PE, PP)의 경우 중국 자급률 상승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문에 대한 수출 감소는 향후에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150) 세계 화학시장 점유율이 2022년 기준 2.5%를 차지한다.

## 제4장 철강

### ▶ 2024년 세계 철강 수요는 2023년 대비 1.9% 증가

- 중국의 철강 수요는 2023년 수준을 유지
- 인도, EU27+UK 및 아세안 국가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철강 수요의 회복 전망

### ▶ 2024년 조강생산 능력은 19.1억톤으로 전년대비 1.1% 증가

- 중국의 조강생산은 1억톤, 중국 외 지역의 조강생산은 0.9억톤으로 전망

### ▶ 건설, 자동차 부문의 철강 수요는 감소, 조선, 일반기계 부문의 철강 수요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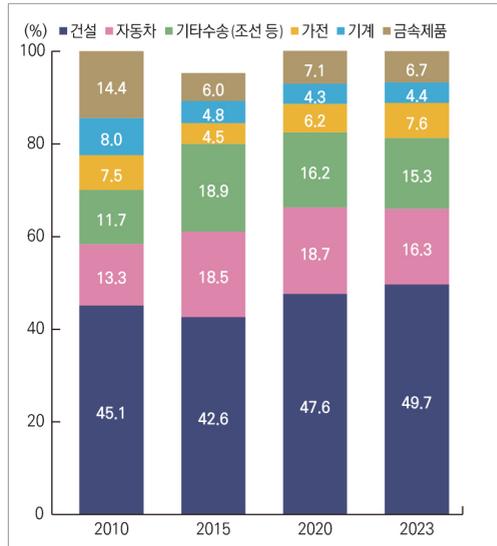
철강산업은 원료탄,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철근, 열연, 후판 등을 생산한다.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가전, 기계 및 금속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 기초소재가 되며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 산업이다. 또한 제조업, 건설업에 영향을 크게 받기에 경기변동에도 민감하다.

표 Ⅲ-6 | 철강제품 분류와 용도

철강제품	용도
열연코일	두께 3mm 미만의 얇은 강판 - 건축물, 자동차 프레임
후판	두께 6mm 이상 두꺼운 강판 - 선박, 교량, 건축물, 보일러
선재	단면이 둥글고 긴 선 형태 - 교량, 엘리베이터용, 스프링
봉강	봉(bar) 형태의 제품 - 벨브, 자동차 부품
형강	형태가 다양(H, I, L, U 형상) - 철근구조물, 후보 보강재
철근	콘크리트 부착력이 강함 - 건축, 토목 구조용 자재

자료: 한국철강협회

그림 Ⅲ-9 | 국내 철강 수요산업 비중



주: 2015년의 공백은 전체 철강수요에서 주요 산업 외 부분을 의미  
자료: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윤희 경제분석관(yunhee.kim@assembly.go.kr, 6788-4679)

글로벌 철강 수요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었고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심화하여 철강 수요가 예상보다 감소(2.3% → 1.8%) 하였다. 2024년에는 인도, EU27+UK 및 아세안 국가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철강 수요가 회복되어 2023년 대비 1.9% 증가할 전망이다.<sup>151)</sup>

표 III-7 | 글로벌 철강 수요 전망

(단위: 백만톤, 전년대비 %)

	2022	2023 <sup>f</sup>		2024 <sup>f</sup>	
		물량	전년대비	물량	전년대비
전세계	1,782.5	1,814.5	1.8	1,849.1	1.9
중국	920.9	939.3	2.0	939.3	0.0
인도	116.2	126.1	8.6	135.8	7.7
미국	94.5	93.5	-1.1	95	1.6
일본	55	53.9	-2.0	54.2	0.6
한국	51.3	53	3.3	53.6	1.1
EU27+UK	152	144.3	-5.1	152.7	5.8
아세안(5)	72.6	75.3	3.8	79.2	5.2

자료: Worldsteel, 2023.10.

조강(쇳물)생산의 경우 중국 내 수요의 둔화에도 최근 생산이 확대되어 2024년 생산능력은 19.1억톤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8 | 글로벌 조강생산 전망

(단위: 백만톤,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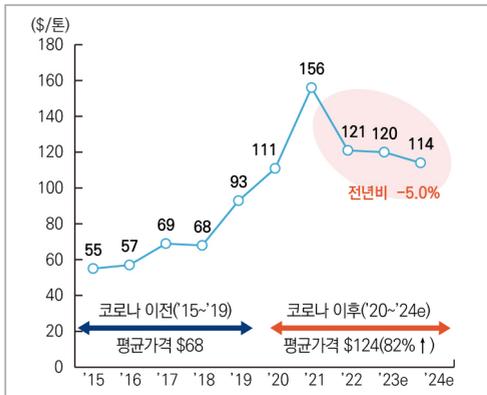
	2022	2023 <sup>f</sup>		2024 <sup>f</sup>	
		물량	전년대비	물량	전년대비
전세계	1,854.0	1,887.0	1.8	1,908.0	1.1
중국	1,011.0	1,041.0	2.9	1,025.0	-1.5
인도	125.4	136.9	9.2	147.8	8.0
미국	80.6	79.9	-0.9	83.1	4.0
일본	89.2	86.4	-3.2	87.6	1.4
한국	65.8	65.6	-0.2	68.9	5.1
EU27+UK	119.7	110.8	-7.4	118.1	6.6
아세안(5)	50.3	60.1	19.5	64.5	7.3

자료: WSD, 2023.11

151) Worldsteel, 202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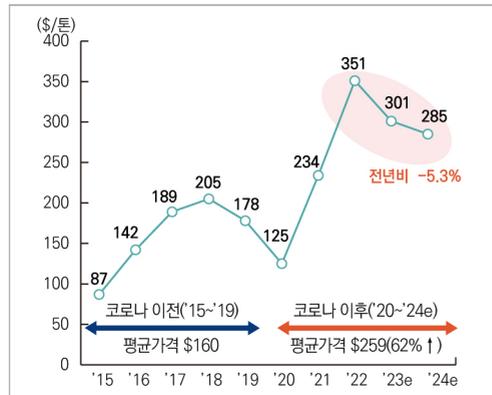
철강 가격에 영향을 주는 원자재 가격은 2023~2024년에 하향 안정화가 예상되나 2019년 이전과 비교 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2015~2019년 철광석의 평균 가격은 68달러이나 2020~2024년 평균 가격은 124달러로 코로나 이전 대비 82% 높은 수준이다. 원료탄 가격도 코로나 이전가격은 160달러였으나 이후 가격은 62% 높은 259달러의 평균가를 보여준다.

| 그림 III-10 | 글로벌 철광석 가격



자료: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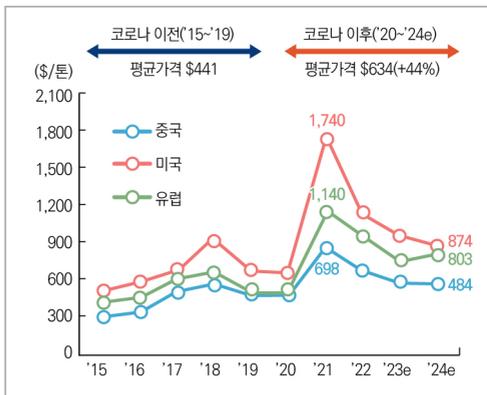
| 그림 III-11 | 글로벌 원료탄 가격



자료: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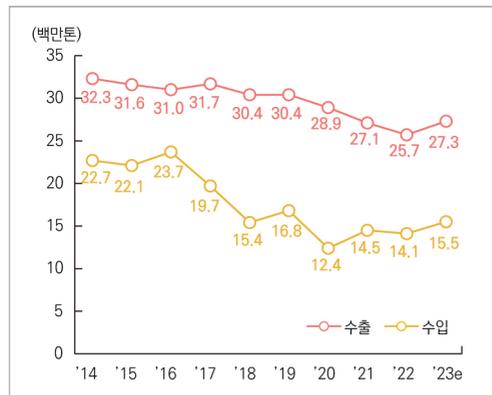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원가 부담이 늘어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나, 중국의 경기둔화와 글로벌 철강 수요의 회복이 지연되어 2024년 철강 가격은 하락 기조가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산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전년 대비 10.2%)하여 철강재 교역 규모가 최근 회복세를 보인다.

| 그림 III-12 | 글로벌 열연 가격



자료: WSD(23.11)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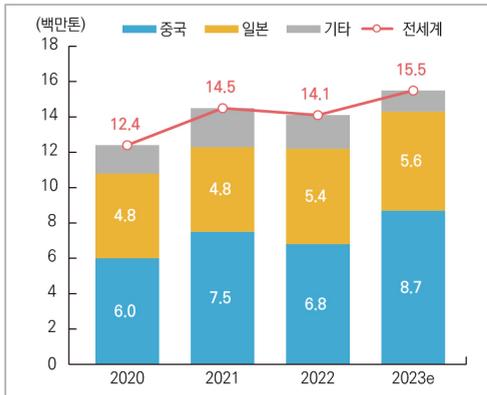
| 그림 III-13 | 우리나라 철강재 수출입 동향



자료: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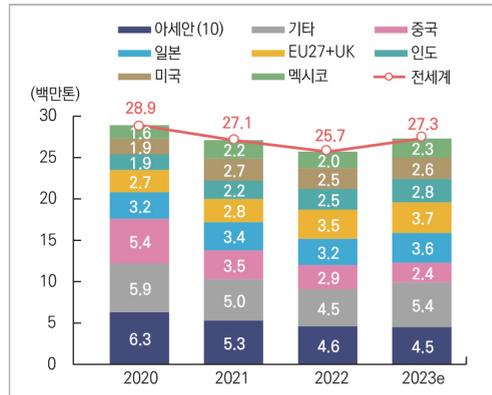
주요 국가별 철강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는 정부 자문단의 경기 부양책 권고<sup>152)</sup>에도 철강 감산 기조를 보이지 않고 있어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인프라 투자 등으로 철강 수요가 주요국 중 가장 높으나, 공급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어 큰 폭의 수출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27+UK는 러-우 전쟁 등의 영향으로 인해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침체한 제조업 분야가 2024년 이후 회복되면서 수출의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국내 기업에 대한 수입 쿼터로 그 증가세는 제한적이다. 아세안 지역은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급 확대<sup>153)</sup>로 수출 개선은 확실하지 않다.

| 그림 III-14 | 우리나라 철강 수입 추이



자료: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그림 III-15 | 우리나라 철강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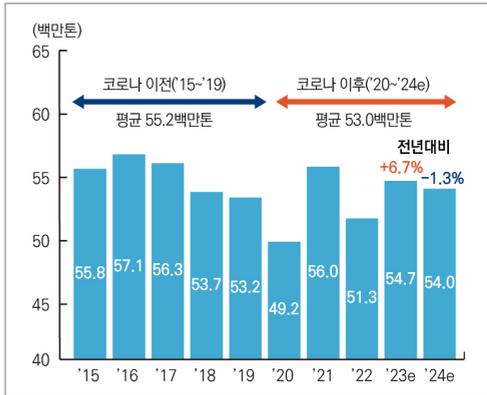
자료: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4년 국내 철강산업은 건설경기가 둔화하고 자동차 수요가 둔화하여 내수가 전년 대비 1.3% 감소하지만, 수출은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내년도 철강 수요 증가로 1.1% 증가가 예상된다. 생산은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나 수입은 최근 중국산 등의 수입이 급증한 가운데 2024년은 중국의 수급 불균형이 일부 개선되고 내수 부진으로 1.4% 감소가 전망된다.

152) 중국 정부 자문단은 2024년도 경제성장 목표 달성(4.5%~5.5%)을 위해 인프라 투자 등 추가 경기부양책을 촉구하고 있다. 'China's leaders meet to discuss growth targets for 2024,' Reuters, Dec. 12, 2023.

153) 아세안 조강생산능력은 2022년 80백만톤, 2023년 83백만톤에서 2026년 최소 1억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한국철강협회, 2024. 2).

| 그림 III-16 | 국내 철강 내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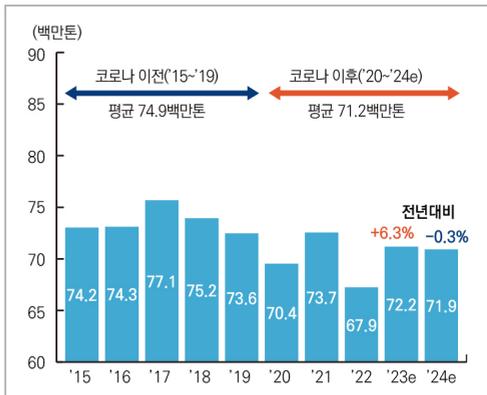
자료: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그림 III-17 | 국내 철강 수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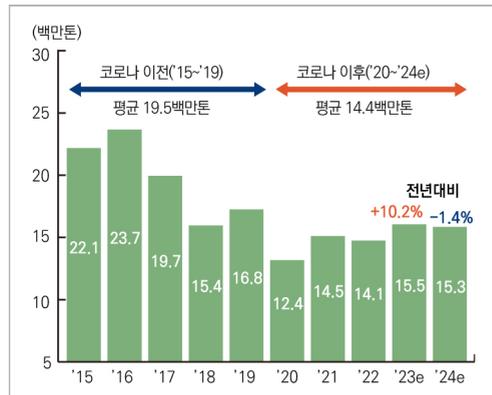
자료: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그림 III-18 | 국내 철강 생산 전망



자료: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그림 III-19 | 국내 철강 수입 전망



자료: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4년 국내 산업 부문별 철강재 수급은 건설경기 침체 지속, 자동차 수요 둔화에 따라 건설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조선 등 일부 산업의 수요가 개선될 전망이다. 전방 산업별로 비교 시 자동차는 누적된 대기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경기둔화 지속으로 차량 구매수요 위축 등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다. 건설은 대형 토목공사<sup>154)</sup>를 비롯하여 공공 부문 투자는 양호하지만,<sup>155)</sup> 고금리 장기화, 수익성 하락으로 건설사의 자금조달은 더 어려워지고 민간 부문이 부진하여 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반등은 어려울 전망이다. 조선은 국내로부터 고부가가치 선박, 해외로부터 범용 선박의 인수가 증가<sup>156)</sup>

154) 가덕도신공항 건설 가속화, 반도체 공장 건설투자 회복 등이 예정이다.

155) 2024년 기준 정부 SOC예산(국회 확정)은 26.4조원이다('23년 대비 '24년 예산 5.6% 증가).

하면서 내수 물량이 증가할 예정이다. 일반기계의 경우 수요산업의 점진적 경기회복에 따른 기계류 투자 수요 확대로 감소세 완화가 전망되며, 가전의 경우 고물가 및 부동산시장 부진으로 소비 여건 개선은 제한적이다. 다만, 고효율·스마트 제품 수요 회복 등은 내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sup>157)</sup>

156)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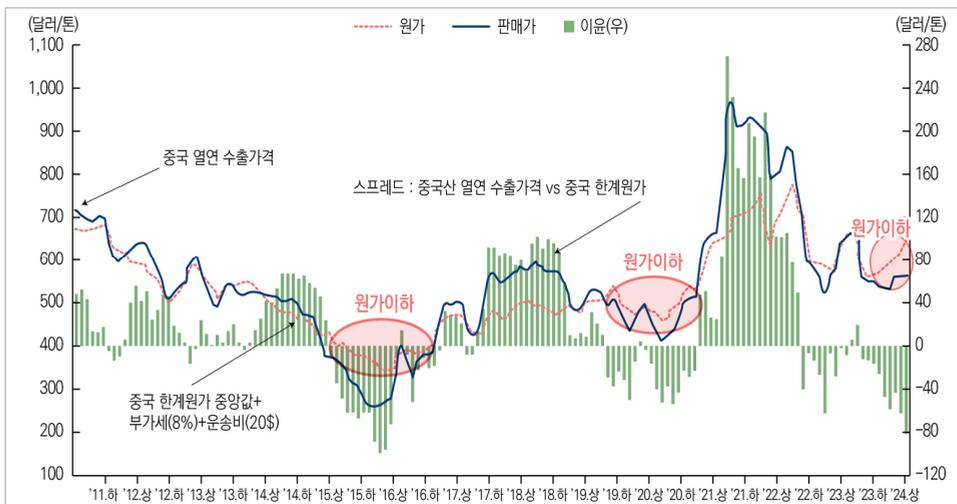
157) 산업연구원(23.11월), 건설산업연구원(23.11월), 철강협회 전망(23.10월)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 [BOX 3] 글로벌 철강산업 이슈

#### □ 중국의 대규모 과잉설비 및 덤핑 수출로 글로벌 철강 시장 블록화

-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중국은 '15년 이후 원가 대비 25% 내외 적자 수출 시작,<sup>158)</sup> '23년 말에도 중국산 철강은 원가 대비 11% 저가 공급
  - '15년 기준 전세계 과잉설비<sup>159)</sup>의 63%를 중국이 차지, '22년은 24%
  - OECD를 중심으로 '16년부터 글로벌 과잉설비 방지를 위한 포럼 운영<sup>160)</sup>
- 최근 10년, 중국계(비시장경제)와 탈중국(시장경제)의 분리 및 대립 가속
  - 과잉설비(적정 가동률 이하) → 잉여생산 덤핑 수출 → 수입규제 한계 (국별·품목별 규제 한계) → 글로벌 철강 시장의 탈중국 블록화
  - 미국과 EU는 AD,<sup>161)</sup> CVD쿼터,<sup>162)</sup> SG,<sup>163)</sup> 기술표준 외 기후변화 관련 조치<sup>164)</sup> 등 모든 보호 수단을 동원하여 자국 우선주의 강화<sup>165)</sup>
  - 각국이 철강 수출입 신고 절차 강화<sup>166)</sup> 등 철강 교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

| 중국의 원가 이하 철강 수출 현황 |



자료: World Steel Dynamics, 「Inside Track #207」, 2024. 2. 2.

#### □ 글로벌 철강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과 교역구조 안정화 모색 필요

- 국내 철강산업은 기초원료(철광석, 원료탄 등)를 대부분 수입하고 철강을 생산하여 70% 내외를 수출하기에 글로벌 통상 여건 변화에 민감
  - 수출은 직접 수출 40%와 간접 수출 30%로 구성, 해외시장 의존도 높음

- 수입은 국내 철강 소비의 수입 비중이 26.8%로 높고, 재가공용 소재(반제품, 핫코일, 선재 등) 또한 수입 비중이 큰 구조
- 미국과 EU 등 주요국은 철강 통상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옴
  - 미국은 '15년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TPEA), '23년 무역구제 조사 강화 법안, IPEF 내 관세 당국 간 조사협조 의무화를 추진
  - EU는 '23.12월 통상 위협 대응조치(Anti-Coersion Instrument·ACI) 발효

Ⅰ 글로벌 철강산업 과잉설비로 인한 통상이슈 I



- 국내 철강 수출입 통관제도의 정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통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
  - 중국 등 수입산 소재 활용 제품 수출의 위험관리를 위해 수출입 통관 시 철강가이드라인 및 MTC첨부 의무화 등 국내 수출입 제도 개선 필요
  - 불공정 수입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

158) World Steel Dynamics, 「Truth & Consequence #76」, 2015.12.24.

159) 과잉설비율 = ((설비-생산)/설비)\*100

160)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 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

161) 반덤핑(Anti-dumping, AD): 정상 가치 이하로 수출(덤핑)된 제품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무역 방지제도

162)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CVD):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불공정무역 별칙관세

163) 세이프가드(Safeguard):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수입 제한 조치

164)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

165)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20개국 80건 규제 및 조사 중('24.2월): 미국 30건, 캐나다 9건, 태국 8건, 호주 6건

166)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품 소재를 활용한 철강 수출의 위험 관리를 위해 EU 소재 MTC(Mill Test Certificate, 품질검사증명서) 확인('23.9~), 미국 SIMA(Steel Import Monitoring and Analysis, 철강 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조강 기준 적용('20.10~), 인도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표준국) 요건 확인 등이 추진 중이다.



2024 경제전망 II  
- 생산 부문 -  
(2024 Economic Outlook II)

---

발간일	2024년 3월 29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발행처	<b>국회예산정책처</b>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

ISSN 3022-7739

© 국회예산정책처, 2024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0496-001627-10

ISSN 3022-7739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